

(<https://pa.gwnu.ac.kr/>)

제4대 반선섭 총장 중간평가 및 대학 발전방안 연구

2022년 10월 28일

강릉원주대학교
교 수 회

제 출 문

이 보고서를 “제4대 반선섭 총장 중간평가 및 대학
발전방안 연구” 과제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총괄책임자
연구원

강승호
권진
김대원
박철원
손성익
용영록
조주복
최병학
황승환

I. 서 론	7
II. 연구설계	8
1. 선행연구 분석	8
2. 연구내용 및 분석방법	11
III. 설문조사 및 분석	16
1. 응답자 특성	16
2. 대학 운영에 대한 기여도	18
3. 지도력	24
4. 구성원 복지	36
5. 교육 분야	42
6. 연구 분야	49
7. 재정	54
8. 산학연	59
9. 대학 현안	64
10. 분야별 종합 분석결과	70
11. 자유 응답	71

IV. 총장 공약사항 이행정도 분석평가	77
1. 교육	77
2. 연구	80
3. 지역사회/국제화	83
4. 대학 경영	88
5. 환경변화 대응(재정 포함)	90
6. 구성원 복지	93
7. 단과대학별 공약	96
V. 요약 및 결론	104
부 록 I 설문지	109

I. 서론

대학은 사회발전 추구에 필수적인 교육기관이며, 특히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게 하는 한 나라의 경쟁력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대학의 경쟁력은 대학 총장의 역할 수행 능력 및 그의 지도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학의 총장은 대학 행정의 수반이며 대학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학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대학에서 총장평가 시스템을 총장직(presidency)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착시켜 가고 있다.

강릉원주대학교는 역사가 아주 깊지도 크지도 않지만 나름의 경쟁력을 지닌 지역 중심 국립 대학교로 나아가기 위하여 총장 중간평가를 정례화하고 체계화하고 있다. 제1대 한송 총장, 제2대 전방욱 총장, 제3대 반선섭 총장의 임기 중간에 중간평가가 실시되었다. 2022년 3월 1일 4년 임기의 중간을 맞는 제4대 반선섭 총장의 학교 운영에 대한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공약 사항 이행 정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중간평가’는 당연히 총장과 집행부에 대한 신인도를 묻고 ‘평가’한다는 뜻이 포함되지만, 보다 강조점을 두어야 할 것은 ‘중간’이라는 어의일 것이다. 즉 중반을 지난 이후에도 남은 절반의 임기 중 해야할 과제를 효율적으로 발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이번 중간평가 보고서는 총장의 대학 운영 만족도와 함께 총장의 후보 시절 공약의 이행 여부와 교수들이 생각하는 총장으로서의 역량을 평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공약사항의 이행 정도에 대한 평가는 임기 전반기에 수행한 실적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잔여 임기 동안 아직 수행되지 않는 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하여 궁극적으로 총장이 대학 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데 의의가 있다.

대학의 최고 결정권자인 총장의 리더로서의 지도성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후보 시절에 제시한 공약에 대한 이행 정도 평가는 미래의 총장 후보자들의 자질을 견인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의 총장 후보자들이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등에 관하여, 구성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대학의 발전 방향 및 실현가능한 방안들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생각하게 할 참고 자료가 될 것이며, 총장 재직 중 이의 실현을 위하여 보다 분투하게 할 것이다.

II. 연구설계

1. 선행연구 분석

제1대 한송 총장의 중간평가 설문 분석 문항은 아래 <표 2-1>과 같이 구성되었다.

<표 2-1> 제1대 한송 총장 중간평가 설문 분석 문항 요약

부문		번호	설문내용
총장의 지도력		1	지역사회로의 평가
		2	대학 발전의 구체적 전략
		3	대학 구성원의 갈등 조정 능력
		4	교수의 의견 존중 및 정책 반영노력
		5	공약의 우수성
총장공약의 이행여부와 정책의 성과	총론	1	전체적 공약 이행
		2	대학 발전 중요 공약 이행
		3	실현가능성 높은 공약 이행
		4	교육 및 연구 부분 공약 이행
		5	교수 신분보장, 교직원 처우개선, 학생 복지 부문 공약 이행
		6	대학재정과 행정 등 학교 운영 관련 부문 공약 이행
		7	교수회 관련 공약 이행
	교육 연구 분야	8	교수 충원을 제고 및 우수교원 확보
		9	기초 보호 학문 분야의 보호 및 육성
		10	학생 취업, 우수 학생 유치
총장공약의 이행여부와 정책의 성과	교육 연구 분야	11	교육시설 및 Program의 첨단화 및 학생 수학 능력 향상
		12	기숙사 시설 확충, 장학제도 확대
		13	각종 연구 자원 제도 확립
		14	조교, T/A 및 R/A 정원 증원
		15	대학원생 지원 강화
		16	연구소 유치, 설립,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연구기금 확충
		17	교내 연구소, 연구회의 활성화 및 지원
	교수 학생 분야	18	교수 신분보장
		19	교수 처우 개선
		20	교직원/학생 복지향상
	재정 행정 분야	21	대학재정 확충
		22	재정의 안정성과 투명성 보장
		23	전시 행정 지양, 교육과 연구에 우선 투자
		24	행정의 투명성
		25	행정의 민주성
		26	단과대학에 실질적 권한 위임
	기타	27	국내 및 국제교류/지역사회 협력 강화
		28	교육연구시설 확충/ 토지매입

	정책 의 성과	29	산학연 프로젝트 참여 재정확충
		30	전체적정책성과 (매우 우수 ---- 매우 미흡)
		31	교육 및 연구부문 성과
		32	교수 신분보장, 교직원처우개선, 학생 복지 성과
		33	대학재정과 행정 등 학교 운영 성과
		34	단과대학 발전에 도움 (매우 그렇다 ----- 매우 그렇지 않다)
		35	학과 발전에 도움
		36	지도학생 발전에 도움
		37	교수 발전성과에 도움
대학현안에 대한 본부의 자세평가		1	대학입학정원 감축문제 대응
		2	대학간 통합문제 대응
		3	대학종합평가 대응
		4	교수회 학칙기구화 추진 시기
		5	책임강의시수 감축 추진 방식
개방형 질문	잘한 일		
	잘못한 일		

제2대 전방욱 총장 중간평가 설문 분석의 문항은 아래 <표 2-2>와 같이 구성하였다.

<표 2-2> 제2대 전방욱 총장 중간평가 설문 분석 문항 요약

부문		번호	설문내용
총장의 지도력		1	대학운영 기본철학과 장기적 비전으로 운영 (매우 그렇다 --- 전혀 아니다)
		2	주요 정책의 교수 의견 수렴
		4	지역사회의 평가
		6	보직자 인선, 임명의 공정성
		8	대학발전을 위한 대외활동
		11	총장 역량(리더십, 연구기획력, 협동심) 평가
		12	총장 역할(교직원, 지역소통)등 수행
총장공약		3	교수회 법정기구화 이행
교수학생 분야		9	교직원 보수 및 복지
교육연구 분야		10	교육과 연구여건의 개선
재정행정 분야		7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정책의 성과		13	취임 후 대학운영 전반적 평가 (매우 그렇다 --- 전혀 아니다)
대학현안		5	대학 구조조정 진행
개방형 질문	잘한 일		총장이 가장 잘한 일
	잘못한 일		총장이 가장 잘못된 일

제3대 반선섭 총장 중간평가 설문 분석의 문항은 아래 <표 2-3>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2-3> 제3대 반선섭 총장 중간평가 설문 분석 문항 요약

분 야	내용
1. 대학운영	1. 학교 발전에 기여
	2. 단과대학 발전에 기여
	3. 교수역량 향상에 기여
	4. 직원역량 향상에 기여
	5. 학생역량 향상에 기여
2. 총장의 지도력	1. 대학발전전략 추진
	2. 대학구성원들간 화합
	3. 주요보직자 인선의 적절성
	4. 직원 인사배치의 적절성
	5. 교수의견의 정책반영
	6.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교류
	7. 대학행정의 투명성
	8. 대학행정의 민주성
	9. 단과대학의 자율성
	10. 단과대학장 인선의 적절성
3. 구성원 복지	1. 교직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인상 등 처우개선
	2. 교직원 복지시설 확충
	3. 교직원 복지제도 개선
	4. 학생 복지제도 개선
4. 교육분야	1. 교수 충원을 제고
	2. 교양교육 내실화
	3. 전공교육 내실화
	4. 대학원교육 내실화
	5. 교육시설 및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5. 연구분야	1. 교수 연구활동 지원 확대
	2. 연구소 및 연구회 활성화
	3. 연구기금 확충 등 연구재원 확대
	4. 대학원생 연구 지원
6. 재정분야	1. 대학재정 확충
	2. 대학재정의 투명성
	3. 예산집행의 적절성
	4. 외부 기금 유치

7. 산·학·연분야	1. 산·학·연 과제 활성화
	2. 산·학·연 재정확충
	3. LINC+ 사업의 활성화
8. 대학현안	1. 대학기본역량진단 대응
	2. 신입생 유치
	3. 대학구조조정 진행
	4. 학생 취업(인턴, 현장실습 등)활동 지원
9. 자율응답형	1. 잘한 일 - 그 이유
	2. 못한 일 - 그 이유
	3. 남은 임기동안 학교운영에 바라는 것
10. 통계처리 기본사항	1. 연령
	2. 성별
	3. 직급
	4. 단과대학

2. 연구내용 및 분석방법

대학 총장 중간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구성원들에 의한 평가이다. 총장 직무 수행과 관련된 여러 분야 행위를 구성원들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는지 혹은 만족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설문을 통해 교수들의 만족도를 조사한다. 설문평가의 경우는 강릉원주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각 분야별 전반적 만족도 및 분야별 만족도를 실시하였다.

〈표 2-4〉 제4대 반선섭 총장 중간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문항 구성

분야	내용
1. 대학운영	1. 학교 발전에 기여
	2. 단과대학 발전에 기여
	3. 교수역량 향상에 기여
	4. 직원역량 향상에 기여
	5. 학생역량 향상에 기여
2. 총장의 지도력	1. 대학발전전략 추진
	2. 대학구성원들간 화합
	3. 주요보직자 인선의 적절성
	4. 직원 인사배치의 적절성
	5. 교수의견의 정책반영
	6.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교류

	7. 국제적 마인드 향상
	8. 대학행정의 투명성
	9. 대학행정의 민주성
	10. 단과대학의 자율성
	11. 단과대학장 인선의 적절성
3. 구성원 복지	1. 교직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인상 등 처우개선
	2. 교직원 복지시설 확충
	3. 교직원 복지제도 개선
	4. 학생 복지제도 개선
4. 교육분야	1. 교수 충원을 제고
	2. 교양교육 내실화
	3. 전공교육 내실화
	4. 대학원교육 내실화
	5. 교육시설 및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5. 연구분야	1. 교수 연구활동 지원 확대
	2. 연구소 및 연구회 활성화
	3. 연구기금 확충 등 연구재원 확대
	4. 대학원생 연구 지원
6. 재정분야	1. 대학재정 확충
	2. 대학재정의 투명성
	3. 예산집행의 적절성
	4. 외부 기금 유치
7. 산·학·연분야	1. 산·학·연 과제 활성화
	2. 산·학·연 재정확충
	3. LINC+ 사업의 활성화
8. 대학현안	1. 대학기본역량진단 대응
	2. 신입생 유치
	3. 대학구조조정 진행
	4. 학생 취업(인턴, 현장실습 등)활동 지원
9. 자율응답형	1. 잘한 일 - 그 이유
	2. 못한 일 - 그 이유
	3. 남은 임기동안 학교운영에 바라는 것
10. 통계처리 기본사항	1. 연령
	2. 성별
	3. 직급
	4. 단과대학

설문은 연령, 성별, 직급 등 통계에 필요한 개인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대학운영, 총장의 지도력 등을 포함하는 총 10개 분야로 구분하였고, 각 분야별 3-11개의 세부 문항으로 세분하여 작성하였다. 응답형식은 폐쇄형 5점 척도로 작성하였다. 또한, 2년간의 총장업무 수행 중 잘한 일과 그 이유, 못한 일과 그 이유, 그리고 남은 임기동안 학교운영에 바라는 것은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교수구성원들을 대상으로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15일간 실시되었다.

중간평가를 위한 두 번째 내용은 총장 입후보시 제시한 공약을 토대로 한 질적 분석이다. 공약 이행정도의 평가는 먼저, 연구진들이 공약사항에 대해 내용 <표 2-5>를 정리하고, 이를 본부에 송부하여 관련 항목별 이행 실적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제출된 실적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공약의 이행정도를 평가하였다.

평가등급은 크게 상, 중, 하로 구분하였으며, 제출 자료가 없거나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 하로 배점하였다. 물론 연구진이 배정한 배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행실적이 저조한 분야를 가려내어 총장의 남은 임기 중에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제시한다는 점이다.

<표 2-5> 제4대 반선섭 총장 공약사항 요약

교육	고차적 창의인재 양성 1. 양질의 교육 • 대학 교육 목적에 부합한 인성과 역량 교육 강화 • 학습성향 진단·분석을 통한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 맞춤형 진로교육 제공을 통한 취업역량강화 • 학생생활 상담 프로그램 지원 강화 2. 학사 제도의 유연화 • 창의·융합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사제도의 유연화 실현 3. 학습환경 스마트화 •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교육방법 및 평가 유연화 추진 • 창의·융합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의 지속적 개선 • EdTech Platform 구축
연구	미래 지향적 융합연구·산학협력 지원 1. 연구 및 산학 인센티브 강화 • 1인 1TA 지원 등 연구 지원 다양화 • 교육·연구·학생지도비의 인정 항목 다양화와 증액 추진 2. 연구 인프라 지원 확대 •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강화 • 연구·기술 이전·취·창업·연구 투자의 선순환적 시스템 확립 3. 산·학·연·관 연계 클러스터 강화 • 산·학·연·관 협력 다변화 및 공간적 융합환경 조성 • 국가 및 지역의 미래전략산업과 연계된 대학 특성화 분야 구축 강화

지역사회	지역과 대학 간 상호협력체계 안정화 1. 지역중심 국립 대학의 가치 제고 • 지역 가치를 높이는 열린 교육 실현 • 지역 협력 거버넌스의 활용 극대화 2. 지역과 대학간 네트워크 강화 • 지역 내 대학과 교류를 위한 연합 대학(U-GW) 구축 강화 • 지역 고교와의 유대 강화로 지역 우수학생 유치 체계 구축 3. 국제적 마인드 함양 강화 • 국제교류의 양적 성장 및 질적 향상 추구 • 글로벌 역량 프로그램 지원 강화 • 해외 자매대학과의 제휴 강화 및 국제교류 지원 확대
대학경영	조직문화의 가치 공유 1. 신뢰와 협력의 직장문화 조성 • 성과중심의 업적평가 및 인사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 소통 · 협력의 조직문화 구축 • 행정지원 효율화를 위한 체계 개선 2. 실속 있는 복지서비스 증대 및 개선 • 즐겁고 신나는 학생복지 • 교수복지 증대 및 개선 • 직원복지 증대 및 개선 3. 캠퍼스 공간 활용의 최적화 실현 • 캠퍼스 공간 활용 및 안전캠퍼스 실현
재정확충	환경변화 대응체제 구축 1. 대학 정책 위원회 발족을 통한 대응체제 강화 • 지속 성장 가능한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정 보완 • 미래 교육대응전략위원회 구성 및 전문성 강화 2. 지속적 성장 발전을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 • 재정 효율화 및 예·결산 업무의 투명성 제고 • 대학발전기금 모금 방법의 다원화 3. 전략적 입시 대응 체제 구축 • 분야별 홍보전략 수립 • 신입생 및 편입생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 국외 유학생 유치 환경 구축
구성원 복지	1. 학생복지 • 반다비 체육관 건립 •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 지원 • 노후 학생생활관 BTL추진 • 도서관 리모델링 추진 •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강화

		2. 교수복지 •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증액 및 제도 개선 • 교수 1인 1TA 제도 도입 • 명예 교수실 탄력적 운용 • 신입교수 연구 정착금 확대 지원 • 연구 의욕 고취 연구환경 개선 3. 직원복지 • 상대적 소외 직종의 생계형 지원 강화 • 합리적 인사행정 구현 추구 • 직원직능단체 대학정책 참여 여건 마련 • 승진 기회 확대 • 근무 업무 경감 및 임용제도 개선
단과 대학별 공약	대학전체	• 교육환경의 지속적 개선 •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존중 • 안전하고 아름다운 캠퍼스 조경
	인문대학	• 연구실 개수대 설치 • 인문학 등 기초보호학문 지원 • 교수 소모임 등 연구·교육 활동 지원
	사회과학 대학	• 쾌적한 강의 공간 확보 • 전산실습실 개선 • 전공 맞춤형 강의실 및 토론실 확보
	자연과학 대학	• 자연과학 1호관 안전성 확보 • 자연과학 등 기초보호학문 지원 • 자연과학관 실습 환경 개선
	생명과학 대학	• 농장 실습 지원 강화 • 연구 및 공동실험실 건립 • 식품 및 해양분야 특성화 전략 강화
	공과대학	• 기업 및 산업체 연계교육 지원 강화 • 특성화 및 자율화 지원 • 연구 및 실습실 환경 개선
	예술체육 대학	• 예술 1호관 리모델링 추진 • 쾌적한 학습 및 실기 공간 확보 • 에어컨 등 연구환경 시설 보완
	치과대학	• 융·복합 연구센터 건립 • 인증평가의 안정적 지원 • 치과병원 산학협력 지원
	보건복지 대학	• 실습교육을 위한 활동 지원 • 인증평가 등 지원 강화 • 학과별 지역연계사업 지원 강화
	과학기술 대학	• 지역특화형 산·학 연구 타운 조성 • 특성화 및 자율화 지원 • 과학기술 1호관 리모델링 추진

III. 설문조사 및 분석

제4대 반선섭 총장 중간평가를 위해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15일간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22년 6월 현재 전체 교수 수는 376명이며, 설문조사에는 연구년 (13명), 장기해외파견 (2명), 휴직 및 연수 (2명)도 포함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241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64.1%이고, 이 중 미응답 9부를 제외하면 응답률은 **61.7%**로 집계되었다. 본 평가에서는 미응답 9부를 제외한 232부에 대해 분석하였다.

1.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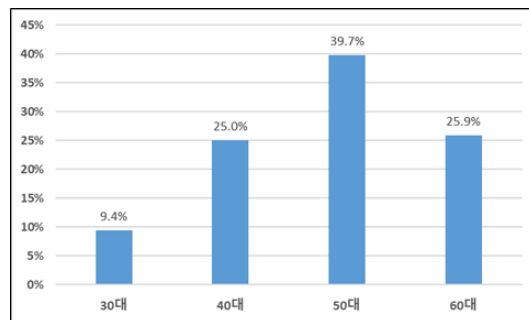
1)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

연령별로 응답자의 특성을 보면, 50대가 39.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60대 25.9%, 40대 25.0%, 30대 9.4%의 순이다. 50대 이상은 전체의 65.6%를 차지하여 제3대 총장 중간평가에 비해 10.4% 줄어든 반면 30대는 5.5%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비율의 변화는 최근에 정년퇴임 교수가 많아지고 신입교수의 채용이 증가하여 교수 구성이 젊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1> 연령별 특성

구분	빈도	비율
30대	21	9.4%
40대	56	25.0%
50대	89	39.7%
60대	58	25.9%
합계	224	100%

<그림 3-1> 연령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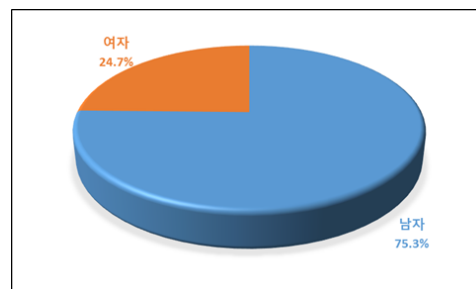
2) 응답자의 성별 분포

설문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가 75.3%, 여자 24.7%로서 남자의 비율이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성별 특성

구분	빈도	비율
남자	55	75.3%
여자	15	24.7%
합계	223	100%

<그림 3-2> 성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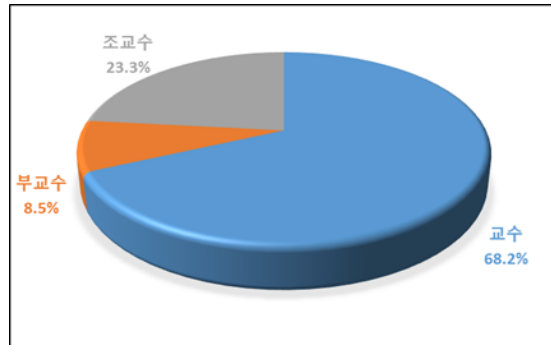
3) 응답자의 직급별 분포

설문 응답자의 직급별로는 교수가 68.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조교수 23.3%, 부교수 8.5%의 순이다.

<표 3-3> 직급별 특성

구분	빈도	비율
교수	152	68.2%
부교수	19	8.5%
조교수	52	23.3%
합계	223	100%

<그림 3-3> 직급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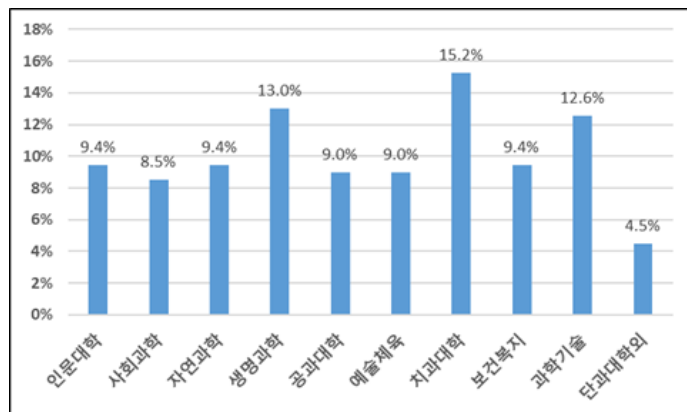
4) 응답자의 단과대학별 분포

단과대학별로는 치과대학이 15.2%로 응답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이고, 그 다음이 생명과학대학 13.0%, 과학기술대학 12.6%의 순이다. 다른 단과대학들은 8~10%의 비율이며, 단과대학 외는 4.5%의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표 3-4> 단과대학별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인문대학	21	9.4%
사회과학	19	8.5%
자연과학	21	9.4%
생명과학	29	13.0%
공과대학	20	9.0%
예술체육	20	9.0%
치과대학	34	15.2%
보건복지	21	9.4%
과학기술	28	12.6%
단과대학외	10	4.5%
합계	223	100%

<그림 3-4> 단과대학별 특성



2. 대학 운영에 대한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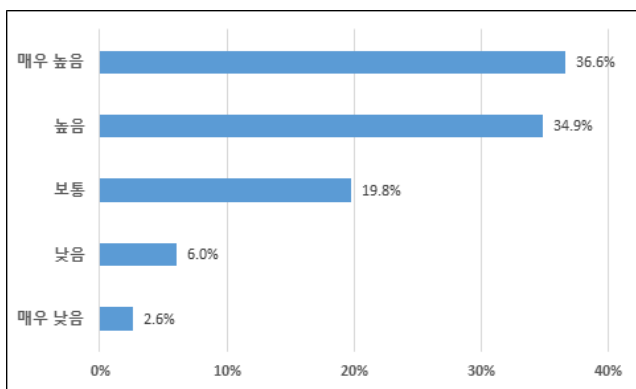
1) 학교 발전에 기여

총장의 학교발전에 대한 기여는 높음과 매우 높음이 각각 81명 (34.9%), 85명 (36.6%)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71.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보통은 46명 (19.8%)이고, 낮음 또는 매우 낮음은 각각 14명 (6.0%), 6명 (2.6%)로 부정적인 평가는 낮게 나타났다. 이를 5점 척도를 나타내면 3.97로 대학 운영에 대한 기여도 5개 항목 가운데 가장 높으며, 전체 설문 항목 중에서도 높은 편이다. 따라서 총장의 학교발전에 대한 기여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표 3-5> 학교발전에 기여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높음	85	36.6%
높음	81	34.9%
보통	46	19.8%
낮음	14	6.0%
매우 낮음	6	2.6%
합계	232	100%
평균	3.97	

<그림 3-5> 학교발전에 기여



<표 3-6> '학교발전에 기여'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ⁱ⁾

단과대학	빈도 (비율)					빈도 합계	평균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인문대학	2 (9.5%)	2 (9.5%)	7 (33.3%)	5 (23.8%)	5 (23.8%)	21	3.43
사회과학대학	2 (10.5%)	1 (5.3%)	3 (15.8%)	2 (10.5%)	11 (57.9%)	19	4.00
자연과학대학	1 (4.8%)	2 (9.5%)	7 (33.3%)	6 (28.6%)	5 (23.8%)	21	3.57
생명과학대학	0 (0.0%)	1 (3.4%)	8 (27.6%)	13 (44.8%)	7 (24.1%)	29	3.90
공과대학	0 (0.0%)	1 (5.0%)	7 (35.0%)	6 (30.0%)	6 (30.0%)	20	3.85
예술체육대학	1 (5.0%)	2 (10.0%)	2 (10.0%)	10 (50.0%)	5 (25.0%)	20	3.80
치과대학	0 (0.0%)	0 (0.0%)	0 (0.0%)	16 (47.1%)	18 (52.9%)	34	4.53
보건복지대학	0 (0.0%)	4 (19.0%)	2 (9.5%)	6 (28.6%)	9 (42.9%)	21	3.95
과학기술대학	0 (0.0%)	1 (3.6%)	6 (21.4%)	13 (46.4%)	8 (28.6%)	28	4.00

단과대학별로 보면 치과대학이 5점 척도에서 4.53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사회과학대학과 과학기술대학으로 4.0이다. 치과대학은 설문 응답자 모두가 잘함 또는 매우 잘함으로 평가하였다.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단과대학은 인문대학 3.43이고 그 다음은 자연과학대학이 3.57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최저점수가 비교적 높은 편이며, 대부분의 단과대학이 총장의 학

ⁱ⁾ 단과대학 외 소속 교수 10명의 설문결과는 단과대학별 비교에 제외하고 집계하였음.

교발전에 대한 기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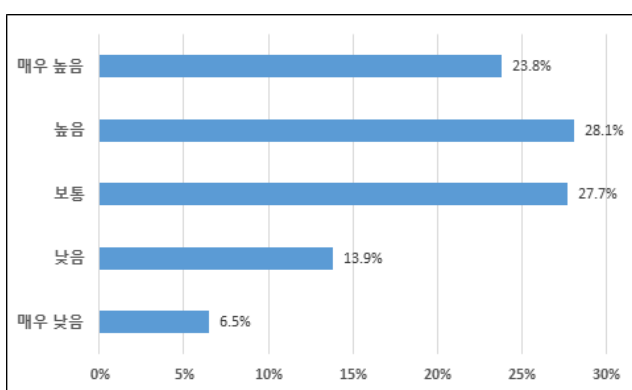
2) 단과대학 발전에 기여

총장의 단과대학 발전에 기여는 높음이 65명 (28.1%), 매우 높음이 55명 (23.8%), 보통이 64명 (27.7%)이다. 낮음과 매우 낮음은 각각 32명 (13.9%), 15명 (6.5%)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20.4%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5점 척도로 나타내면 3.49로 대학 운영에 대한 기여도 항목 중에서는 가장 낮고, 전체 설문 항목들과 비교하면 중간 정도이다. 단과대학 발전의 기여에 대한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 발전에 대한 기여가 높은 평가를 받는 것과 대조된다.

<표 3-7> 단과대학 발전에 기여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높음	55	23.8%
높음	65	28.1%
보통	64	27.7%
낮음	32	13.9%
매우 낮음	15	6.5%
합계	231	100%
평균	3.49	

<그림 3-6> 단과대학 발전에 기여



<표 3-8> '단과대학 발전에 기여'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

단과대학	빈도 (비율)					빈도 합계	평균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인문대학	5 (23.8%)	3 (14.3%)	7 (33.3%)	2 (9.5%)	4 (19.0%)	21	2.86
사회과학대학	3 (15.8%)	1 (5.3%)	2 (10.5%)	6 (31.6%)	7 (36.8%)	19	3.68
자연과학대학	3 (14.3%)	7 (33.3%)	6 (28.6%)	1 (4.8%)	4 (19.0%)	21	2.81
생명과학대학	1 (3.4%)	4 (13.8%)	10 (34.5%)	8 (27.6%)	6 (20.7%)	29	3.48
공과대학	1 (5.0%)	3 (15.0%)	10 (50.0%)	5 (25.0%)	1 (5.0%)	20	3.10
예술체육대학	1 (5.0%)	3 (15.0%)	5 (25.0%)	7 (35.0%)	4 (20.0%)	20	3.50
치과대학	0 (0.0%)	0 (0.0%)	2 (5.9%)	16 (47.1%)	16 (47.1%)	34	4.41
보건복지대학	1 (4.8%)	5 (23.8%)	4 (19.0%)	7 (33.3%)	4 (19.0%)	21	3.38
과학기술대학	0 (0.0%)	5 (18.5%)	11 (40.7%)	8 (29.6%)	3 (11.1%)	27	3.33

단과대학별로 보면 치과대학이 5점 척도에서 각각 4.41로 가장 높고 사회과학대학이 3.68로 그 다음이며, 두 단과대학의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반면 자연과학대학이 2.81, 인문대학이 2.8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공과대학, 보건복지대학과 과학기술대학도 각각 3.10, 3.38, 3.33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단과대학간의 편차가 크며, 이는 단과

대학별로 발전에 대한 기여도 차이를 크게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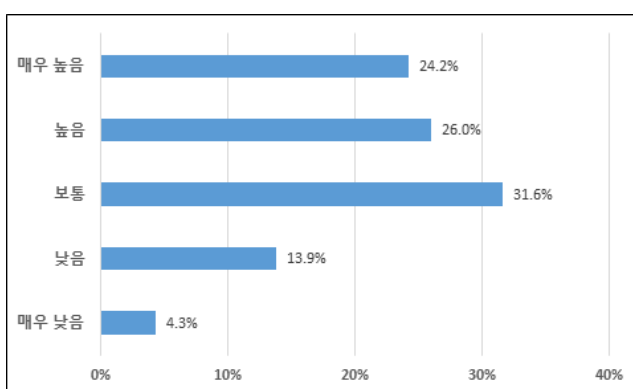
3) 교수역량 향상에 기여

총장의 교수역량 향상에 기여는 높음과 매우 높음이 각각 60명 (26.0%), 56명 (24.2%)로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보통은 73명 (31.6%), 낮음과 매우 낮음은 각각 32명 (13.9%), 10명 (4.3%)로 나타났다. 이를 5점 척도로 나타내면 3.52로 전체 설문 항목들과 비교할 때 평균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다.

<표 3-9> 교수역량 향상에 기여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높음	56	24.2%
높음	60	26.0%
보통	73	31.6%
낮음	32	13.9%
매우 낮음	10	4.3%
합계	231	100%
평균	3.52	

<그림 3-7> 교수역량 향상에 기여



단과대학별로 보면 치과대학이 5점 척도에서 4.26으로 가장 높고 사회과학대학이 그 다음으로 3.63이다. 반면 자연과학대학이 2.95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공과대학으로 3.1, 인문대학이 3.14의 순이다.

<표 3-10> '교수역량 향상에 기여'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

단과대학	빈도 (비율)					빈도 합계	평균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인문대학	3 (14.3%)	2 (9.5%)	8 (38.1%)	5 (23.8%)	3 (14.3%)	21	3.14
사회과학대학	3 (15.8%)	2 (10.5%)	1 (5.3%)	6 (31.6%)	7 (36.8%)	19	3.63
자연과학대학	2 (9.5%)	4 (19.0%)	11 (52.4%)	1 (4.8%)	3 (14.3%)	21	2.95
생명과학대학	0 (0.0%)	6 (20.7%)	10 (34.5%)	8 (27.6%)	5 (17.2%)	29	3.41
공과대학	0 (0.0%)	5 (25.0%)	9 (45.0%)	5 (25.0%)	1 (5.0%)	20	3.10
예술체육대학	1 (5.0%)	2 (10.0%)	6 (30.0%)	7 (35.0%)	4 (20.0%)	20	3.55
치과대학	0 (0.0%)	1 (2.9%)	5 (14.7%)	12 (35.3%)	16 (47.1%)	34	4.26
보건복지대학	1 (4.8%)	4 (19.0%)	5 (23.8%)	6 (28.6%)	5 (23.8%)	21	3.48
과학기술대학	0 (0.0%)	6 (22.2%)	11 (40.7%)	5 (18.5%)	5 (18.5%)	27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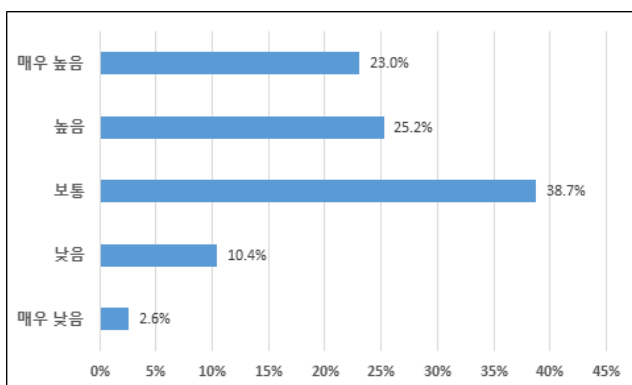
4) 직원역량 향상에 기여

총장의 직원역량 향상에 기여는 높음과 매우 높음이 각각 58명 (25.2%), 53명 (23.0%)로 절반 가까이(48.2%)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보통은 89명 (38.7%)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며 다른 항목에 비해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다. 이를 5점 척도로 나타내면 3.56으로 직원역량 향상에 대한 기여는 평균 정도이다.

<표 3-11> 직원역량 향상에 기여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높음	53	23.0%
높음	58	25.2%
보통	89	38.7%
낮음	24	10.4%
매우 낮음	6	2.6%
합계	230	100%
평균	3.56	

<그림 3-8> 직원역량 향상에 기여



단과대학별로 보면 치과대학이 5점 척도에서 4.15로 가장 높고 자연과학대학이 3.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개 단과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단과대학이 3점대에 분포하며, 따라서 직원역량 향상에 기여에 대해서는 단과대학간의 편차가 작은 편이다.

<표 3-12> '직원역량 향상에 기여'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

단과대학	빈도 (비율)					빈도 합계	평균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인문대학	2 (9.5%)	3 (14.3%)	10 (47.6%)	2 (9.5%)	4 (19.0%)	21	3.14
사회과학대학	2 (10.5%)	2 (10.5%)	3 (15.8%)	5 (26.3%)	7 (36.8%)	19	3.68
자연과학대학	0 (0.0%)	4 (20.0%)	14 (70.0%)	0 (0.0%)	2 (10.0%)	20	3.00
생명과학대학	0 (0.0%)	4 (13.8%)	13 (44.8%)	7 (24.1%)	5 (17.2%)	29	3.45
공과대학	0 (0.0%)	2 (10.0%)	11 (55.0%)	6 (30.0%)	1 (5.0%)	20	3.30
예술체육대학	1 (5.0%)	1 (5.0%)	5 (25.0%)	9 (45.0%)	4 (20.0%)	20	3.70
치과대학	0 (0.0%)	1 (2.9%)	7 (20.6%)	12 (35.3%)	14 (41.2%)	34	4.15
보건복지대학	1 (4.8%)	2 (9.5%)	6 (28.6%)	7 (33.3%)	5 (23.8%)	21	3.62
과학기술대학	0 (0.0%)	5 (18.5%)	12 (44.4%)	6 (22.2%)	4 (14.8%)	27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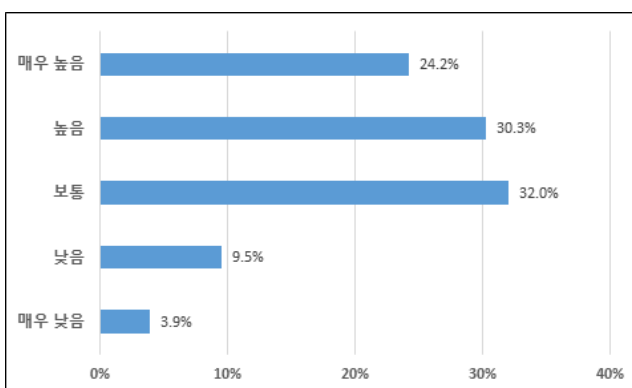
5) 학생역량 향상에 기여

총장의 학생역량 향상에 기여는 높음과 매우 높음이 각각 70명 (30.3%), 56명 (24.2%)로 절반 이상(54.5%)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낮음과 매우 낮음은 각각 22명 (9.5%), 9명 (3.9%)로 부정적인 평가는 13.4%로 낮게 나타났다. 이를 5점 척도로 나타내면 3.61로써 학생역량 향상에 대한 기여는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학생역량 향상에 대한 기여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각종 재정지원사업 수주 등에 따른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활동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보인다.

<표 3-13> 학생역량 향상에 기여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높음	56	24.2%
높음	70	30.3%
보통	74	32.0%
낮음	22	9.5%
매우 낮음	9	3.9%
합계	231	100%
평균	3.61	

<그림 3-9> 학생역량 향상에 기여



단과대학별로 보면 치과대학이 5점 척도에서 4.24로 가장 높고 인문대학이 3.14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작은 편이며, 대부분의 단과대학이 3점대에 분포한다. 따라서 단과대학간의 편차가 작은 편이며,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14> '학생역량 향상에 기여'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

단과대학	빈도 (비율)					빈도 합계	평균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인문대학	3 (14.3%)	2 (9.5%)	9 (42.9%)	3 (14.3%)	4 (19.0%)	21	3.14
사회과학대학	2 (10.5%)	3 (15.8%)	2 (10.5%)	5 (26.3%)	7 (36.8%)	19	3.63
자연과학대학	1 (4.8%)	3 (14.3%)	10 (47.6%)	4 (19.0%)	3 (14.3%)	21	3.24
생명과학대학	1 (3.4%)	4 (13.8%)	12 (41.4%)	6 (20.7%)	6 (20.7%)	29	3.41
공과대학	0 (0.0%)	2 (10.0%)	10 (50.0%)	6 (30.0%)	2 (10.0%)	20	3.40
예술체육대학	1 (5.0%)	1 (5.0%)	4 (20.0%)	10 (50.0%)	4 (20.0%)	20	3.75
치과대학	0 (0.0%)	1 (2.9%)	6 (17.6%)	11 (32.4%)	16 (47.1%)	34	4.24
보건복지대학	1 (4.8%)	2 (9.5%)	5 (23.8%)	8 (38.1%)	5 (23.8%)	21	3.67
과학기술대학	0 (0.0%)	4 (14.8%)	9 (33.3%)	10 (37.0%)	4 (14.8%)	27	3.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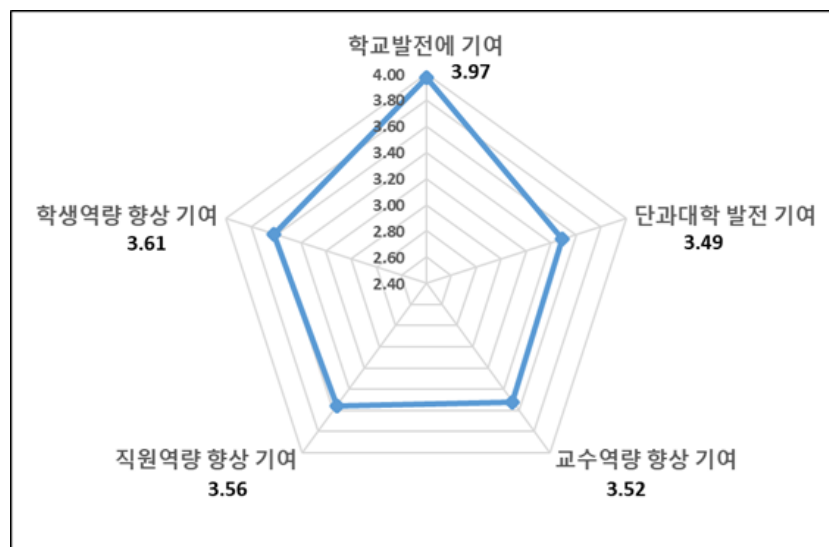
6) 종합

대학 운영에 대한 기여에서는 학교발전에 기여, 단과대학 발전에 기여, 교수역량 향상에 기여, 직원역량 향상에 기여, 학생역량 향상에 기여의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이들 5개 항목의 평균은 3.63이다. 전체 평균 3.59 보다 높게 평가받는 대항목이다.

다섯 가지 항목 중 학교발전에 기여가 3.97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그 다음이 학생역량 향상에 기여가 3.61로 높게 나왔다. 나머지 3개 항목인 직원역량 향상에 기여가 3.56, 교수역량 향상에 기여가 3.52, 단과대학 발전에 기여가 3.49로 나왔다. 이와 같은 결과는 3대 총장 중간평가의 대학 운영에 대한 기여와 비교하면 5개 모든 항목이 평가점수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따라서 학교발전에서부터 학생역량 향상에 이르기까지 대학 운영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인다.

평가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치과대학은 대학 운영에 대한 기여의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인문대학과 자연과학대학이 대체로 평가점수가 낮은 편이었다. 단과대학 발전에 기여와 같이 평가결과가 낮게 나온 경우에 단과대학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단과대학별로 대학 운영에 대한 기여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림 3-10> ‘대학운영에 대한 기여도’ 평가 종합



3. 지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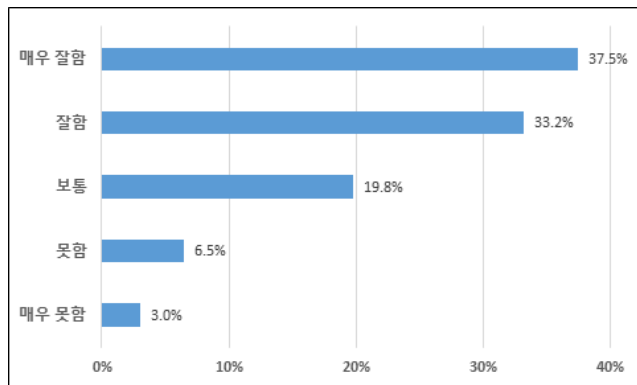
1) 대학발전전략 추진

대학의 최고경영자인 총장의 지도력 항목 중 대학발전전략 추진에 대해 응답자 중 보통이 46명(19.8%)으로 가장 많았으며, 잘함과 매우 잘함이 각각 77명(33.2%)과 87명(37.5%)으로 응답자의 70.7%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못함과 매우 못함은 각각 7명(3.0%)과 15명(6.5%)으로 부정적인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결과적으로 볼 때, 교수들이 총장의 대학발전전략 추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4년 전인 제3대 총장에 대한 중간평가 시 긍정적인 응답률 48.4%와 비교할 때 총장이 대학발전전략을 잘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표 3-15> 대학발전전략 추진

구분	빈도	비율
매우 잘함	87	37.5%
잘함	77	33.2%
보통	46	19.8%
못함	15	6.5%
매우 못함	7	3.0%
합계	232	100%
평균	3.96	

<그림 3-11> 대학발전전략 추진



‘대학발전전략 추진’에 대한 단과대별 비교에서는 치과대학이 긍정적인 평가가 가장 우세하게 나타났고, 다른 대학들도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지만, 자연대학이 부정적인 평가가 가장 우세하게 나타났다.

<표 3-16> ‘대학발전전략 추진’에 대한 단과대별 비교

단과대학	빈도 (비율)					빈도 합계	평균
	매우 못함	못함	보통	잘함	매우 잘함		
인문대학	1 (4.8%)	3 (14.3%)	5 (23.8%)	9 (42.9%)	3 (14.3%)	21	3.48
사회과학대학	2 (10.5%)	1 (5.3%)	3 (15.8%)	3 (15.8%)	10 (52.6%)	19	3.95
자연과학대학	2 (9.5%)	2 (9.5%)	6 (28.6%)	5 (23.8%)	6 (28.6%)	21	3.52
생명과학대학	0 (0.0%)	2 (6.9%)	7 (24.1%)	11 (37.9%)	9 (31.0%)	29	3.93
공과대학	1 (5.0%)	1 (5.0%)	6 (30.0%)	6 (30.0%)	6 (30.0%)	20	3.75
예술체육대학	1 (5.0%)	1 (5.0%)	4 (20.0%)	8 (40.0%)	6 (30.0%)	20	3.85
치과대학	0 (0.0%)	0 (0.0%)	1 (2.9%)	16 (47.1%)	17 (50.0%)	34	4.47
보건복지대학	0 (0.0%)	4 (19.0%)	2 (9.5%)	4 (19.0%)	11 (52.4%)	21	4.05
과학기술대학	0 (0.0%)	1 (3.6%)	8 (28.6%)	12 (42.9%)	7 (25.0%)	28	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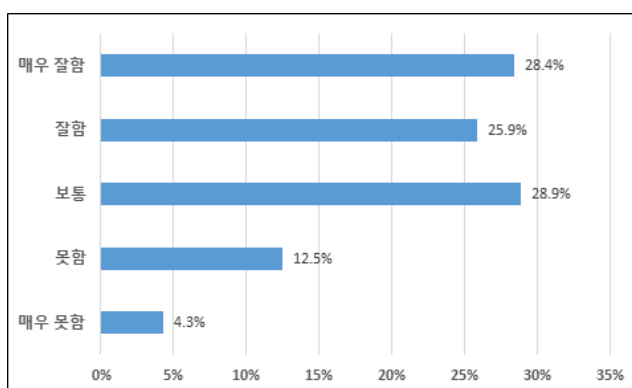
2) 대학구성원들 간의 화합

‘대학구성원들 간의 화합’에 대해 응답자 중 보통이 67명(28.9%)으로 가장 많았으나, 잘함과 매우 잘함이 각각 68명(25.9%), 66명(28.4%)로 응답자의 54.3%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못함과 매우 못함은 각각 10명(4.3%)과 29명(12.5%)으로 부정적인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결과적으로 볼 때, 교수들이 총장의 대학구성원들 간 화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제3대 총장에 대한 중간평가 시 긍정적인 응답률 40.8%와 비교할 때 총장이 대학구성원들 간 화합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표 3-17> 대학구성원들 간의 화합

구분	빈도	비율
매우 잘함	66	28.4%
잘함	60	25.9%
보통	67	28.9%
못함	29	12.5%
매우 못함	10	4.3%
합계	232	100%
평균	3.62	

<그림 3-12> 대학구성원들 간의 화합



‘대학구성원들 간의 화합’에 대한 단과대별 비교에서는 치과대학이 긍정적인 평가가 가장 우세하게 나타났고, 이어서 공과대학, 체육대학, 사회과학대학의 평가가 우세하지만, 자연과학대학, 보건복지대학, 인문대학이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하게 나타났다.

<표 3-18> ‘대학구성원들 간의 화합’에 대한 단과대별 비교

단과대학	빈도 (비율)					빈도 합계	평균
	매우 못함	못함	보통	잘함	매우 잘함		
인문대학	1 (4.8%)	5 (23.8%)	8 (38.1%)	5 (23.8%)	2 (9.5%)	21	3.10
사회과학대학	2 (10.5%)	3 (15.8%)	1 (5.3%)	7 (36.8%)	6 (31.6%)	19	3.63
자연과학대학	1 (4.8%)	6 (28.6%)	8 (38.1%)	3 (14.3%)	3 (14.3%)	21	3.05
생명과학대학	1 (3.4%)	4 (13.8%)	8 (27.6%)	9 (31.0%)	7 (24.1%)	29	3.59
공과대학	1 (5.0%)	1 (5.0%)	5 (25.0%)	8 (40.0%)	5 (25.0%)	20	3.75
예술체육대학	2 (10.0%)	3 (15.0%)	2 (10.0%)	9 (45.0%)	4 (20.0%)	20	3.50
치과대학	0 (0.0%)	0 (0.0%)	8 (23.5%)	10 (29.4%)	16 (47.1%)	34	4.24
보건복지대학	2 (9.5%)	5 (23.8%)	6 (28.6%)	2 (9.5%)	6 (28.6%)	21	3.24
과학기술대학	0 (0.0%)	0 (0.0%)	15 (53.6%)	5 (17.9%)	8 (28.6%)	28	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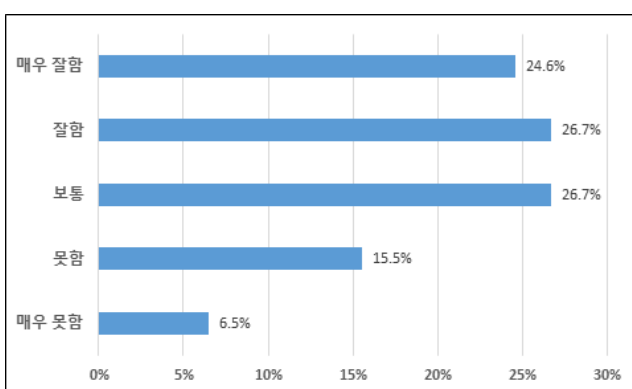
3) 주요보직자 인선의 적절성

‘주요보직자 인선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에서 응답자 중 보통이 62명(26.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못함과 매우 못함의 비율은 각각 15명(6.5%)과 36명(15.5%)으로 나타났고, 잘함과 매우 잘함은 각각 62명(26.7%)과 57명(24.6%)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는 22.0%인 반면에 긍정적인 평가는 51.3%로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볼 때, 주요보직자 인선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여 4년 전 부정적 평가에서 긍정적 평가로 반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3-19> 주요보직자 인선의 적절성

구분	빈도	비율
매우 잘함	57	24.6%
잘함	62	26.7%
보통	62	26.7%
못함	36	15.5%
매우 못함	15	6.5%
합계	232	100%
평균	3.47	

<그림 3-13> 주요보직자 인선의 적절성



‘주요보직자 인선의 적절성’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에서는 치과대학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외에 사회과학대학, 공과대학, 예술체육대학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반면에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등은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0> ‘주요보직자 인선의 적절성’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

단과대학	빈도 (비율)					빈도 합계	평균
	매우 못함	못함	보통	잘함	매우 잘함		
인문대학	3 (14.3%)	5 (23.8%)	8 (38.1%)	3 (14.3%)	2 (9.5%)	21	2.81
사회과학대학	4 (21.1%)	1 (5.3%)	1 (5.3%)	8 (42.1%)	5 (26.3%)	19	3.47
자연과학대학	2 (9.5%)	7 (33.3%)	6 (28.6%)	3 (14.3%)	3 (14.3%)	21	2.90
생명과학대학	2 (6.9%)	5 (17.2%)	11 (37.9%)	4 (13.8%)	7 (24.1%)	29	3.31
공과대학	0 (0.0%)	2 (10.0%)	7 (35.0%)	5 (25.0%)	6 (30.0%)	20	3.75
예술체육대학	2 (10.0%)	3 (15.0%)	4 (20.0%)	7 (35.0%)	4 (20.0%)	20	3.40
치과대학	0 (0.0%)	2 (5.9%)	5 (14.7%)	12 (35.3%)	15 (44.1%)	34	4.18
보건복지대학	2 (9.5%)	4 (19.0%)	6 (28.6%)	5 (23.8%)	4 (19.0%)	21	3.24
과학기술대학	0 (0.0%)	5 (17.9%)	10 (35.7%)	8 (28.6%)	5 (17.9%)	28	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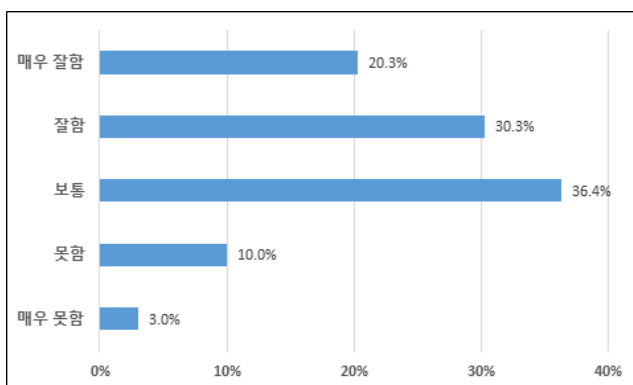
4) 직원 인사배치의 적절성

‘직원 인사배치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보통이 84명(36.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우 못함과 못함이 각각 7명(3%)과 23명(10.0%)로 나타났으며 잘함과 매우 잘함은 70명(30.3%)과 47명(20.3%)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직원 인사배치를 적절하게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 직원 인사배치의 적절성

구분	빈도	비율
매우 잘함	47	20.3%
잘함	70	30.3%
보통	84	36.4%
못함	23	10.0%
매우 못함	7	3.0%
합계	231	100%
평균	3.55	

<그림 3-14> 직원 인사배치의 적절성



‘직원 인사배치의 적절성’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에서는 치과대학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외에 사회과학대학, 보건복지대학, 과학기술대학, 공과대학, 예술체육대학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반면에 인문대학은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2> ‘직원 인사배치의 적절성’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

단과대학	빈도 (비율)					빈도 합계	평균
	매우 못함	못함	보통	잘함	매우 잘함		
인문대학	1 (4.8%)	5 (23.8%)	8 (38.1%)	5 (23.8%)	2 (9.5%)	21	3.10
사회과학대학	2 (10.5%)	2 (10.5%)	2 (10.5%)	7 (36.8%)	6 (31.6%)	19	3.68
자연과학대학	1 (5.0%)	2 (10.0%)	10 (50.0%)	4 (20.0%)	3 (15.0%)	20	3.30
생명과학대학	1 (3.4%)	5 (17.2%)	13 (44.8%)	4 (13.8%)	6 (20.7%)	29	3.31
공과대학	0 (0.0%)	2 (10.0%)	8 (40.0%)	9 (45.0%)	1 (5.0%)	20	3.45
예술체육대학	1 (5.0%)	2 (10.0%)	7 (35.0%)	6 (30.0%)	4 (20.0%)	20	3.50
치과대학	0 (0.0%)	0 (0.0%)	8 (23.5%)	13 (38.2%)	13 (38.2%)	34	4.15
보건복지대학	1 (4.8%)	2 (9.5%)	8 (38.1%)	5 (23.8%)	5 (23.8%)	21	3.52
과학기술대학	0 (0.0%)	2 (7.1%)	13 (46.4%)	10 (35.7%)	3 (10.7%)	28	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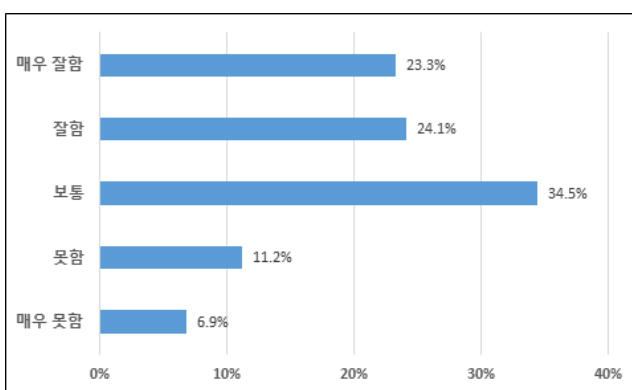
5) 교수의견의 정책반영

‘교수의견의 정책반영’ 항목에서는 보통이 80명(34.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매우 못함과 못함의 부정적인 평가가 각각 16명(6.9%)과 26명(11.2%)으로 나타났으며, 잘함과 매우 잘함의 긍정적 평가는 각각 56명(24.1%)과 54명(23.3%)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교수들의 의견을 정책에 잘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표 3-23> 교수의견의 정책반영

구분	빈도	비율
매우 잘함	54	23.3%
잘함	56	24.1%
보통	80	34.5%
못함	26	11.2%
매우 못함	16	6.9%
합계	232	100%
평균	3.46	

<그림 3-15> 교수의견의 정책반영



‘교수의견의 정책반영’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에서는 치과대학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외에 과학기술대학, 사회과학대학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반면에 인문대학은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 ‘교수의견의 정책반영’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

단과대학	빈도 (비율)					빈도 합계	평균
	매우 못함	못함	보통	잘함	매우 잘함		
인문대학	3 (14.3%)	5 (23.8%)	7 (33.3%)	4 (19.0%)	2 (9.5%)	21	2.86
사회과학대학	2 (10.5%)	3 (15.8%)	2 (10.5%)	5 (26.3%)	7 (36.8%)	19	3.63
자연과학대학	3 (14.3%)	2 (9.5%)	10 (47.6%)	3 (14.3%)	3 (14.3%)	21	3.05
생명과학대학	2 (6.9%)	3 (10.3%)	12 (41.4%)	9 (31.0%)	3 (10.3%)	29	3.28
공과대학	2 (10.0%)	0 (0.0%)	12 (60.0%)	3 (15.0%)	3 (15.0%)	20	3.25
예술체육대학	2 (10.0%)	1 (5.0%)	7 (35.0%)	7 (35.0%)	3 (15.0%)	20	3.40
치과대학	0 (0.0%)	2 (5.9%)	5 (14.7%)	11 (32.4%)	16 (47.1%)	34	4.21
보건복지대학	2 (9.5%)	3 (14.3%)	7 (33.3%)	3 (14.3%)	6 (28.6%)	21	3.38
과학기술대학	0 (0.0%)	4 (14.3%)	12 (42.9%)	7 (25.0%)	5 (17.9%)	28	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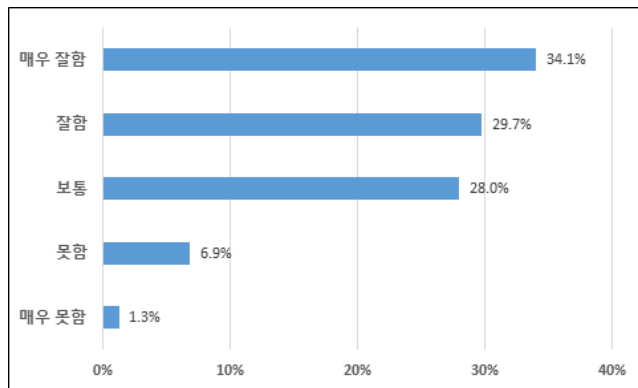
6)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교류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및 교류’ 항목에서는 잘함과 매우 잘함의 긍정적 평가가 각각 69명(29.7%), 79명(34.1%)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못함과 매우 못함의 부정적 평가는 각각 3명(1.3%)과 16명(6.9%)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및 교류를 잘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표 3-25>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교류

구분	빈도	비율
매우 잘함	79	34.1%
잘함	69	29.7%
보통	65	28.0%
못함	16	6.9%
매우 못함	3	1.3%
합계	232	100%
평균	3.88	

<그림 3-16>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교류



‘지역사회 상생협력 및 교류’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에서는 치과대학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과학대학, 예술체육대학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보건복지대학과 과학기술대학이 중간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으며 그 외에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6> ‘지역사회 상생협력·교류’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

단과대학	빈도 (비율)					빈도 합계	평균
	매우 못함	못함	보통	잘함	매우 잘함		
인문대학	0 (0.0%)	3 (14.3%)	8 (38.1%)	5 (23.8%)	5 (23.8%)	21	3.57
사회과학대학	2 (10.5%)	2 (10.5%)	1 (5.3%)	4 (21.1%)	10 (52.6%)	19	3.95
자연과학대학	0 (0.0%)	2 (9.5%)	9 (42.9%)	6 (28.6%)	4 (19.0%)	21	3.57
생명과학대학	0 (0.0%)	2 (6.9%)	10 (34.5%)	10 (34.5%)	7 (24.1%)	29	3.76
공과대학	0 (0.0%)	1 (5.0%)	7 (35.0%)	7 (35.0%)	5 (25.0%)	20	3.80
예술체육대학	1 (5.0%)	0 (0.0%)	5 (25.0%)	9 (45.0%)	5 (25.0%)	20	3.85
치과대학	0 (0.0%)	0 (0.0%)	4 (11.8%)	13 (38.2%)	17 (50.0%)	34	4.38
보건복지대학	0 (0.0%)	3 (14.3%)	6 (28.6%)	5 (23.8%)	7 (33.3%)	21	3.76
과학기술대학	0 (0.0%)	3 (10.7%)	11 (39.3%)	5 (17.9%)	9 (32.1%)	28	3.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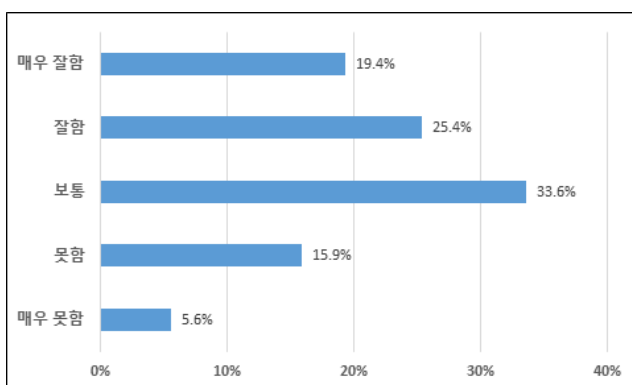
7) 국제적 마인드 함양 강화

‘국제적 마인드 함양 강화’ 항목에서는 보통이 78명(3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우 못함과 못함이 각각 13명(5.6%)과 37명(15.9%)으로 나타났으며, 잘함과 매우 잘함이 각각 59명(25.4%)과 45명(19.4%)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국제적 마인드 함양 강화 항목에서는 긍정적인 평가(잘함과 매우 잘함)가 44.8%로 부정적인 평가(매우 못함과 못함) 21.5%에 비해 우세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평균 점수가 3.37점으로 11개 평가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로 국제적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지도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표 3-27> 국제적 마인드 함양 강화

구분	빈도	비율
매우 잘함	45	19.4%
잘함	59	25.4%
보통	78	33.6%
못함	37	15.9%
매우 못함	13	5.6%
합계	232	100%
평균	3.37	

<그림 3-17> 국제적 마인드 함양 강화



‘국제적 마인드 함양 강화’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에서는 치과대학이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에 공과대학을 비롯한 기타 단과대학 모두 평균 만족도(3.59)를 하회하는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표 3-28> ‘국제적 마인드 함양 강화’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

단과대학	빈도 (비율)					빈도 합계	평균
	매우 못함	못함	보통	잘함	매우 잘함		
인문대학	1 (4.8%)	6 (28.6%)	6 (28.6%)	6 (28.6%)	2 (9.5%)	21	3.10
사회과학대학	3 (15.8%)	3 (15.8%)	2 (10.5%)	6 (31.6%)	5 (26.3%)	19	3.37
자연과학대학	1 (4.8%)	5 (23.8%)	8 (38.1%)	4 (19.0%)	3 (14.3%)	21	3.14
생명과학대학	2 (6.9%)	4 (13.8%)	15 (51.7%)	4 (13.8%)	4 (13.8%)	29	3.14
공과대학	2 (10.0%)	4 (20.0%)	8 (40.0%)	6 (30.0%)	0 (0.0%)	20	2.90
예술체육대학	2 (10.0%)	3 (15.0%)	7 (35.0%)	5 (25.0%)	3 (15.0%)	20	3.20
치과대학	0 (0.0%)	1 (2.9%)	10 (29.4%)	10 (29.4%)	13 (38.2%)	34	4.03
보건복지대학	2 (9.5%)	4 (19.0%)	5 (23.8%)	5 (23.8%)	5 (23.8%)	21	3.33
과학기술대학	0 (0.0%)	5 (17.9%)	12 (42.9%)	7 (25.0%)	4 (14.3%)	28	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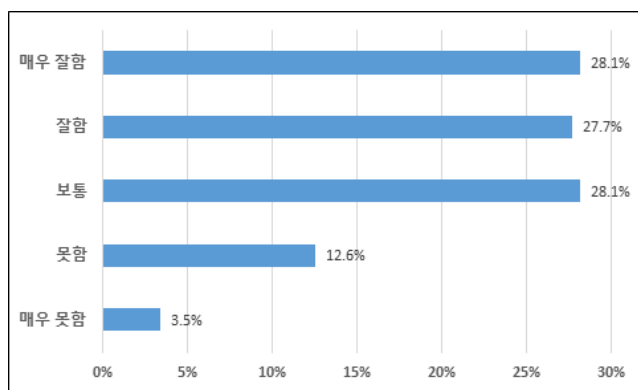
8) 대학행정의 투명성

‘대학행정의 투명성’ 항목에서는 보통이 65명(28.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우 못함과 못함이 각각 8명(3.5%)과 29명(12.6%)으로 나타났으며, 잘함과 매우 잘함이 각각 64명(27.7%)과 65명(28.1%)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대학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항목에서는 긍정적인 평가(잘함과 매우 잘함)가 55.8%로 부정적인 평가(매우 못함과 못함) 16.1%에 비해 우세하게 나타났다.

<표 3-29> 대학행정의 투명성

구분	빈도	비율
매우 잘함	65	28.1%
잘함	64	27.7%
보통	65	28.1%
못함	29	12.6%
매우 못함	8	3.5%
합계	231	100%
평균	3.65	

<그림 3-18> 대학행정의 투명성



‘대학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에서는 치과대학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과학기술대학, 사회과학대학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한편, 인문대학은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0> ‘대학행정의 투명성 지도력’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

단과대학	빈도 (비율)					빈도 합계	평균
	매우 못함	못함	보통	잘함	매우 잘함		
인문대학	1 (4.8%)	8 (38.1%)	6 (28.6%)	4 (19.0%)	2 (9.5%)	21	2.90
사회과학대학	3 (15.8%)	1 (5.3%)	3 (15.8%)	5 (26.3%)	7 (36.8%)	19	3.63
자연과학대학	1 (4.8%)	2 (9.5%)	10 (47.6%)	2 (9.5%)	6 (28.6%)	21	3.48
생명과학대학	0 (0.0%)	5 (17.2%)	8 (27.6%)	11 (37.9%)	5 (17.2%)	29	3.55
공과대학	0 (0.0%)	3 (15.0%)	8 (40.0%)	7 (35.0%)	2 (10.0%)	20	3.40
예술체육대학	2 (10.5%)	1 (5.3%)	5 (26.3%)	7 (36.8%)	4 (21.1%)	19	3.53
치과대학	0 (0.0%)	0 (0.0%)	5 (14.7%)	13 (38.2%)	16 (47.1%)	34	4.32
보건복지대학	1 (4.8%)	4 (19.0%)	6 (28.6%)	3 (14.3%)	7 (33.3%)	21	3.52
과학기술대학	0 (0.0%)	3 (10.7%)	9 (32.1%)	8 (28.6%)	8 (28.6%)	28	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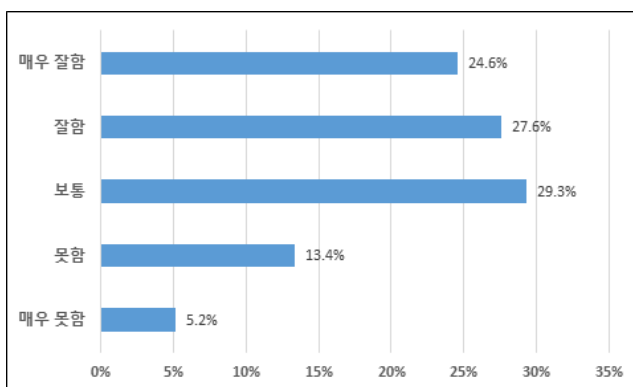
9) 대학행정의 민주성

‘대학행정의 민주성’ 항목에서는 보통이 68명(2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매우 못함과 못함은 각각 12명(5.2%)과 31명(13.4%)으로 나타났고, 잘함과 매우 잘함은 각각 64명(27.6%)과 57명(24.6%)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대학행정의 민주성 항목에서는 긍정적인 평가(잘함과 매우 잘함)가 52.0%로 부정적인 평가(못함과 매우 못함) 18.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1> 대학행정의 민주성

구분	빈도	비율
매우 잘함	57	24.6%
잘함	64	27.6%
보통	68	29.3%
못함	31	13.4%
매우 못함	12	5.2%
합계	232	100%
평균	3.53	

<그림 3-19> 대학행정의 민주성



‘대학행정의 민주성’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에서는 치과대학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며, 이 외에도 과학기술대학, 사회과학대학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문대학은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2> ‘대학행정의 민주성’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

단과대학	빈도 (비율)					빈도 합계	평균
	매우 못함	못함	보통	잘함	매우 잘함		
인문대학	2 (9.5%)	7 (33.3%)	6 (28.6%)	5 (23.8%)	1 (4.8%)	21	2.81
사회과학대학	4 (21.1%)	2 (10.5%)	1 (5.3%)	5 (26.3%)	7 (36.8%)	19	3.47
자연과학대학	1 (4.8%)	4 (19.0%)	8 (38.1%)	3 (14.3%)	5 (23.8%)	21	3.33
생명과학대학	2 (6.9%)	3 (10.3%)	11 (37.9%)	9 (31.0%)	4 (13.8%)	29	3.34
공과대학	0 (0.0%)	2 (10.0%)	8 (40.0%)	7 (35.0%)	3 (15.0%)	20	3.55
예술체육대학	3 (15.0%)	1 (5.0%)	4 (20.0%)	9 (45.0%)	3 (15.0%)	20	3.40
치과대학	0 (0.0%)	0 (0.0%)	6 (17.6%)	13 (38.2%)	15 (44.1%)	34	4.26
보건복지대학	0 (0.0%)	6 (28.6%)	8 (38.1%)	1 (4.8%)	6 (28.6%)	21	3.33
과학기술대학	0 (0.0%)	4 (14.3%)	11 (39.3%)	7 (25.0%)	6 (21.4%)	28	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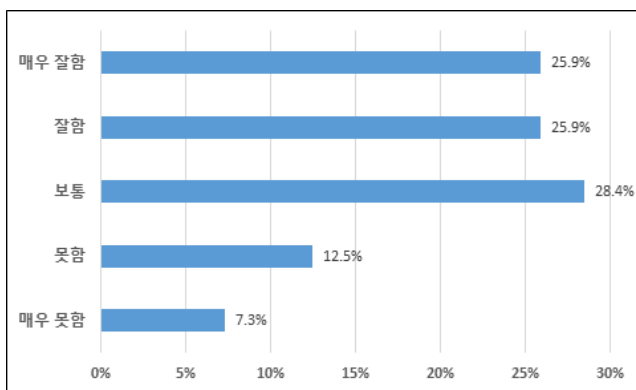
10) 단과대학의 자율성

‘단과대학의 자율성’ 항목에서는 보통이 66명(28.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매우 못함과 못함이 각각 17명(7.3%)과 29명(12.5%)으로 나타났고, 잘함과 매우 잘함이 각각 60명(25.9%)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단과대학의 자율성 항목에서는 긍정적인 평가(잘함과 매우 잘함)가 51.8%로 부정적인 평가(못함과 매우 못함) 19.8% 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3> 단과대학의 자율성

구분	빈도	비율
매우 잘함	60	25.9%
잘함	60	25.9%
보통	66	28.4%
못함	29	12.5%
매우 못함	17	7.3%
합계	232	100%
평균	3.50	

<그림 3-20> 단과대학의 자율성



‘단과대학의 자율성’ 항목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에서는 치과대학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외에 사회과학대학, 과학기술대학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문대학은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4> ‘단과대학 자율성’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

단과대학	빈도 (비율)					빈도 합계	평균
	매우 못함	못함	보통	잘함	매우 잘함		
인문대학	4 (19.0%)	6 (28.6%)	5 (23.8%)	5 (23.8%)	1 (4.8%)	21	2.67
사회과학대학	2 (10.5%)	2 (10.5%)	3 (15.8%)	5 (26.3%)	7 (36.8%)	19	3.68
자연과학대학	2 (9.5%)	6 (28.6%)	8 (38.1%)	2 (9.5%)	3 (14.3%)	21	2.90
생명과학대학	3 (10.3%)	1 (3.4%)	14 (48.3%)	6 (20.7%)	5 (17.2%)	29	3.31
공과대학	2 (10.0%)	1 (5.0%)	6 (30.0%)	5 (25.0%)	6 (30.0%)	20	3.60
예술체육대학	2 (10.0%)	2 (10.0%)	4 (20.0%)	9 (45.0%)	3 (15.0%)	20	3.45
치과대학	0 (0.0%)	1 (2.9%)	5 (14.7%)	11 (32.4%)	17 (50.0%)	34	4.29
보건복지대학	2 (9.5%)	5 (23.8%)	5 (23.8%)	3 (14.3%)	6 (28.6%)	21	3.29
과학기술대학	0 (0.0%)	4 (14.3%)	11 (39.3%)	7 (25.0%)	6 (21.4%)	28	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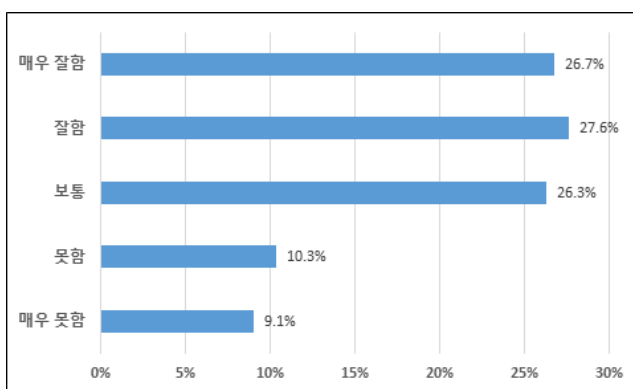
11) 단과대학장 인선의 적절성

‘단과대학장 인선의 적절성’에서는 보통이 61명(2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매우 못함과 못함이 각각 21명(9.1%)과 24명(10.3%)으로 나타났고, 잘함과 매우 잘함이 각각 64명(27.6%)과 62명(26.7%)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단과대학장 인선의 적절성은 긍정적 평가(잘함과 매우 잘함)가 54.3%로 부정적 평가(매우 못함과 못함) 19.4%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5> 단과대학장 인선의 적절성

구분	빈도	비율
매우 잘함	62	26.7%
잘함	64	27.6%
보통	61	26.3%
못함	24	10.3%
매우 못함	21	9.1%
합계	232	100%
평균	3.53	

<그림 3-21> 단과대학장 인선의 적절성



‘단과대학장 인선의 적절성’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에서는 사회과학대학과 치과대학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과학기술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한편, 인문대학은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6> ‘단과대학장 인선의 적절성’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

단과대학	빈도 (비율)					빈도 합계	평균
	매우 못함	못함	보통	잘함	매우 잘함		
인문대학	5 (23.8%)	6 (28.6%)	4 (19.0%)	3 (14.3%)	3 (14.3%)	21	2.67
사회과학대학	2 (10.5%)	0 (0.0%)	4 (21.1%)	6 (31.6%)	7 (36.8%)	19	3.84
자연과학대학	4 (19.0%)	4 (19.0%)	6 (28.6%)	4 (19.0%)	3 (14.3%)	21	2.90
생명과학대학	2 (6.9%)	2 (6.9%)	13 (44.8%)	6 (20.7%)	6 (20.7%)	29	3.41
공과대학	1 (5.0%)	0 (0.0%)	7 (35.0%)	5 (25.0%)	7 (35.0%)	20	3.85
예술체육대학	3 (15.0%)	1 (5.0%)	5 (25.0%)	8 (40.0%)	3 (15.0%)	20	3.35
치과대학	0 (0.0%)	0 (0.0%)	4 (11.8%)	14 (41.2%)	16 (47.1%)	34	4.35
보건복지대학	4 (19.0%)	4 (19.0%)	5 (23.8%)	2 (9.5%)	6 (28.6%)	21	3.10
과학기술대학	0 (0.0%)	7 (25.0%)	7 (25.0%)	10 (35.7%)	4 (14.3%)	28	3.39

12)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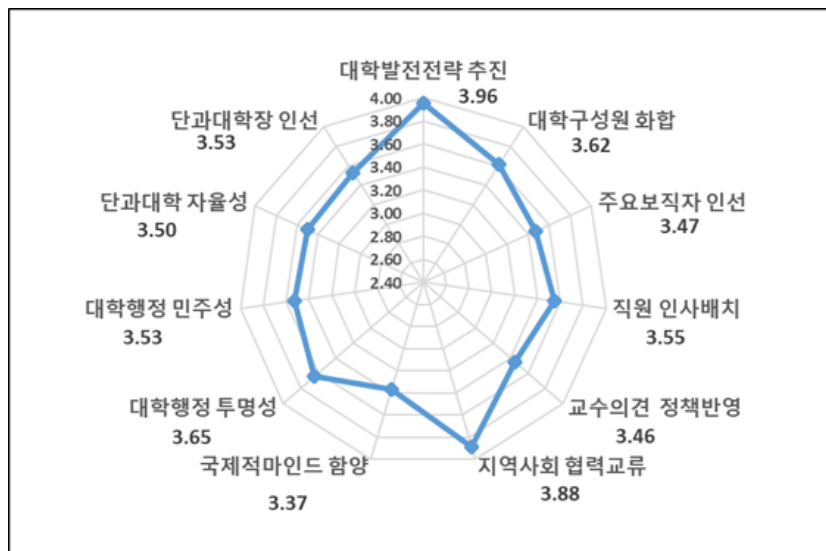
제4대 총장의 지도력에 대한 평가항목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제3대 총장 평가항목에 ‘국제적 마인드 함양 강화’ 항목이 추가되어 총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항목별로는 3.37점에서 3.96점 사이이며, 11개 항목 평균 3.59로 전체 모든 항목 평균과 일치한다.

평가항목 중 대학발전전략 추진(3.96점)과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및 교류(3.88점)는 다른 항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국제적 마인드 함양 강화와 교수의견의 정책반영은 각각 3.37점과 3.46점으로 평가를 받아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도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4년 전인 제3대 총장 중간평가 시에는 총 10개의 평가항목 중 주요보직자 인선(2.93점)과 단과대학장 인선의 적절성(2.81점)에 대하여 중간 수준인 3점 이하의 평가를 받았으나, 아래의 <그림 3-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번 평가에서는 각각 3.47점과 3.53점을 받아 보직자 인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지도력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대학의 재정지원은 물론 대학 존립과 직결되는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를 위한 ‘대학발전전략의 추진’과 정부의 정책기조인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및 교류 사업’을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수렴과 참여보다 대학본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모양이 원형에 가까웠지만 제3대와 달리 제4대 총장 중간평가에서는 방사형의 모양이 특정 항목 중심으로 모가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총장의 지도력이 매우 편향적으로 발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3-22> ‘지도력’ 평가 종합



4. 구성원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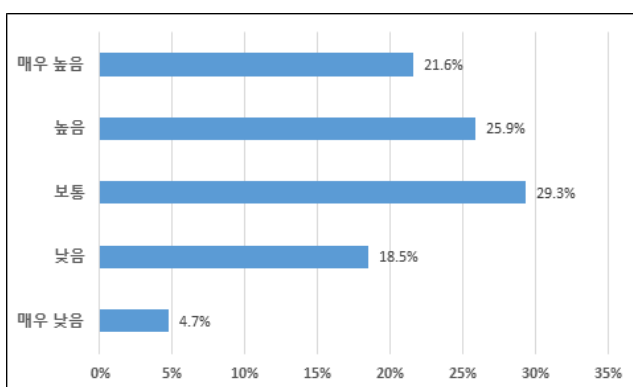
1) 교직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개선

교직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개선에 대해서는 보통이 68명(29.3%)으로 가장 많았으며, 낮음과 매우 낮음은 각각 43명(18.5%), 11명(4.7%)으로 23.2%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높음과 매우 높음은 각각 60명(25.9%), 50명(21.6%)으로 47.5%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었다. 이를 총점 5점으로 환산할 경우, 교직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개선에 관한 5점 척도 평균 점수는 3.4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장 공약사항에 제시되어 있는대로 교육·연구·학생지도비가 증액되고, 연구실 환경 개선 등이 이행되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표 3-37> 교직원 교연비 개선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높음	50	21.6%
높음	60	25.9%
보통	68	29.3%
낮음	43	18.5%
매우 낮음	11	4.7%
합계	232	100%
평균	3.41	

<그림 3-23> 교직원 교연비 개선



<표 3-38> '교직원 교연비 개선'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

단과대학	빈도 (비율)					빈도 합계	평균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인문대학	2 (9.5%)	6 (28.6%)	7 (33.3%)	2 (9.5%)	4 (19.0%)	21	3.00
사회과학대학	2 (10.5%)	2 (10.5%)	3 (15.8%)	5 (26.3%)	7 (36.8%)	19	3.68
자연과학대학	2 (9.5%)	5 (23.8%)	9 (42.9%)	3 (14.3%)	2 (9.5%)	21	2.90
생명과학대학	1 (3.4%)	5 (17.2%)	8 (27.6%)	13 (44.8%)	2 (6.9%)	29	3.34
공과대학	0 (0.0%)	4 (20.0%)	9 (45.0%)	4 (20.0%)	3 (15.0%)	20	3.30
예술체육대학	1 (5.0%)	4 (20.0%)	6 (30.0%)	5 (25.0%)	4 (20.0%)	20	3.35
치과대학	1 (2.9%)	3 (8.8%)	9 (26.5%)	11 (32.4%)	10 (29.4%)	34	3.76
보건복지대학	2 (9.5%)	3 (14.3%)	5 (23.8%)	4 (19.0%)	7 (33.3%)	21	3.52
과학기술대학	0 (0.0%)	8 (28.6%)	10 (35.7%)	6 (21.4%)	4 (14.3%)	28	3.21

단과대학별 교직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개선에 대한 평가는 높음과 매우 높음에 대한 비율은 사회과학대학(63.2%), 치과대학(61.8%) 순으로 높았으며, 낮음과 매우 낮음에 대한 비율은 인문대학(38.1%), 자연과학대학(33.3%), 과학기술대학(28.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교직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개선에 대한 평가는 5점 척도 평균 점수로 치과대

학 외(3.76점)로 가장 높았으며, 자연과학대학(2.9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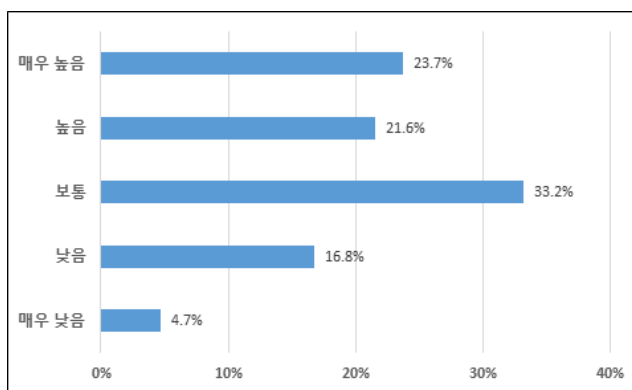
2) 교직원 복지시설 확충

교직원 복지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보통이 77명(33.2%)으로 가장 많았으며, 낮음과 매우 낮음은 각각 39명(16.8%), 11명(4.7%)으로 21.5%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높음과 매우 높음은 각각 50명(21.6%), 55명(23.7%)으로 45.3%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었다. 이를 총점 5점으로 환산할 경우, 교직원 복지시설 확충에 관한 5점 척도 평균 점수는 3.4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장 공약사항에 제시되어 있는대로 연구 환경 개선, 명예 교수실 추가 구축 등이 이행되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표 3-39> 교직원 복지시설 확충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높음	55	23.7%
높음	50	21.6%
보통	77	33.2%
낮음	39	16.8%
매우 낮음	11	4.7%
합계	232	100%
평균	3.43	

<그림 3-24> 교직원 복지시설 확충



단과대학별 교직원 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평가는 높음과 매우 높음에 대한 비율은 사회과학대학(63.2%), 치과대학(58.9%) 순으로 높았으며, 낮음과 매우 낮음에 대한 비율은 인문대학(42.8%), 자연과학대학(32.1%), 보건복지대학(23.8%), 자연과학대학(23.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교직원 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평가는 5점 척도 평균 점수로 사회과학대학(3.7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인문대학(3.0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40> '교직원 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

단과대학	빈도 (비율)					빈도 합계	평균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인문대학	2 (9.5%)	7 (33.3%)	5 (23.8%)	3 (14.3%)	4 (19.0%)	21	3.00
사회과학대학	2 (10.5%)	1 (5.3%)	4 (21.1%)	4 (21.1%)	8 (42.1%)	19	3.79
자연과학대학	2 (9.5%)	3 (14.3%)	10 (47.6%)	3 (14.3%)	3 (14.3%)	21	3.10
생명과학대학	1 (3.4%)	5 (17.2%)	9 (31.0%)	12 (41.4%)	2 (6.9%)	29	3.31
공과대학	0 (0.0%)	3 (15.0%)	10 (50.0%)	3 (15.0%)	4 (20.0%)	20	3.40
예술체육대학	1 (5.0%)	4 (20.0%)	7 (35.0%)	3 (15.0%)	5 (25.0%)	20	3.35
치과대학	2 (5.9%)	1 (2.9%)	11 (32.4%)	9 (26.5%)	11 (32.4%)	34	3.76
보건복지대학	1 (4.8%)	4 (19.0%)	7 (33.3%)	3 (14.3%)	6 (28.6%)	21	3.43
과학기술대학	0 (0.0%)	9 (32.1%)	8 (28.6%)	8 (28.6%)	3 (10.7%)	28	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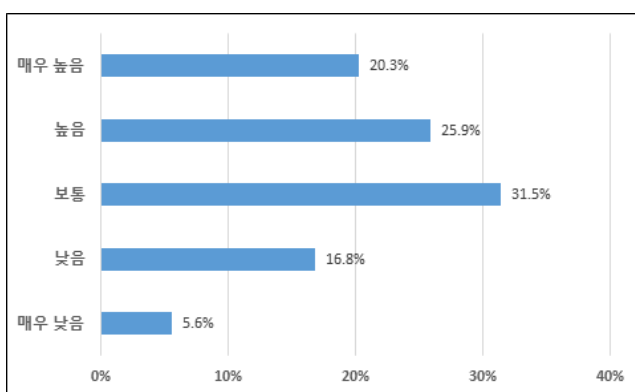
3) 교직원 복지제도 개선

교직원 복지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보통이 73명(31.5%)으로 가장 많았으며, 낮음과 매우 낮음은 각각 39명(16.8%), 13명(5.6%)으로 22.4%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높음과 매우 높음은 각각 60명(25.9%), 47명(20.3%)으로 46.2%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었다. 이를 총점 5점으로 환산할 경우, 교직원 복지제도 개선에 관한 5점 척도 평균 점수는 3.3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장 공약사항에 제시되어 있는대로 연구년 지원 및 장기 해외파견 연구지원 지침 개정, 전임교원 성과 연봉제 지침 개정 등이 이행되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표 3-41> 교직원 복지제도 개선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높음	47	20.3%
높음	60	25.9%
보통	73	31.5%
낮음	39	16.8%
매우 낮음	13	5.6%
합계	232	100%
평균	3.38	

<그림 3-25> 교직원 복지제도 개선



교직원 복지제도 개선에 대한 평가는 높음과 매우 높음에 대한 비율은 치과대학(67.6%), 사회과학대학(63.1%) 순으로 높았으며, 낮음과 매우 낮음에 대한 비율은 인문대학(42.8%), 자연과학대학(33.3%), 공과대학(30.0%), 예술체육대학(30.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교직원 복지제도 개선에 대한 평가는 5점 척도 평균 점수로 치과대학(3.8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인문대학(2.95점), 자연과학대학(2.9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42> '교직원 복지제도 개선'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

단과대학	빈도 (비율)					빈도 합계	평균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인문대학	2 (9.5%)	7 (33.3%)	5 (23.8%)	4 (19.0%)	3 (14.3%)	21	2.95
사회과학대학	2 (10.5%)	1 (5.3%)	4 (21.1%)	5 (26.3%)	7 (36.8%)	19	3.74
자연과학대학	2 (9.5%)	5 (23.8%)	9 (42.9%)	2 (9.5%)	3 (14.3%)	21	2.95
생명과학대학	1 (3.4%)	3 (10.3%)	12 (41.4%)	11 (37.9%)	2 (6.9%)	29	3.34
공과대학	1 (5.0%)	5 (25.0%)	8 (40.0%)	5 (25.0%)	1 (5.0%)	20	3.00
예술체육대학	2 (10.0%)	4 (20.0%)	6 (30.0%)	4 (20.0%)	4 (20.0%)	20	3.20
치과대학	0 (0.0%)	3 (8.8%)	8 (23.5%)	13 (38.2%)	10 (29.4%)	34	3.88
보건복지대학	3 (14.3%)	2 (9.5%)	6 (28.6%)	4 (19.0%)	6 (28.6%)	21	3.38
과학기술대학	0 (0.0%)	7 (25.0%)	9 (32.1%)	9 (32.1%)	3 (10.7%)	28	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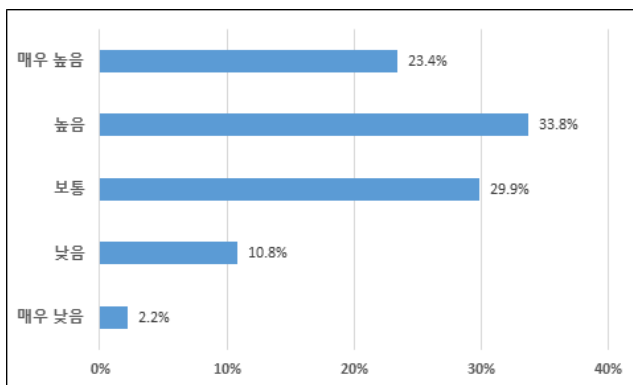
4) 학생 복지시설 개선

학생 복지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높음이 78명(33.8%)으로 가장 많았으며, 낮음과 매우 낮음은 각각 25명(10.8%), 5명(2.2%)으로 13%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높음과 매우 높음은 각각 78명(33.8%), 54명(23.4%)으로 57.2%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었다. 이를 총점 5점으로 환산할 경우, 학생 복지시설 개선에 관한 5점 척도 평균 점수는 3.6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장 공약사항에 제시되어 있는대로 학생생활관 신축, 반다비 체육센터, 도서관 리모델링 추진 등이 이행되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표 3-43> 학생 복지시설 개선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높음	54	23.4%
높음	78	33.8%
보통	69	29.9%
낮음	25	10.8%
매우 낮음	5	2.2%
합계	231	100%
평균		3.65

<그림 3-26> 학생 복지시설 개선



학생 복지시설 개선에 대한 평가는 높음과 매우 높음에 대한 비율은 사회과학대학(78.9%), 치과대학(76.5%) 순으로 높았으며, 낮음과 매우 낮음에 대한 비율은 인문대학(38.1%), 예술체육대학(20.0%), 사회과학대학(15.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학생 복지시설 개선에 대한 평가는 5점 척도 평균 점수로 치과대학(4.0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인문대학(3.1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44> ‘학생 복지시설 개선’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

단과대학	빈도 (비율)					빈도 합계	평균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인문대학	0 (0.0%)	8 (38.1%)	6 (28.6%)	3 (14.3%)	4 (19.0%)	21	3.14
사회과학대학	2 (10.5%)	1 (5.3%)	1 (5.3%)	7 (36.8%)	8 (42.1%)	19	3.95
자연과학대학	0 (0.0%)	1 (5.0%)	10 (50.0%)	5 (25.0%)	4 (20.0%)	20	3.60
생명과학대학	0 (0.0%)	3 (10.3%)	10 (34.5%)	14 (48.3%)	2 (6.9%)	29	3.52
공과대학	0 (0.0%)	3 (15.0%)	7 (35.0%)	8 (40.0%)	2 (10.0%)	20	3.45
예술체육대학	1 (5.0%)	3 (15.0%)	5 (25.0%)	7 (35.0%)	4 (20.0%)	20	3.50
치과대학	1 (2.9%)	0 (0.0%)	7 (20.6%)	14 (41.2%)	12 (35.3%)	34	4.06
보건복지대학	1 (4.8%)	2 (9.5%)	7 (33.3%)	4 (19.0%)	7 (33.3%)	21	3.67
과학기술대학	0 (0.0%)	3 (10.7%)	10 (35.7%)	11 (39.3%)	4 (14.3%)	28	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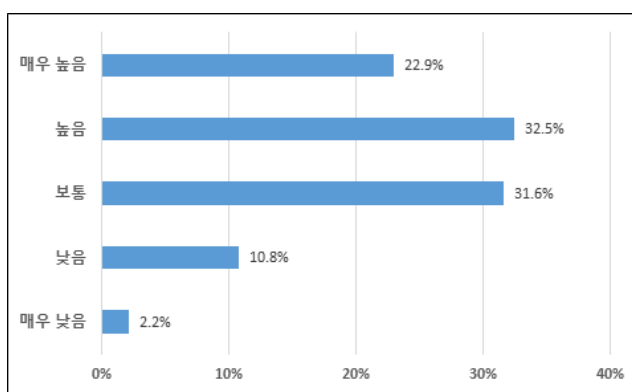
5) 학생 복지제도 개선

학생 복지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높음이 75명(32.5%)으로 가장 많았으며, 낮음과 매우 낮음은 각각 25명(10.8%), 5명(2.2%)으로 13%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높음과 매우 높음은 각각 75명(32.5%), 53명(22.9%)으로 55.4%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었다. 이를 총점 5점으로 환산할 경우, 학생 복지제도 개선에 관한 5점 척도 평균 점수는 3.6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장 공약사항에 제시되어 있는대로 학생장학금 지급 금액 상향, 학과수석 장학금 신설, 365-24 안전 캠퍼스 구축, 코로나 19 방역 체계 구축,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시설물 설치 등이 이행되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표 3-45> 학생 복지제도 개선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높음	53	22.9%
높음	75	32.5%
보통	73	31.6%
낮음	25	10.8%
매우 낮음	5	2.2%
합계	231	100%
평균	3.63	

<그림 3-27> 학생 복지제도 개선



학생 복지제도 개선에 대한 평가는 높음과 매우 높음에 대한 비율은 치과대학(76.5%), 사회과학대학(73.7%) 순으로 높았으며, 낮음과 매우 낮음에 대한 비율은 인문대학(38.1%), 예술체육대학(20.0%), 사회과학대학(15.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학생 복지제도 개선에 대한 평가는 5점 척도 평균 점수로 치과대학(4.0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인문대학(3.1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46> '학생 복지제도 개선'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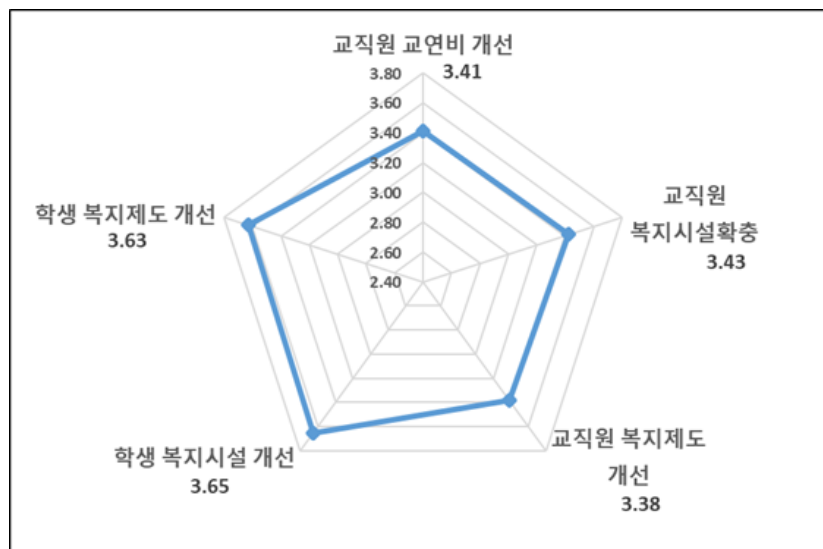
단과대학	빈도 (비율)					빈도 합계	평균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인문대학	0 (0.0%)	8 (38.1%)	6 (28.6%)	3 (14.3%)	4 (19.0%)	21	3.14
사회과학대학	2 (10.5%)	1 (5.3%)	2 (10.5%)	6 (31.6%)	8 (42.1%)	19	3.89
자연과학대학	0 (0.0%)	1 (5.0%)	10 (50.0%)	5 (25.0%)	4 (20.0%)	20	3.60
생명과학대학	0 (0.0%)	3 (10.3%)	10 (34.5%)	14 (48.3%)	2 (6.9%)	29	3.52
공과대학	0 (0.0%)	3 (15.0%)	8 (40.0%)	7 (35.0%)	2 (10.0%)	20	3.40
예술체육대학	1 (5.0%)	3 (15.0%)	5 (25.0%)	7 (35.0%)	4 (20.0%)	20	3.50
치과대학	1 (2.9%)	0 (0.0%)	7 (20.6%)	14 (41.2%)	12 (35.3%)	34	4.06
보건복지대학	1 (4.8%)	2 (9.5%)	7 (33.3%)	5 (23.8%)	6 (28.6%)	21	3.62
과학기술대학	0 (0.0%)	3 (10.7%)	12 (42.9%)	9 (32.1%)	4 (14.3%)	28	3.50

6) 종합

구성원 복지 분야는 교직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개선, 교직원 복지시설 확충, 교직원 복지제도 개선, 학생 복지시설 개선, 학생 복지제도 개선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각 항목의 평점은 각각 3.41, 3.43, 3.38, 3.65, 3.63으로 집계되어 평균 3.5로 전체 평균 3.59보다 낮은 대항목이다.

다섯 가지 영역 중 3.59 이상은 학생 복지시설 개선, 학생 복지제도 개선으로 높은 평점이 부여되었다. 하지만 교직원 복지와 교연비 개선항목에서는 3.5이하의 낮은 평가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28> ‘구성원 복지’ 평가 종합



5. 교육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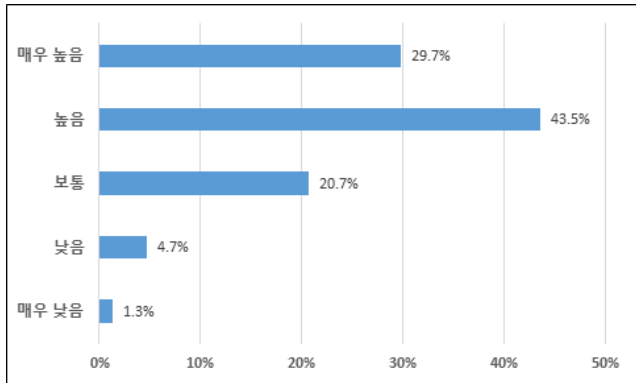
1) 교수 충원을 제고

총장의 공약 사항 중 교육분야의 ‘교수 충원을 제고’ 항목은 <표 3-47>, <그림 3-29>와 같이 분석되었다. ‘교수 충원을 제고’에 대하여 높음이 101명(43.5%)로 가장 많이 집계되었으며, 매우 높음 69명(29.7%), 보통 48(20.7%), 낮음 11명(4.7%), 매우 낮음 3명(1.3%)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매우 높음과 높음을 선택한 응답자는 전체 232명의 응답자 중 73.2%로, 매우 낮음과 낮음은 6.0%로 집계되어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부정적인 응답률보다 12.3배 이상 높았다. 총점 5점으로 환산할 경우 교수 충원을 제고에 관한 평점은 3.96으로 나타났다.

<표 3-47> 교수 충원을 제고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높음	69	29.7%
높음	101	43.5%
보통	48	20.7%
낮음	11	4.7%
매우 낮음	3	1.3%
합계	232	100%
평균	3.96	

<그림 3-29> 교수 충원을 제고



<표 3-48> ‘교수 충원을 제고’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

단과대학	빈도 (비율)					빈도 합계	평균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인문대학	1 (4.8%)	4 (19.0%)	7 (33.3%)	6 (28.6%)	3 (14.3%)	21	3.29
사회과학대학	1 (5.3%)	3 (15.8%)	1 (5.3%)	4 (21.1%)	10 (52.6%)	19	4.00
자연과학대학	1 (4.8%)	0 (0.0%)	7 (33.3%)	10 (47.6%)	3 (14.3%)	21	3.67
생명과학대학	0 (0.0%)	0 (0.0%)	7 (24.1%)	15 (51.7%)	7 (24.1%)	29	4.00
공과대학	0 (0.0%)	1 (5.0%)	3 (15.0%)	13 (65.0%)	3 (15.0%)	20	3.90
예술체육대학	0 (0.0%)	2 (10.0%)	3 (15.0%)	11 (55.0%)	4 (20.0%)	20	3.85
치과대학	0 (0.0%)	0 (0.0%)	4 (11.8%)	12 (35.3%)	18 (52.9%)	34	4.41
보건복지대학	0 (0.0%)	0 (0.0%)	5 (23.8%)	9 (42.9%)	7 (33.3%)	21	4.10
과학기술대학	0 (0.0%)	1 (3.6%)	6 (21.4%)	15 (53.6%)	6 (21.4%)	28	3.93

단과대학별 교수 충원을 제고에 대한 평가는 <표 3-48>, 높음과 매우 높음에 대한 비율은 치과대학(88.2%), 공과대학(80.0%), 보건복지대학(76.2%) 순서로 높았고, 인문대학(42.9%)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낮음과 매우 낮음에 대한 비율은 인문대학(23.8%), 사회과학대학(21.1%),

예술체육대학(10.0%) 순서로 높았고, 치과대학, 생명과학대학, 보건복지대학은 0.0%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평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치과대학, 보건복지대학은 매우 높음으로, 인문대학은 보통으로 평가한 비율이 높았으며, 나머지 6개 단과대학은 높음으로 평가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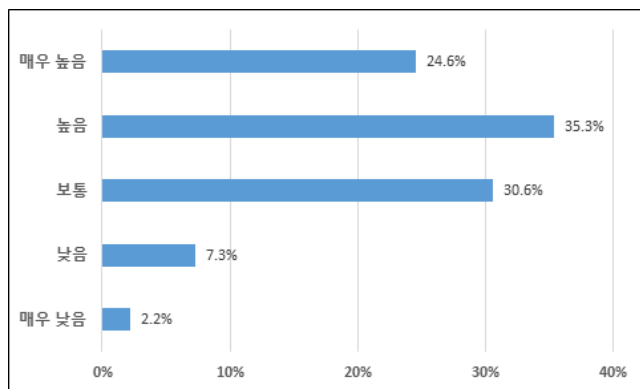
2) 교양교육 내실화

총장의 공약 사항 중 교육분야의 ‘교양교육 내실화’ 항목은 <표 3-49>, <그림 3-30>과 같이 분석되었다. ‘교양교육 내실화’에 대하여 높음이 82명(35.3%)으로 가장 많이 집계되었으며, 매우 높음 57명(24.6%), 보통 71명(30.6%), 낮음 17명(7.3%), 매우 낮음 5명(2.2%)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232명의 응답자 중 매우 높음과 높음을 선택한 응답자는 59.9%로, 매우 낮음과 낮음은 9.5%로 집계되어 긍정적인 응답률이 부정적인 응답률보다 6.3배 이상 높았다. 총점 5점으로 환산할 경우 교양교육 내실화에 관한 평점은 3.73으로 나타났다.

<표 3-49> 교양교육 내실화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높음	57	24.6%
높음	82	35.3%
보통	71	30.6%
낮음	17	7.3%
매우 낮음	5	2.2%
합계	232	100%
평균	3.73	

<그림 3-30> 교양교육 내실화



<표 3-50> ‘교양교육 내실화’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

단과대학	빈도 (비율)					빈도 합계	평균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인문대학	2 (9.5%)	5 (23.8%)	8 (38.1%)	4 (19.0%)	2 (9.5%)	21	2.95
사회과학대학	2 (10.5%)	1 (5.3%)	4 (21.1%)	5 (26.3%)	7 (36.8%)	19	3.74
자연과학대학	0 (0.0%)	2 (9.5%)	13 (61.9%)	3 (14.3%)	3 (14.3%)	21	3.33
생명과학대학	0 (0.0%)	3 (10.3%)	7 (24.1%)	14 (48.3%)	5 (17.2%)	29	3.72
공과대학	0 (0.0%)	1 (5.0%)	10 (50.0%)	6 (30.0%)	3 (15.0%)	20	3.55
예술체육대학	0 (0.0%)	2 (10.0%)	7 (35.0%)	7 (35.0%)	4 (20.0%)	20	3.65
치과대학	0 (0.0%)	0 (0.0%)	4 (11.8%)	14 (41.2%)	16 (47.1%)	34	4.35
보건복지대학	1 (4.8%)	1 (4.8%)	5 (23.8%)	6 (28.6%)	8 (38.1%)	21	3.90
과학기술대학	0 (0.0%)	2 (7.1%)	10 (35.7%)	13 (46.4%)	3 (10.7%)	28	3.61

단과대학별 교양교육 내실화에 대한 평가는 <표 3-50>, 높음과 매우 높음에 대한 비율은 치과대학(88.3%), 보건복지대학(66.7%), 생명과학대학(65.5%) 순서로 높았고, 인문대학(28.5%)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낮음과 매우 낮음에 대한 비율은 인문대학(33.3%), 사회과학대학(15.8%), 생명과학대학(10.3%) 순서로 높았고, 치과대학은 0.0%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평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치과대학은 매우 높음으로, 보건복지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은 높음으로 평가한 비율이 높았으며, 나머지 6개 단과대학은 보통으로 평가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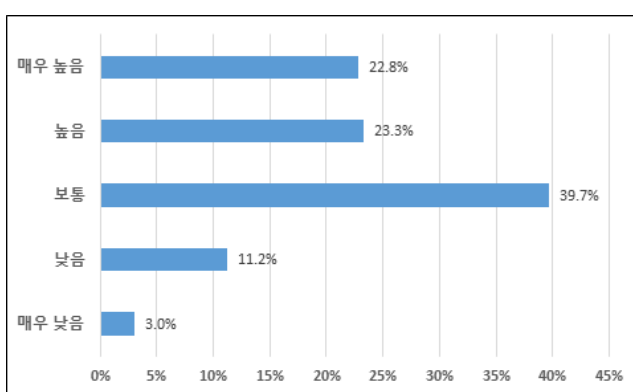
3) 전공교육 내실화

총장의 공약 사항 중 교육분야의 ‘전공교육 내실화’ 항목은 <표 3-51>, <그림 3-31>과 같이 분석되었다. ‘전공교육 내실화’에 대하여 설문 응답자 232명 중 보통을 선택한 응답자는 92명(39.7%)이 가장 많이 집계되었으며, 매우 높음 53명(22.8%), 높음 54명(23.3%), 낮음 26명(11.2%), 매우 낮음 7명(3.0%)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232명의 응답자 중 매우 높음과 높음을 선택한 응답자는 46.1%로, 매우 낮음과 낮음은 14.2%로 집계되어 긍정적인 응답률이 부정적인 응답률보다 3.3배 이상 높았다. 총점 5점으로 환산할 경우 전공교육 내실화’에 관한 평점은 3.52로 나타났다.

<표 3-51> 전공교육 내실화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높음	53	22.8%
높음	54	23.3%
보통	92	39.7%
낮음	26	11.2%
매우 낮음	7	3.0%
합계	232	100%
평균	3.52	

<그림 3-31> 전공교육 내실화



단과대학별 전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평가는 <표 3-52>, 높음과 매우 높음에 대한 비율은 치과대학(76.5%), 사회과학대학(63.2%), 보건복지대학(47.6%) 순서로 높았고, 인문대학(23.8%)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낮음과 매우 낮음에 대한 비율은 인문대학(38.1%), 자연과학대학(28.6%), 과학기술대학(28.6%) 순서로 높았고, 치과대학은 0.0%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평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치과대학은 매우 높음으로, 사회과학대학과 보건복지대학은 높음으로, 인문대학은 낮음으로 평가한 비율이 높았으며, 나머지 5개 단과대학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52> '전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

단과대학	빈도 (비율)					빈도 합계	평균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인문대학	2 (9.5%)	6 (28.6%)	8 (38.1%)	3 (14.3%)	2 (9.5%)	21	2.86
사회과학대학	3 (15.8%)	0 (0.0%)	4 (21.1%)	4 (21.1%)	8 (42.1%)	19	3.74
자연과학대학	1 (4.8%)	5 (23.8%)	10 (47.6%)	2 (9.5%)	3 (14.3%)	21	3.05
생명과학대학	0 (0.0%)	3 (10.3%)	16 (55.2%)	7 (24.1%)	3 (10.3%)	29	3.34
공과대학	0 (0.0%)	2 (10.0%)	13 (65.0%)	2 (10.0%)	3 (15.0%)	20	3.30
예술체육대학	0 (0.0%)	3 (15.0%)	8 (40.0%)	5 (25.0%)	4 (20.0%)	20	3.50
치과대학	0 (0.0%)	0 (0.0%)	8 (23.5%)	12 (35.3%)	14 (41.2%)	34	4.18
보건복지대학	0 (0.0%)	3 (14.3%)	8 (38.1%)	4 (19.0%)	6 (28.6%)	21	3.62
과학기술대학	1 (3.6%)	4 (14.3%)	10 (35.7%)	9 (32.1%)	4 (14.3%)	28	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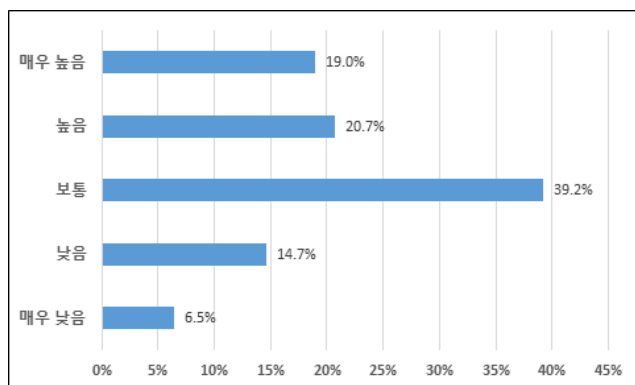
4) 대학원교육 내실화

총장의 공약 사항 중 연구분야의 '대학원교육 내실화' 항목은 <표 3-53>, <그림 3-32>와 같이 분석되었다. '대학원교육 내실화'에 대하여 설문 응답자 232명 중 보통을 선택한 응답자가 91명(39.7%)으로 집계되었으며, 매우 높음 44명(19.0%), 높음 48명(20.7%), 낮음 34명(14.7%), 매우 낮음 15명(6.5%)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232명의 응답자 중 매우 높음과 높음을 선택한 응답자는 39.7%로, 매우 낮음과 낮음은 21.1%로 집계되어 긍정적인 응답률이 부정적인 응답률보다 높았다. 총점 5점으로 환산할 경우 대학원교육 내실화에 관한 평점은 3.31로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3-53> 대학원교육 내실화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높음	44	19.0%
높음	48	20.7%
보통	91	39.2%
낮음	34	14.7%
매우 낮음	15	6.5%
합계	232	100%
평균	3.31	

<그림 3-32> 대학원교육 내실화



단과대학별 대학원교육 내실화에 대한 평가는 <표 3-54>, 높음과 매우 높음에 대한 비율은 치과대학(70.6%), 사회과학대학(57.9%), 보건복지대학(42.8%) 순서로 높았고, 자연과학대학(14.3%)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낮음과 매우 낮음에 대한 비율은 자연과학대학(47.6%), 공과대학(35.0%), 사회과학대학(26.3%) 순서로 높았고, 치과대학은 5.9%로 낮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평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치과대학, 사회과학대학,

보건복지대학은 높음으로 평가한 비율이 높았으며, 나머지 6개 단과대학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54> '대학원교육 내실화'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

단과대학	빈도 (비율)					빈도 합계	평균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인문대학	1 (4.8%)	2 (9.5%)	14 (66.7%)	1 (4.8%)	3 (14.3%)	21	3.14
사회과학대학	3 (15.8%)	2 (10.5%)	3 (15.8%)	3 (15.8%)	8 (42.1%)	19	3.58
자연과학대학	4 (19.0%)	6 (28.6%)	8 (38.1%)	1 (4.8%)	2 (9.5%)	21	2.57
생명과학대학	1 (3.4%)	5 (17.2%)	15 (51.7%)	5 (17.2%)	3 (10.3%)	29	3.14
공과대학	4 (20.0%)	3 (15.0%)	8 (40.0%)	5 (25.0%)	0 (0.0%)	20	2.70
예술체육대학	0 (0.0%)	5 (25.0%)	7 (35.0%)	4 (20.0%)	4 (20.0%)	20	3.35
치과대학	0 (0.0%)	2 (5.9%)	8 (23.5%)	13 (38.2%)	11 (32.4%)	34	3.97
보건복지대학	0 (0.0%)	5 (23.8%)	7 (33.3%)	4 (19.0%)	5 (23.8%)	21	3.43
과학기술대학	2 (7.1%)	3 (10.7%)	14 (50.0%)	7 (25.0%)	2 (7.1%)	28	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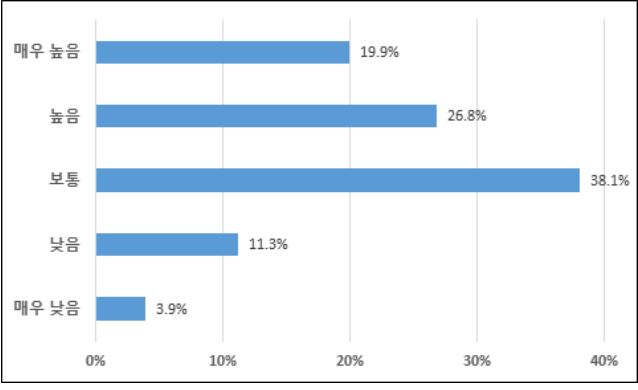
5) 교육시설 및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총장의 공약 사항 중 교육분야의 '교육시설 및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항목은 <표 3-55>,<그림 3-33>와 같이 분석되었다. '교육시설 및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에 대하여 설문 응답자 232명 중 보통을 선택한 응답자는 88명(38.1%)이 가장 많이 집계되었으며, 매우 높음 46명(19.9%), 높음 62명(26.8%), 낮음 26명(11.3%), 매우 낮음 9명(3.9%)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232명의 응답자 중 매우 높음과 높음을 선택한 응답자는 46.7%로, 매우 낮음과 낮음은 15.2%로 집계되어 긍정적인 응답률이 부정적인 응답률보다 3.1배 이상 높았다. 총점 5점으로 환산할 경우 교육시설 및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에 관한 평점은 3.48로 나타났다.

<표 3-55> 교육시설 및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높음	46	19.9%
높음	62	26.8%
보통	88	38.1%
낮음	26	11.3%
매우 낮음	9	3.9%
합계	231	100%
평균		3.48

<그림 3-33> 교육시설 및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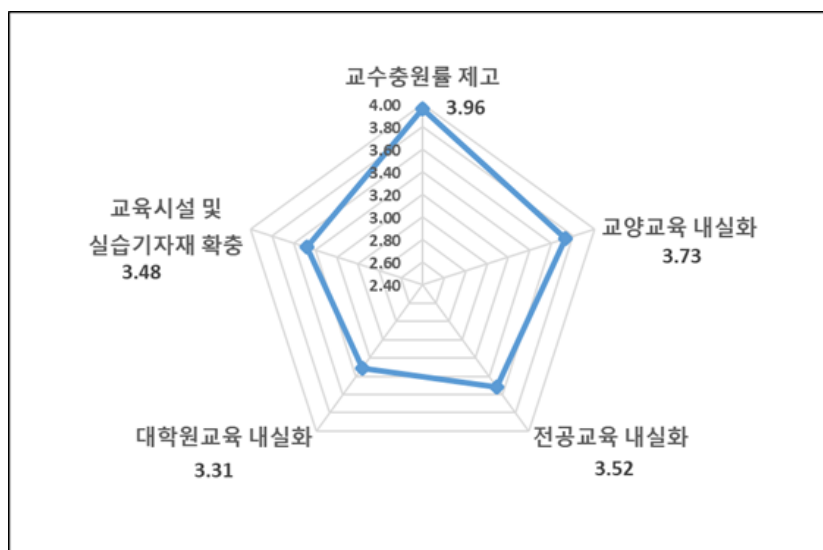
단과대학별 교육시설 및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에 대한 평가는 <표 3-56>, 높음과 매우 높음에 대한 비율은 치과대학(67.7%), 사회과학대학(57.9%), 보건복지대학(47.6%) 순서로 높았고, 자연과학대학(14.3%)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낮음과 매우 낮음에 대한 비율은 인문대학(42.9%), 자연과학대학(42.8%), 보건복지대학(28.6%) 순서로 높았고, 치과대학은 8.8%로 낮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평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치과대학은 매우 높음으로, 사회과학대학과 보건복지대학은 높음으로, 자연과학대학은 낮음으로 평가한 비율이 높았으며, 나머지 5개 단과대학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56> ‘교육시설 및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

단과대학	빈도 (비율)					빈도 합계	평균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인문대학	0 (0.0%)	3 (14.3%)	13 (61.9%)	2 (9.5%)	3 (14.3%)	21	3.24
사회과학대학	3 (15.8%)	0 (0.0%)	4 (21.1%)	5 (26.3%)	7 (36.8%)	19	3.68
자연과학대학	2 (9.5%)	2 (9.5%)	14 (66.7%)	1 (4.8%)	2 (9.5%)	21	2.95
생명과학대학	1 (3.6%)	3 (10.7%)	14 (50.0%)	8 (28.6%)	2 (7.1%)	28	3.25
공과대학	1 (5.0%)	3 (15.0%)	8 (40.0%)	8 (40.0%)	0 (0.0%)	20	3.15
예술체육대학	1 (5.0%)	3 (15.0%)	8 (40.0%)	4 (20.0%)	4 (20.0%)	20	3.35
치과대학	0 (0.0%)	2 (5.9%)	5 (14.7%)	15 (44.1%)	12 (35.3%)	34	4.09
보건복지대학	1 (4.8%)	3 (14.3%)	5 (23.8%)	6 (28.6%)	6 (28.6%)	21	3.62
과학기술대학	0 (0.0%)	4 (14.3%)	13 (46.4%)	8 (28.6%)	3 (10.7%)	28	3.36

6) 종합

<그림 3-34> ‘교육분야’ 평가 종합



교육분야에 있어서 ‘교수 충원을 제고’, ‘교양교육 내실화’, ‘전공교육 내실화’ ‘대학원교육 내실화’ 및 ‘교육시설 및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에 대한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평점은 3.96,

3.73, 3.52, 3.31, 3.48이고 평균은 3.60으로 전체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대학원 교육 내실화’에 대한 평가가 다른 항목에 비하여 낮다. 교육분야의 기여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원 교육 내실화’와 함께 ‘전공교육 내실화’ ‘교육시설 및 기자재 확충’에 대한 지원이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다.

6. 연구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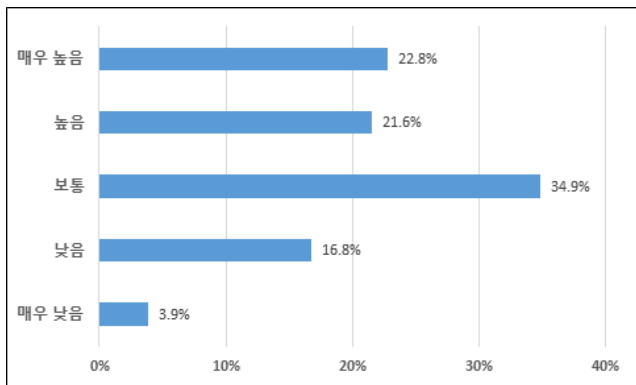
1) 교수 연구활동 지원 확대

총장의 공약 사항 중 연구분야의 ‘교수 연구활동 지원 확대’ 항목은 <표 3-57, 그림 3-35>와 같이 분석되었다. ‘교수 연구활동 지원 확대’에 대하여 보통이 81명(34.9%)으로 가장 많이 집계되었으며, 매우 높음 53명(22.8%), 높음 50명(21.6%), 낮음 39명(16.8%), 매우 낮음 9명(3.9%)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매우 높음과 높음을 선택한 응답자는 전체 232명의 응답자 중 44.4%로, 매우 낮음과 낮음은 20.7%로 집계되어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부정적인 응답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총점 5점으로 환산할 경우 교수 연구활동 지원 확대에 관한 평점은 3.43로 나타났다.

<표 3-57> 교수 연구활동 지원 확대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높음	53	22.8%
높음	50	21.6%
보통	81	34.9%
낮음	39	16.8%
매우 낮음	9	3.9%
합계	232	100%
평균	3.43	

<그림 3-35> 교수 연구활동 지원 확대



<표 3-58> ‘교수 연구활동 지원 확대’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

단과대학	빈도 (비율)					빈도 합계	평균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인문대학	0 (0.0%)	9 (42.9%)	5 (23.8%)	4 (19.0%)	3 (14.3%)	21	3.05
사회과학대학	2 (10.5%)	2 (10.5%)	3 (15.8%)	5 (26.3%)	7 (36.8%)	19	3.68
자연과학대학	2 (9.5%)	7 (33.3%)	10 (47.6%)	1 (4.8%)	1 (4.8%)	21	2.62
생명과학대학	2 (6.9%)	2 (6.9%)	14 (48.3%)	6 (20.7%)	5 (17.2%)	29	3.34
공과대학	1 (5.0%)	3 (15.0%)	9 (45.0%)	5 (25.0%)	2 (10.0%)	20	3.20
예술체육대학	0 (0.0%)	4 (20.0%)	8 (40.0%)	5 (25.0%)	3 (15.0%)	20	3.35
치과대학	1 (2.9%)	2 (5.9%)	4 (11.8%)	13 (38.2%)	14 (41.2%)	34	4.09
보건복지대학	1 (4.8%)	4 (19.0%)	6 (28.6%)	4 (19.0%)	6 (28.6%)	21	3.48
과학기술대학	0 (0.0%)	4 (14.3%)	16 (57.1%)	4 (14.3%)	4 (14.3%)	28	3.29

단과대학별 교수 연구활동 지원 확대에 대한 평가는 <표 3-58>, 높음과 매우 높음에 대한 비율은 치과대학(79.4%), 사회과학대학(63.1%), 보건복지대학(47.6%) 순서로 높았고, 자연과학대학(9.6%)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낮음과 매우 낮음에 대한 비율은 인문대학(42.9%), 자연과학대학(42.8%), 보건복지대학(23.8%) 순서로 높았고, 치과대학은 8.8%로

낮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평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치과대학, 사회과학대학은 매우 높음으로, 인문대학은 낮음으로 평가한 비율이 높았으며, 나머지 6개 단과대학은 보통으로 평가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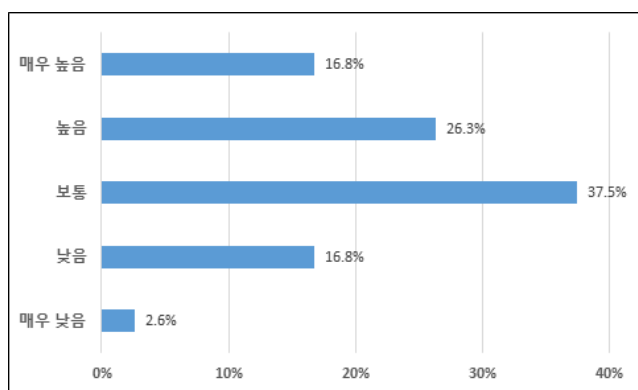
2) 연구소 및 연구회 활성화

총장의 공약 사항 중 연구분야의 ‘연구소 및 연구회 활성화’ 항목은 <표 3-59, 그림 3-36>과 같이 분석되었다. ‘연구소 및 연구회 활성화’에 대하여 보통이 87명(37.5%)으로 가장 많이 집계되었으며, 매우 높음 39명(16.8%), 높음 61명(26.3%), 낮음 39명(16.8%), 매우 낮음 6명(2.6%)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232명의 응답자 중 매우 높음과 높음을 선택한 응답자는 43.1%로, 매우 낮음과 낮음은 19.4%로 집계되어 긍정적인 응답률이 부정적인 응답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총점 5점으로 환산할 경우 연구소 및 연구회 활성화에 관한 평점은 3.38로 나타났다.

<표 3-59> 연구소 및 연구회 활성화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높음	39	16.8%
높음	61	26.3%
보통	87	37.5%
낮음	39	16.8%
매우 낮음	6	2.6%
합계	232	100%
평균	3.38	

<그림 3-36> 연구소 및 연구회 활성화



<표 3-60> ‘연구소 및 연구회 활성화’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

단과대학	빈도 (비율)					빈도 합계	평균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인문대학	2 (9.5%)	5 (23.8%)	10 (47.6%)	2 (9.5%)	2 (9.5%)	21	2.86
사회과학대학	2 (10.5%)	2 (10.5%)	4 (21.1%)	7 (36.8%)	4 (21.1%)	19	3.47
자연과학대학	1 (4.8%)	7 (33.3%)	10 (47.6%)	2 (9.5%)	1 (4.8%)	21	2.76
생명과학대학	1 (3.4%)	4 (13.8%)	11 (37.9%)	10 (34.5%)	3 (10.3%)	29	3.34
공과대학	0 (0.0%)	5 (25.0%)	8 (40.0%)	6 (30.0%)	1 (5.0%)	20	3.15
예술체육대학	0 (0.0%)	3 (15.0%)	8 (40.0%)	6 (30.0%)	3 (15.0%)	20	3.45
치과대학	0 (0.0%)	2 (5.9%)	5 (14.7%)	14 (41.2%)	13 (38.2%)	34	4.12
보건복지대학	0 (0.0%)	5 (23.8%)	9 (42.9%)	1 (4.8%)	6 (28.6%)	21	3.38
과학기술대학	0 (0.0%)	6 (21.4%)	15 (53.6%)	6 (21.4%)	1 (3.6%)	28	3.07

단과대학별 연구소 및 연구회 활성화에 대한 평가는 <표 3-60>, 높음과 매우 높음에 대한 비율은 치과대학(79.4%), 사회과학대학(57.9%), 예술체육대학(45.0%) 순서로 높았고,

자연과학대학(14.3%)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낮음과 매우 낮음에 대한 비율은 자연과학대학(38.1%), 인문대학(33.3%), 보건복지대학(23.8%) 순서로 높았고, 치과대학은 5.9%로 낮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평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치과대학은 매우 높음으로, 사회과학대학과 생명과학대학은 높음으로 평가한 비율이 높았으며, 나머지 6개 단과대학은 보통으로 평가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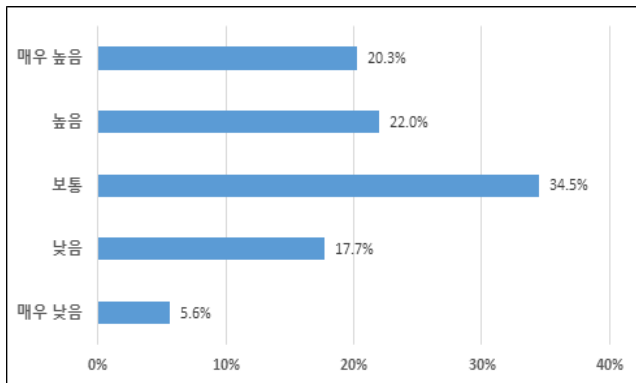
3) 연구기금 확충 및 연구재원 확대

총장의 공약 사항 중 연구분야의 ‘연구기금 확충 및 연구재원 확대’ 항목은 <표 3-61, 그림 3-37>과 같이 분석되었다. ‘연구기금 확충 및 연구재원 확대’에 대하여 설문 응답자 232명 중 보통을 선택한 응답자는 80명(34.5%)이 가장 많이 집계되었으며, 매우 높음 47명(20.3%), 높음 51명(22.0%), 낮음 41명(17.7%), 매우 낮음 13명(5.6%)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232명의 응답자 중 매우 높음과 높음을 선택한 응답자는 42.3%로, 매우 낮음과 낮음은 23.3%로 집계되어 긍정적인 응답률이 부정적인 응답률보다 높았다. 총점 5점으로 환산할 경우 연구소 및 연구회 활성화에 관한 평점은 3.34로 나타났다.

<표 3-61> 연구기금 확충 및 연구재원 확대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높음	47	20.3%
높음	51	22.0%
보통	80	34.5%
낮음	41	17.7%
매우 낮음	13	5.6%
합계	232	100%
평균	3.34	

<그림 3-37> 연구기금 확충 및 연구재원 확대



단과대학별 연구기금 확충 및 연구재원 확대에 대한 평가는 <표 3-62>, 높음과 매우 높음에 대한 비율은 치과대학(67.7%), 사회과학대학(57.9%), 보건복지대학(47.6%) 순서로 높았고, 자연과학대학(14.3%)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낮음과 매우 낮음에 대한 비율은 인문대학(42.9%), 자연과학대학(42.8%), 보건복지대학(28.6%) 순서로 높았고, 치과대학은 8.8%로 낮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평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치과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은 매우 높음으로, 예술체육대학은 높음으로, 인문대학은 낮음으로 평가한 비율이 높았으며, 나머지 5개 단과대학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62> '연구기금 확충 및 연구재원 확대'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

단과대학	빈도 (비율)					빈도 합계	평균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인문대학	1 (4.8%)	8 (38.1%)	7 (33.3%)	2 (9.5%)	3 (14.3%)	21	2.90
사회과학대학	3 (15.8%)	2 (10.5%)	3 (15.8%)	2 (10.5%)	9 (47.4%)	19	3.63
자연과학대학	2 (9.5%)	7 (33.3%)	9 (42.9%)	2 (9.5%)	1 (4.8%)	21	2.67
생명과학대학	2 (6.9%)	5 (17.2%)	12 (41.4%)	8 (27.6%)	2 (6.9%)	29	3.10
공과대학	3 (15.0%)	2 (10.0%)	9 (45.0%)	4 (20.0%)	2 (10.0%)	20	3.00
예술체육대학	1 (5.0%)	3 (15.0%)	5 (25.0%)	8 (40.0%)	3 (15.0%)	20	3.45
치과대학	1 (2.9%)	2 (5.9%)	8 (23.5%)	11 (32.4%)	12 (35.3%)	34	3.91
보건복지대학	0 (0.0%)	6 (28.6%)	5 (23.8%)	4 (19.0%)	6 (28.6%)	21	3.48
과학기술대학	0 (0.0%)	4 (14.3%)	17 (60.7%)	4 (14.3%)	3 (10.7%)	28	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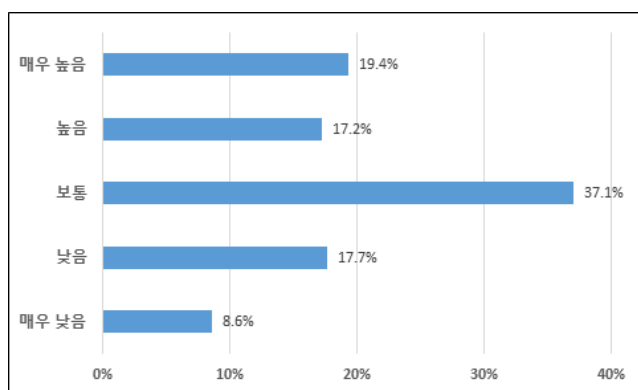
4) 대학원생 연구 지원

총장의 공약 사항 중 연구분야의 '대학원생 연구지원' 항목은 <표 3-63, 그림 3-38>과 같이 분석되었다. '대학원생 연구지원'에 대하여 설문 응답자 232명 중 보통을 선택한 응답자가 86명(37.1%)으로 집계되었으며, 매우 높음 45명(19.4%), 높음 40명(36.6%), 낮음 41명(17.7%), 매우 낮음 20명(8.6%)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232명의 응답자 중 매우 높음과 높음을 선택한 응답자는 36.6%로, 매우 낮음과 낮음은 26.3%로 집계되어 긍정적인 응답률이 부정적인 응답률보다 높았다. 총점 5점으로 환산할 경우 연구소 및 연구회 활성화에 관한 평점은 3.21로 전체 평균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3-63> 대학원생 연구 지원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높음	45	19.4%
높음	40	17.2%
보통	86	37.1%
낮음	41	17.7%
매우 낮음	20	8.6%
합계	232	100%
평균		3.21

<그림 3-38> 대학원생 연구 지원



단과대학별 대학원생 연구지원에 대한 평가는 <표 3-64>, 높음과 매우 높음에 대한 비율은 치과대학(67.7%), 사회과학대학(57.9%), 보건복지대학(47.6%) 순서로 높았고, 자연과학대학(9.5%)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낮음과 매우 낮음에 대한 비율은 자연과학대학(42.4%), 인문대학(38.1%), 공과대학/예술체육대학(35.0%) 순서로 높았고, 치과대학은 5.8%로 낮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평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치과대학,

사회과학대학, 보건복지대학은 매우 높음으로 평가한 비율이 높았으며, 나머지 6개 단과대학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64> '대학원생 연구 지원'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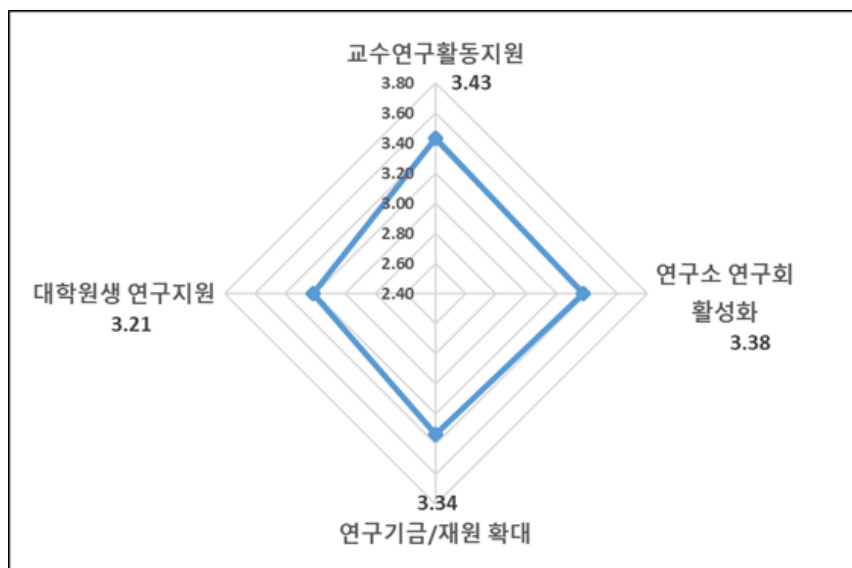
단과대학	빈도 (비율)					빈도 합계	평균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인문대학	1 (4.8%)	7 (33.3%)	8 (38.1%)	2 (9.5%)	3 (14.3%)	21	2.95
사회과학대학	3 (15.8%)	3 (15.8%)	2 (10.5%)	4 (21.1%)	7 (36.8%)	19	3.47
자연과학대학	3 (14.3%)	8 (38.1%)	8 (38.1%)	0 (0.0%)	2 (9.5%)	21	2.52
생명과학대학	2 (6.9%)	5 (17.2%)	16 (55.2%)	4 (13.8%)	2 (6.9%)	29	2.97
공과대학	4 (20.0%)	3 (15.0%)	9 (45.0%)	3 (15.0%)	1 (5.0%)	20	2.70
예술체육대학	2 (10.0%)	5 (25.0%)	5 (25.0%)	5 (25.0%)	3 (15.0%)	20	3.10
치과대학	1 (2.9%)	1 (2.9%)	9 (26.5%)	12 (35.3%)	11 (32.4%)	34	3.91
보건복지대학	1 (4.8%)	3 (14.3%)	7 (33.3%)	3 (14.3%)	7 (33.3%)	21	3.57
과학기술대학	3 (10.7%)	4 (14.3%)	15 (53.6%)	3 (10.7%)	3 (10.7%)	28	2.96

5) 종합

연구분야에 대한 총장의 기여도 설문 결과를 종합해보면 '교수 연구활동 지원확대', '연구소 및 연구회 활성화', '연구재원 확대' 및 '대학원생 연구지원'에 대한 네 가지 항목에 대한 평점은 3.43, 3.38, 3.34, 3.21이며 평균은 3.34로 나타났다.

연구분야 네 가지 항목 모두 전체 평균에서 미달한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대학원생 연구지원'에 대한 평가가 더욱 낮았다. 연구분야를 상승시키기 위해 '연구재원 확대'와 함께 '대학원생 연구지원'이 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39> '연구분야' 평가 종합



7. 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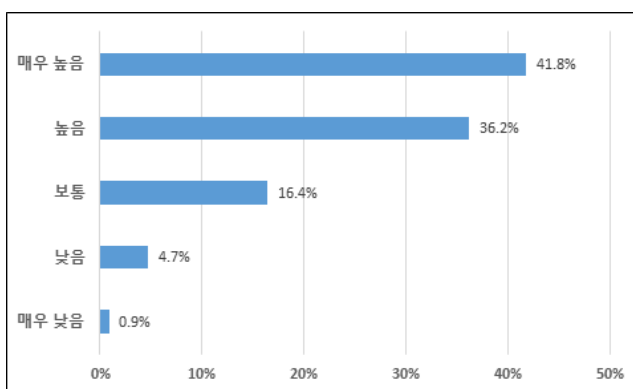
1) 정부 재정지원사업 대응

정부 재정지원사업 대응에 대해서는 매우 높음이 97명(41.8%)으로 가장 많았으며, 낮음과 매우 낮음은 각각 11명(4.7%), 2명(0.9%)으로 5.6%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높음과 매우 높음은 각각 84명(36.2%), 97명(41.8%)으로 78%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었다. 이를 총점 5점으로 환산할 경우, 정부 재정지원사업 대응에 관한 5점 척도 평균 점수는 4.13점으로 전체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장 공약사항에 제시되어 있는대로 대학혁신위원회: 재정지원사업 총괄 점검 및 관리·평가, 대학 전체 재정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거버넌스 총괄 체계 구축 예정, 대학 내 주요사업 성과 종합분석 및 전략 마련을 위한 ‘성과관리센터’ 신설 등이 이행되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표 3-65> 정부 재정지원사업 대응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높음	97	41.8%
높음	84	36.2%
보통	38	16.4%
낮음	11	4.7%
매우 낮음	2	0.9%
합계	232	100%
평균	4.13	

<그림 3-40> 정부 재정지원사업 대응



<표 3-66> ‘정부 재정지원사업 대응’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

단과대학	빈도 (비율)					빈도 합계	평균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인문대학	0 (0.0%)	1 (4.8%)	7 (33.3%)	8 (38.1%)	5 (23.8%)	21	3.81
사회과학대학	2 (10.5%)	0 (0.0%)	3 (15.8%)	2 (10.5%)	12 (63.2%)	19	4.16
자연과학대학	0 (0.0%)	0 (0.0%)	7 (33.3%)	8 (38.1%)	6 (28.6%)	21	3.95
생명과학대학	0 (0.0%)	1 (3.4%)	6 (20.7%)	12 (41.4%)	10 (34.5%)	29	4.07
공과대학	0 (0.0%)	2 (10.0%)	1 (5.0%)	11 (55.0%)	6 (30.0%)	20	4.05
예술체육대학	0 (0.0%)	2 (10.0%)	4 (20.0%)	7 (35.0%)	7 (35.0%)	20	3.95
치과대학	0 (0.0%)	0 (0.0%)	1 (2.9%)	14 (41.2%)	19 (55.9%)	34	4.53
보건복지대학	0 (0.0%)	2 (9.5%)	3 (14.3%)	6 (28.6%)	10 (47.6%)	21	4.14
과학기술대학	0 (0.0%)	2 (7.1%)	4 (14.3%)	13 (46.4%)	9 (32.1%)	28	4.04

정부 재정지원사업 대응에 대한 평가는 높음과 매우 높음에 대한 비율은 치과대학(97.1%), 공과대학(85.0%), 과학기술대학(78.5%) 순으로 높았으며, 낮음과 매우 낮음에 대한 비율은 사

회과학대학(10.5%), 공과대학(10.0%)과 예술체육대학(10.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 별 정부 재정지원사업 대응에 대한 평가는 5점 척도 평균 점수로 치과대학(4.53)으로 가장 높았으며, 인문대학(3.8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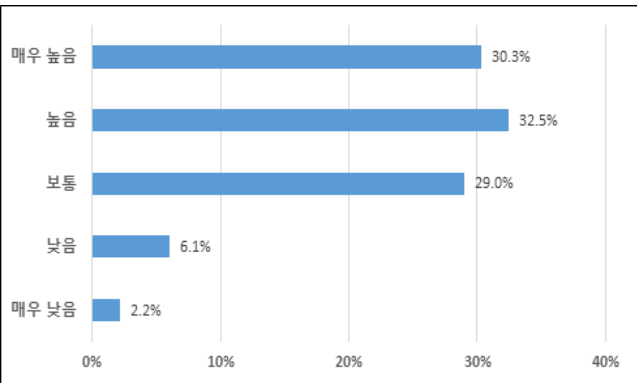
2) 대학재정의 투명성

대학재정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높음이 75명(32.5%)으로 가장 많았으며, 낮음과 매우 낮음은 각각 14명(6.1%), 5명(2.2%)으로 7.3%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높음과 매우 높음은 각각 75명(32.5%), 70명(30.3%)으로 62.8%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었다. 이를 총점 5점으로 환산할 경우, 대학재정의 투명성에 관한 5점 척도 평균 점수는 3.83점으로 전체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장 공약사항에 제시되어 있는대로 재정위원회 참관인 제도 도입 추진, 대학재정건정성 강화 위원회 구성을 통한 위기등급별 시나리오 전략 수립 등이 이행되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표 3-67> 대학재정의 투명성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높음	70	30.3%
높음	75	32.5%
보통	67	29.0%
낮음	14	6.1%
매우 낮음	5	2.2%
합계	231	100%
평균		3.83

<그림 3-41> 대학재정의 투명성



<표 3-68> '대학재정의 투명성'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

단과대학	빈도 (비율)					빈도 합계	평균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인문대학	0 (0.0%)	4 (19.0%)	9 (42.9%)	4 (19.0%)	4 (19.0%)	21	3.38
사회과학대학	2 (10.5%)	1 (5.3%)	3 (15.8%)	3 (15.8%)	10 (52.6%)	19	3.95
자연과학대학	0 (0.0%)	1 (5.0%)	9 (45.0%)	8 (40.0%)	2 (10.0%)	20	3.55
생명과학대학	1 (3.4%)	1 (3.4%)	9 (31.0%)	9 (31.0%)	9 (31.0%)	29	3.83
공과대학	0 (0.0%)	1 (5.0%)	7 (35.0%)	10 (50.0%)	2 (10.0%)	20	3.65
예술체육대학	1 (5.0%)	2 (10.0%)	4 (20.0%)	7 (35.0%)	6 (30.0%)	20	3.75
치과대학	0 (0.0%)	0 (0.0%)	5 (14.7%)	13 (38.2%)	16 (47.1%)	34	4.32
보건복지대학	1 (4.8%)	2 (9.5%)	6 (28.6%)	6 (28.6%)	6 (28.6%)	21	3.67
과학기술대학	0 (0.0%)	1 (3.6%)	11 (39.3%)	9 (32.1%)	7 (25.0%)	28	3.79

대학재정의 투명성에 대한 평가는 높음과 매우 높음에 대한 비율은 치과대학(85.3%), 사회과학대학(68.4%), 예술체육대학(65.0%)순으로 높았으며, 낮음과 매우 낮음에 대한 비율은 인

문대학(19.0%), 사회과학대학(15.8%), 예술체육대학(15.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대학재정의 투명성에 대한 평가는 5점 척도 평균 점수로 치과대학(4.3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인문대학(3.3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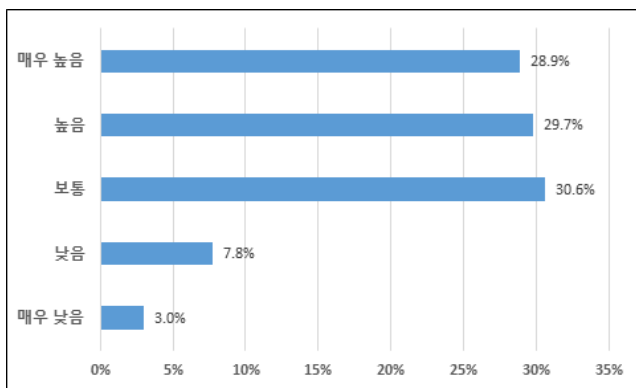
3) 예산집행의 적절성

예산집행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보통이 71명(30.6%)으로 가장 많았으며, 낮음과 매우 낮음은 각각 18명(7.8%), 7명(3.0%)으로 10.8%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높음과 매우 높음은 각각 69명(29.7%), 67명(28.9%)으로 58.6%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었다. 이를 총점 5점으로 환산할 경우, 예산집행의 적절성에 관한 5점 척도 평균 점수는 3.74점으로 전체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장 공약사항에 제시되어 있는대로 5회 계연도에 대한 중기 재정운용계획 수립(재정위원회 심의)을 통한 위기등급별 시나리오 전략 수립, 구성원의 대학회계 예산 성과평가 제도를 통한 재정 효율화 및 예산편성 집행의 우선순위 추진 등이 이행되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표 3-69> 예산집행의 적절성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높음	67	28.9%
높음	69	29.7%
보통	71	30.6%
낮음	18	7.8%
매우 낮음	7	3.0%
합계	232	100%
평균	3.74	

<그림 3-42> 예산집행의 적절성



<표 3-70> '예산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

단과대학	빈도 (비율)					빈도 합계	평균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인문대학	2 (9.5%)	4 (19.0%)	8 (38.1%)	3 (14.3%)	4 (19.0%)	21	3.14
사회과학대학	2 (10.5%)	2 (10.5%)	2 (10.5%)	4 (21.1%)	9 (47.4%)	19	3.84
자연과학대학	0 (0.0%)	1 (4.8%)	11 (52.4%)	6 (28.6%)	3 (14.3%)	21	3.52
생명과학대학	1 (3.4%)	1 (3.4%)	11 (37.9%)	9 (31.0%)	7 (24.1%)	29	3.69
공과대학	1 (5.0%)	2 (10.0%)	7 (35.0%)	6 (30.0%)	4 (20.0%)	20	3.50
예술체육대학	1 (5.0%)	2 (10.0%)	5 (25.0%)	7 (35.0%)	5 (25.0%)	20	3.65
치과대학	0 (0.0%)	0 (0.0%)	6 (17.6%)	13 (38.2%)	15 (44.1%)	34	4.26
보건복지대학	0 (0.0%)	3 (14.3%)	6 (28.6%)	6 (28.6%)	6 (28.6%)	21	3.71
과학기술대학	0 (0.0%)	2 (7.1%)	11 (39.3%)	10 (35.7%)	5 (17.9%)	28	3.64

예산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높음과 매우 높음에 대한 비율은 치과대학(82.3%), 사회과학대학(68.5%), 예술체육대학(60.0%) 순으로 높았으며, 낮음과 매우 낮음에 대한 비율은 인문대학(28.5%), 사회과학대학(21.0%), 공과대학(15.0%)과 예술체육대학(15.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예산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5점 척도 평균 점수로 치과대학(4.2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인문대학(3.1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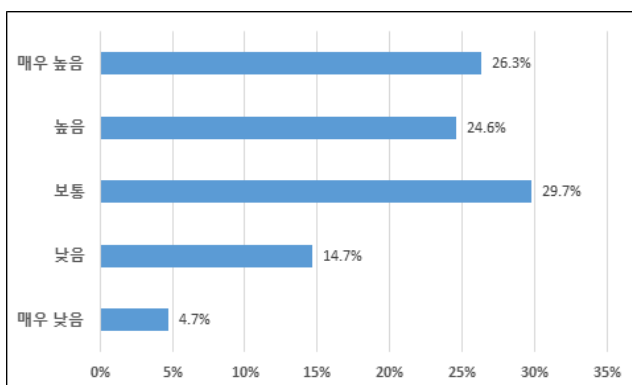
4) 외부 발전기금 유치

외부 발전기금 유치에 대해서는 보통이 69명(29.7%)으로 가장 많았으며, 낮음과 매우 낮음은 각각 34명(14.7%), 11명(4.7%)으로 19.4%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높음과 매우 높음은 각각 57명(24.6%), 61명(26.3%)으로 50.9%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었다. 이를 총점 5점으로 환산할 경우, 외부 발전기금 유치에 관한 5점 척도 평균 점수는 3.53점으로 전체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장 공약사항에 제시되어 있는 동창회와 협력한 모교후원 캠페인, 대학발전기금유치위원회 및 강릉원주대 honorship 공유, relay 모금 추진, 교육사업 활성화 및 대학시설 재산을 활용한 수익사업의 다각화 등이 이행되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표 3-71> 외부 발전기금 유치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높음	61	26.3%
높음	57	24.6%
보통	69	29.7%
낮음	34	14.7%
매우 낮음	11	4.7%
합계	232	100%
평균	3.53	

<그림 3-43> 외부 발전기금 유치



<표 3-72> '외부 발전기금 유치'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

단과대학	빈도 (비율)					빈도 합계	평균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인문대학	0 (0.0%)	6 (28.6%)	8 (38.1%)	3 (14.3%)	4 (19.0%)	21	3.24
사회과학대학	3 (15.8%)	3 (15.8%)	1 (5.3%)	2 (10.5%)	10 (52.6%)	19	3.68
자연과학대학	1 (4.8%)	3 (14.3%)	11 (52.4%)	4 (19.0%)	2 (9.5%)	21	3.14
생명과학대학	2 (6.9%)	6 (20.7%)	9 (31.0%)	6 (20.7%)	6 (20.7%)	29	3.28
공과대학	2 (10.0%)	4 (20.0%)	6 (30.0%)	5 (25.0%)	3 (15.0%)	20	3.15
예술체육대학	1 (5.0%)	3 (15.0%)	5 (25.0%)	6 (30.0%)	5 (25.0%)	20	3.55
치과대학	0 (0.0%)	0 (0.0%)	9 (26.5%)	11 (32.4%)	14 (41.2%)	34	4.15
보건복지대학	2 (9.5%)	3 (14.3%)	4 (19.0%)	6 (28.6%)	6 (28.6%)	21	3.52
과학기술대학	0 (0.0%)	5 (17.9%)	11 (39.3%)	8 (28.6%)	4 (14.3%)	28	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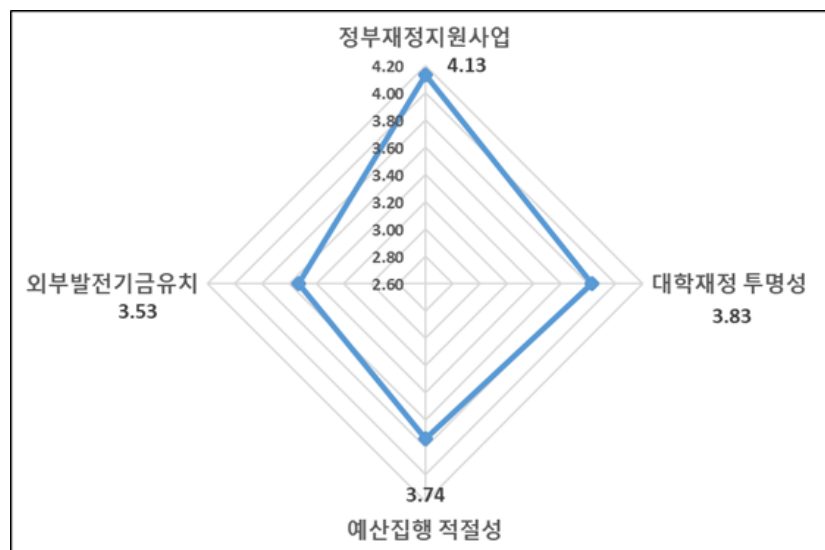
외부 발전기금 유치에 대한 평가는 높음과 매우 높음에 대한 비율은 치과대학(73.6%), 사회과학대학(63.1%), 보건복지대학(57.2%) 순으로 높았으며, 낮음과 매우 낮음에 대한 비율은 사회과학대학(31.6%), 공과대학(30.0%) 인문대학(28.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외부 발전기금 유치에 대한 평가는 5점 척도 평균 점수로 치과대학(4.1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연과학대학(3.1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5) 종합

재정에 관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사업 대응, 대학재정의 투명성, 예산집행의 적절성, 외부 발전기금 유치의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으며, 각 항목의 평점은 각각 4.13, 3.83, 3.74, 3.53으로 집계되었다. 네 가지 영역의 평균은 3.81점으로 전체 평균 3.59 보다 월등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중 정부 재정지원사업 대응, 대학재정의 투명성, 예산집행의 적절성에 높은 평점이 부여되었으며, 이는 지속적 성장 발전을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본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돋보인다.

<그림 3-44> '재정' 평가 종합



8. 산학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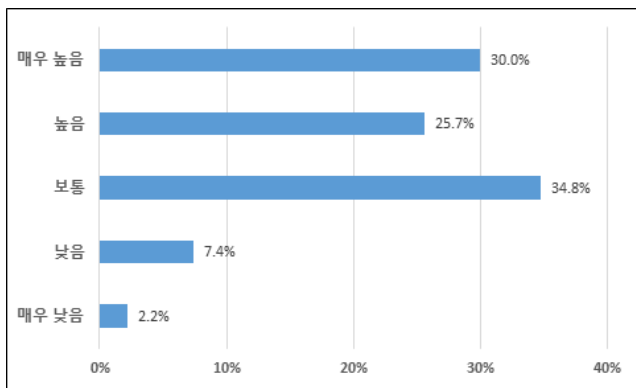
1) 산학연 과제 활성화

산학연 과제 활성화에 대한 응답은 매우 높음 69명(30.0%), 높음 59명(25.7%), 보통 80명(34.8%), 낮음 17명(7.4%), 매우 낮음 5명(2.2%)으로 집계되었다. 매우 높음과 높음의 비율은 55.7%, 낮음과 매우 낮음의 비율은 9.6%로 긍정적인 평가가 매우 많았다. 총점 5점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산학연 과제 활성화에 대한 평점은 평균 만족도를 상당히 상회하는 3.74로 나타났다. 이는 산학연 과제의 활성화가 순탄하게 진척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73> 산학연 과제 활성화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높음	69	30.0%
높음	59	25.7%
보통	80	34.8%
낮음	17	7.4%
매우 낮음	5	2.2%
합계	230	100%
평균	3.74	

<그림 3-45> 산학연 과제 활성화



단과대학별 산학연 과제 활성화에 대한 평가에서, 매우 높음과 높음의 비율이 치과대학(76.5%), 보건복지대학(71.4%)의 순으로 높았으며, 매우 낮음과 낮음의 비율은 사회과학대학(21.0%), 자연과학대학(20.0%), 인문대학(14.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산학연 과제 활성화에 대한 평가는 5점 척도 평균점수로 치과대학(4.15)이 가장 높았으며, 자연과학대학(3.30)이 가장 낮았다.

<표 3-74> '산학연 과제 활성화'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

단과대학	빈도 (비율)					빈도 합계	평균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인문대학	0 (0.0%)	3 (14.3%)	11 (52.4%)	3 (14.3%)	4 (19.0%)	21	3.38
사회과학대학	2 (10.5%)	2 (10.5%)	2 (10.5%)	4 (21.1%)	9 (47.4%)	19	3.84
자연과학대학	0 (0.0%)	4 (20.0%)	9 (45.0%)	4 (20.0%)	3 (15.0%)	20	3.30
생명과학대학	0 (0.0%)	2 (6.9%)	13 (44.8%)	8 (27.6%)	6 (20.7%)	29	3.62
공과대학	1 (5.0%)	1 (5.0%)	9 (45.0%)	5 (25.0%)	4 (20.0%)	20	3.50
예술체육대학	0 (0.0%)	2 (10.0%)	6 (30.0%)	7 (35.0%)	5 (25.0%)	20	3.75
치과대학	0 (0.0%)	1 (2.9%)	7 (20.6%)	12 (35.3%)	14 (41.2%)	34	4.15
보건복지대학	1 (4.8%)	1 (4.8%)	4 (19.0%)	7 (33.3%)	8 (38.1%)	21	3.95
과학기술대학	1 (3.6%)	1 (3.6%)	14 (50.0%)	7 (25.0%)	5 (17.9%)	28	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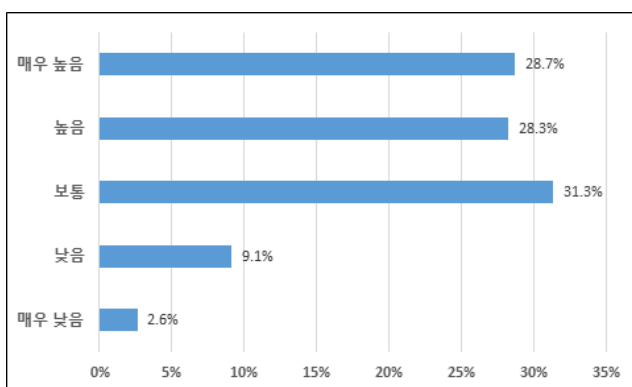
2) 산학연 재정확충

산학연 재정확충에 대한 응답은 매우 높음 66명(28.7%), 높음 65명(28.3%), 보통 72명(31.3%), 낮음 21명(9.1%), 매우 낮음 6명(2.6%)로 나타났다. 매우 높음과 높음의 비율은 57.0%이고 낮음과 매우 낮음의 비율은 16.9%로 나타남으로써 부정적인 답변보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우세하였다. 이를 5점 척도 평균 점수로 환산한 평점은 3.71로 평균만족도를 상당히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5> 산학연 재정확충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높음	66	28.7%
높음	65	28.3%
보통	72	31.3%
낮음	21	9.1%
매우 낮음	6	2.6%
합계	230	100%
평균	3.71	

<그림 3-46> 산학연 재정확충



단과대학별 산학연 재정확충에 대한 평가에서, 매우 높음과 높음의 비율이 단과대학 외(70.0%), 사회과학대학(68.4%), 치과대학(61.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낮음과 낮음의 비율은 인문대학(31.6%), 자연과학대학(28.5%), 생명과학대학(24.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산학연 재정확충에 대한 평가를 5점 척도 평균 점수로 환산할 경우, 치과대학(4.15)이 가장 높았으며, 자연과학대학(3.30)이 가장 낮았다.

<표 3-76> '산학연 재정확충'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

단과대학	빈도 (비율)					빈도 합계	평균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인문대학	0 (0.0%)	3 (14.3%)	9 (42.9%)	6 (28.6%)	3 (14.3%)	21	3.43
사회과학대학	2 (10.5%)	3 (15.8%)	1 (5.3%)	4 (21.1%)	9 (47.4%)	19	3.79
자연과학대학	1 (5.0%)	2 (10.0%)	10 (50.0%)	4 (20.0%)	3 (15.0%)	20	3.30
생명과학대학	0 (0.0%)	3 (10.3%)	11 (37.9%)	8 (27.6%)	7 (24.1%)	29	3.66
공과대학	1 (5.0%)	1 (5.0%)	8 (40.0%)	7 (35.0%)	3 (15.0%)	20	3.50
예술체육대학	1 (5.0%)	2 (10.0%)	5 (25.0%)	8 (40.0%)	4 (20.0%)	20	3.60
치과대학	0 (0.0%)	1 (2.9%)	7 (20.6%)	12 (35.3%)	14 (41.2%)	34	4.15
보건복지대학	0 (0.0%)	3 (14.3%)	4 (19.0%)	6 (28.6%)	8 (38.1%)	21	3.90
과학기술대학	1 (3.6%)	2 (7.1%)	13 (46.4%)	7 (25.0%)	5 (17.9%)	28	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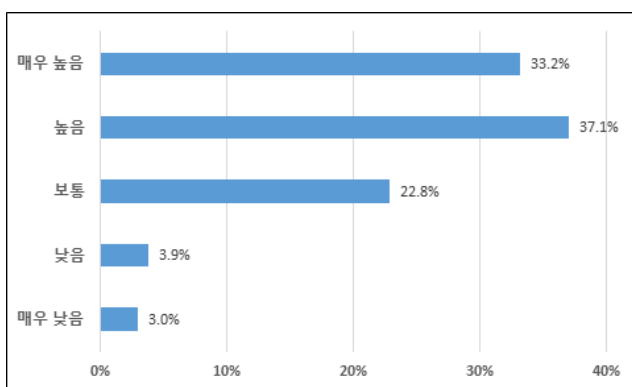
3) LINC+ 사업의 활성화

LINC+ 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응답은 매우 높음 77명(33.2%), 높음 86명(37.1%), 보통 53명(22.8%), 낮음 9명(3.9%), 매우 낮음 7명(3.0%)로 나타났다. 매우 높음과 높음의 비율은 70.3%이고 낮음과 매우 낮음의 비율은 6.9%로 나타남으로써 부정적인 답변보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 이를 5점 척도 평균 점수로 환산한 평점은 3.94로 평균 만족도를 매우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7> LINC+ 사업의 활성화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높음	77	33.2%
높음	86	37.1%
보통	53	22.8%
낮음	9	3.9%
매우 낮음	7	3.0%
합계	232	100%
평균	3.94	

<그림 3-47> LINC+ 사업의 활성화



단과대학별 LINC+ 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평가에서, 매우 높음과 높음의 비율이 치과대학(85.3%), 보건복지대학(76.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낮음과 낮음의 비율은 사회과학대학(15.8%), 인문대학(14.3%), 생명과학대학(10.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산학연 재정확충에 대한 평가를 5점 척도 평균 점수로 환산할 경우, 치과대학(4.26)이 가장 높았으며, 인문대학(3.52)이 가장 낮았다.

<표 3-78> 'LINC+ 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

단과대학	빈도 (비율)					빈도 합계	평균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인문대학	0 (0.0%)	3 (14.3%)	8 (38.1%)	6 (28.6%)	4 (19.0%)	21	3.52
사회과학대학	2 (10.5%)	1 (5.3%)	3 (15.8%)	1 (5.3%)	12 (63.2%)	19	4.05
자연과학대학	0 (0.0%)	0 (0.0%)	8 (38.1%)	9 (42.9%)	4 (19.0%)	21	3.81
생명과학대학	1 (3.4%)	2 (6.9%)	4 (13.8%)	15 (51.7%)	7 (24.1%)	29	3.86
공과대학	1 (5.0%)	1 (5.0%)	5 (25.0%)	7 (35.0%)	6 (30.0%)	20	3.80
예술체육대학	1 (5.0%)	1 (5.0%)	5 (25.0%)	10 (50.0%)	3 (15.0%)	20	3.65
치과대학	0 (0.0%)	0 (0.0%)	5 (14.7%)	15 (44.1%)	14 (41.2%)	34	4.26
보건복지대학	1 (4.8%)	1 (4.8%)	3 (14.3%)	7 (33.3%)	9 (42.9%)	21	4.05
과학기술대학	1 (3.6%)	0 (0.0%)	8 (28.6%)	11 (39.3%)	8 (28.6%)	28	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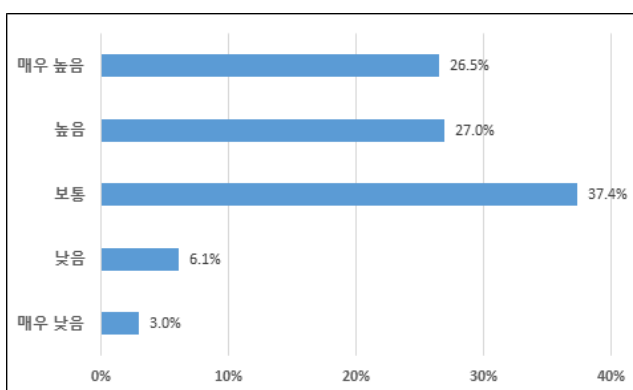
4) 산학연관 연계 클러스터 강화

산학연관 연계 클러스터 강화에 대한 응답은 매우 높음 61명(26.5%), 높음 62명(27.0%), 보통 86명(37.4%), 낮음 14명(6.1%), 매우 낮음 7명(3.0%)로 나타났다. 매우 높음과 높음의 비율은 53.5%이고 낮음과 매우 낮음의 비율은 9.1%로 나타남으로써 부정적인 답변보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상당히 우세하였다. 이를 5점 척도 평균 점수로 환산한 평점은 3.68로 평균 만족도를 매우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9> 산학연관 연계 클러스터 강화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높음	61	26.5%
높음	62	27.0%
보통	86	37.4%
낮음	14	6.1%
매우 낮음	7	3.0%
합계	230	100%
평균	3.68	

<그림 3-48> 산학연관 연계 클러스터 강화



산학연관 연계 클러스터 강화에 대한 평가에서, 매우 높음과 높음의 비율이 사회과학대학(68.4%), 치과대학(67.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매우 낮음과 낮음의 비율은 사회과학대학(26.3%), 인문대학(23.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대학들은 모두 10.0% 이하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산학연 재정확충에 대한 평가를 5점 척도 평균 점수로 환산할 경우, 치과대학(4.00)이 가장 높았으며, 인문대학(3.33)이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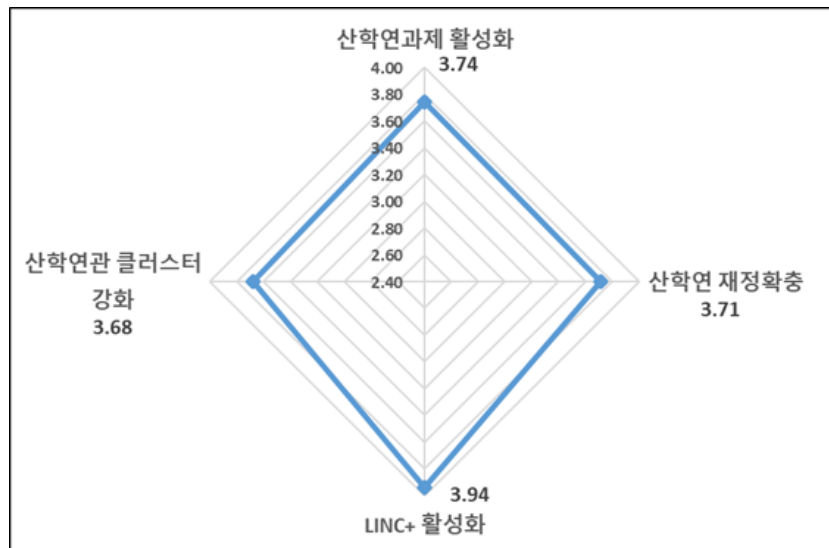
<표 3-80> '산학연관 연계 클러스터 강화'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

단과대학	빈도 (비율)					빈도 합계	평균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인문대학	0 (0.0%)	5 (23.8%)	8 (38.1%)	4 (19.0%)	4 (19.0%)	21	3.33
사회과학대학	2 (10.5%)	3 (15.8%)	1 (5.3%)	3 (15.8%)	10 (52.6%)	19	3.84
자연과학대학	1 (5.0%)	1 (5.0%)	11 (55.0%)	3 (15.0%)	4 (20.0%)	20	3.40
생명과학대학	1 (3.4%)	0 (0.0%)	12 (41.4%)	10 (34.5%)	6 (20.7%)	29	3.69
공과대학	2 (10.0%)	0 (0.0%)	9 (45.0%)	7 (35.0%)	2 (10.0%)	20	3.35
예술체육대학	0 (0.0%)	2 (10.0%)	8 (40.0%)	7 (35.0%)	3 (15.0%)	20	3.55
치과대학	0 (0.0%)	1 (2.9%)	10 (29.4%)	11 (32.4%)	12 (35.3%)	34	4.00
보건복지대학	0 (0.0%)	2 (9.5%)	4 (19.0%)	8 (38.1%)	7 (33.3%)	21	3.95
과학기술대학	1 (3.6%)	0 (0.0%)	15 (53.6%)	8 (28.6%)	4 (14.3%)	28	3.50

5) 종합

산학연 분야에 관해서는 산학연 과제 활성화, 산학연 재정책충, LINC+ 사업의 활성화, 산학연관 연계 클러스터 강화 등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으며, 각 항목의 평점은 각각 3.74, 3.71, 3.94, 3.68 등으로 집계되었다. 다섯 가지 영역의 평균은 3.77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 중에서도 LINC+ 사업의 활성화(3.94)와 산학연 과제 활성화(3.74)에 상당히 높은 평점이 부여되었다. 일정 부분 <8. 재정>부문과 중복되는 점도 있긴 하지만, 자유응답형 질문 9(잘한일)의 응답자 65명 중 산학연부문과 관련하여 답변을 제시한 경우가 24건이나 있었다. 주목할만한 수의 대학구성원이 산학연과 연관된 재정지원사업 수주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로 미루어보건대 산학연 분야는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고, 이러한 성과에 대해 많은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차후에도 대학 본부가 산학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3-49> ‘산학연’ 평가 종합



9. 대학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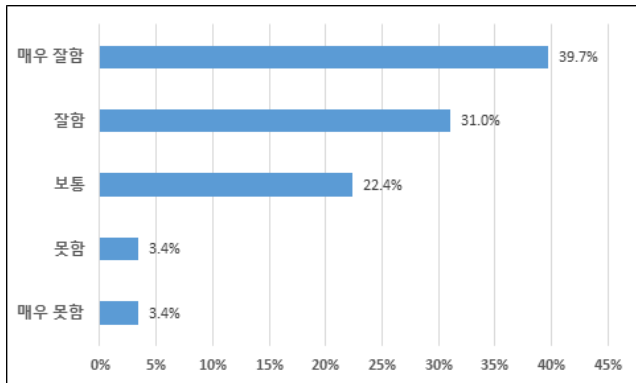
1) 대학기본역량진단 대응

총장의 대학기본역량진단 대응은 잘함과 매우 잘함이 각각 72명 (31.0%), 92명 (39.7%)로 긍정적인 평가가 70.7%로 매우 높으며, 특히 매우 잘함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못함과 매우 못함은 각각 8명 (3.4%), 8명 (3.4%)로 부정적인 평가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를 5점 척도를 나타내면 4.0로 대학 현안 항목 가운데 가장 높으며, 전체 설문 항목 중에서 두번째로 높다. 따라서 정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해 총장이 적절히 대응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81> 대학기본역량진단 대응

구분	빈도	비율
매우 잘함	92	39.7%
잘함	72	31.0%
보통	52	22.4%
못함	8	3.4%
매우 못함	8	3.4%
합계	232	100%
평균	4.00	

<그림 3-50> 대학기본역량진단 대응



단과대학별로 보면 치과대학이 5점 척도에서 4.53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사회과학대학으로 4.16이며, 인문대학이 3.3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최저점수도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편이며, 대부분 단과대학이 대학기본역량진단 대응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표 3-82> '대학기본역량진단 대응'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

단과대학	빈도 (비율)					빈도 합계	평균
	매우 못함	못함	보통	잘함	매우 잘함		
인문대학	3 (14.3%)	0 (0.0%)	8 (38.1%)	6 (28.6%)	4 (19.0%)	21	3.38
사회과학대학	2 (10.5%)	0 (0.0%)	2 (10.5%)	4 (21.1%)	11 (57.9%)	19	4.16
자연과학대학	2 (9.5%)	0 (0.0%)	8 (38.1%)	5 (23.8%)	6 (28.6%)	21	3.62
생명과학대학	0 (0.0%)	1 (3.4%)	6 (20.7%)	13 (44.8%)	9 (31.0%)	29	4.03
공과대학	0 (0.0%)	1 (5.0%)	6 (30.0%)	7 (35.0%)	6 (30.0%)	20	3.90
예술체육대학	0 (0.0%)	3 (15.0%)	6 (30.0%)	5 (25.0%)	6 (30.0%)	20	3.70
치과대학	0 (0.0%)	0 (0.0%)	1 (2.9%)	14 (41.2%)	19 (55.9%)	34	4.53
보건복지대학	1 (4.8%)	0 (0.0%)	6 (28.6%)	3 (14.3%)	11 (52.4%)	21	4.10
과학기술대학	0 (0.0%)	2 (7.1%)	7 (25.0%)	10 (35.7%)	9 (32.1%)	28	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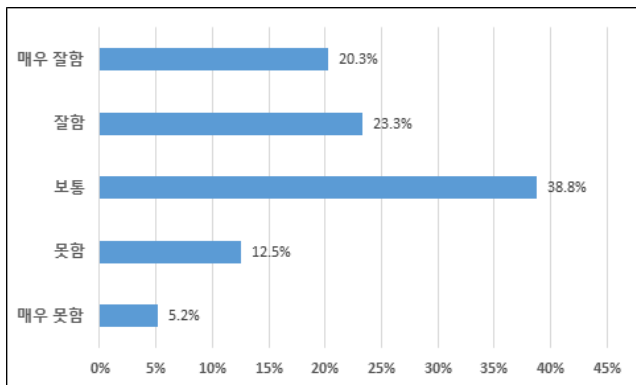
2) 신입생 유치

신입생 유치는 보통이 90명 (38.8%)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잘함과 매우 잘함이 각각 54명 (23.3%), 47명 (20.3%)로 나타났고, 못함과 매우 못함이 각각 29명 (12.5%), 12명 (5.2%)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긍정적인 평가는 43.6%로 상대적으로 낮고, 부정적인 평가는 17.7%로 다소 높은 편이다. 5점 척도로 나타내면 3.41로 대체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최근의 입학자원 감소에 따른 지원을 하락의 결과로 보여진다.

<표 3-83> 신입생 유치

구분	빈도	비율
매우 잘함	47	20.3%
잘함	54	23.3%
보통	90	38.8%
못함	29	12.5%
매우 못함	12	5.2%
합계	232	100%
평균	3.41	

<그림 3-51> 신입생 유치



단과대학별로 보면 치과대학이 5점 척도에서 4.0으로 가장 높고 자연과학대학과 공과대학이 각각 2.9, 2.9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평가점수가 2점대 후반~3점대 초반의 단과대학이 많으며, 따라서 신입생 유치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낮은 편이다.

<표 3-84> '신입생 유치'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

단과대학	빈도 (비율)					빈도 합계	평균
	매우 못함	못함	보통	잘함	매우 잘함		
인문대학	2 (9.5%)	6 (28.6%)	5 (23.8%)	6 (28.6%)	2 (9.5%)	21	3.00
사회과학대학	2 (10.5%)	1 (5.3%)	3 (15.8%)	6 (31.6%)	7 (36.8%)	19	3.79
자연과학대학	2 (9.5%)	4 (19.0%)	10 (47.6%)	4 (19.0%)	1 (4.8%)	21	2.90
생명과학대학	2 (6.9%)	5 (17.2%)	12 (41.4%)	7 (24.1%)	3 (10.3%)	29	3.14
공과대학	2 (10.0%)	2 (10.0%)	11 (55.0%)	5 (25.0%)	0 (0.0%)	20	2.95
예술체육대학	1 (5.0%)	3 (15.0%)	9 (45.0%)	2 (10.0%)	5 (25.0%)	20	3.35
치과대학	0 (0.0%)	0 (0.0%)	13 (38.2%)	8 (23.5%)	13 (38.2%)	34	4.00
보건복지대학	1 (4.8%)	3 (14.3%)	5 (23.8%)	7 (33.3%)	5 (23.8%)	21	3.57
과학기술대학	0 (0.0%)	5 (17.9%)	13 (46.4%)	5 (17.9%)	5 (17.9%)	28	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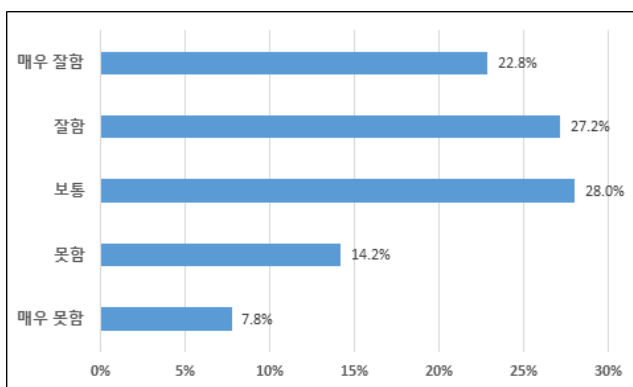
3) 대학구조조정 진행

대학구조조정 진행은 잘함과 매우 잘함이 각각 64명 (27.2%), 53명 (22.8%)이고, 못함과 매우 못함이 각각 33명 (14.2%), 18명 (7.8%)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평가가 50.0%로 응답자의 절반이고 부정적인 평가가 22.0%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5점 척도로 나타내면 3.43으로 대학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학과 통폐합 등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생각을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표 3-85> 대학구조조정 진행

구분	빈도	비율
매우 잘함	53	22.8%
잘함	63	27.2%
보통	65	28.0%
못함	33	14.2%
매우 못함	18	7.8%
합계	232	100%
평균	3.43	

<그림 3-52> 대학구조조정 진행



단과대학별로 보면 치과대학이 5점 척도에서 각각 4.2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예술체육대학으로 3.60이며, 인문대학과 자연과학대학이 각각 2.71, 2.8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평가점수의 편차가 크며, 평가가 낮은 단과대학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3-86> '대학구조조정 진행'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

단과대학	빈도 (비율)					빈도 합계	평균
	매우 못함	못함	보통	잘함	매우 잘함		
인문대학	4 (19.0%)	6 (28.6%)	6 (28.6%)	2 (9.5%)	3 (14.3%)	21	2.71
사회과학대학	5 (26.3%)	1 (5.3%)	1 (5.3%)	4 (21.1%)	8 (42.1%)	19	3.47
자연과학대학	2 (9.5%)	5 (23.8%)	9 (42.9%)	4 (19.0%)	1 (4.8%)	21	2.86
생명과학대학	3 (10.3%)	4 (13.8%)	10 (34.5%)	9 (31.0%)	3 (10.3%)	29	3.17
공과대학	1 (5.0%)	5 (25.0%)	8 (40.0%)	3 (15.0%)	3 (15.0%)	20	3.10
예술체육대학	1 (5.0%)	2 (10.0%)	6 (30.0%)	6 (30.0%)	5 (25.0%)	20	3.60
치과대학	0 (0.0%)	1 (2.9%)	5 (14.7%)	14 (41.2%)	14 (41.2%)	34	4.21
보건복지대학	1 (4.8%)	5 (23.8%)	4 (19.0%)	5 (23.8%)	6 (28.6%)	21	3.48
과학기술대학	1 (3.6%)	3 (10.7%)	9 (32.1%)	10 (35.7%)	5 (17.9%)	28	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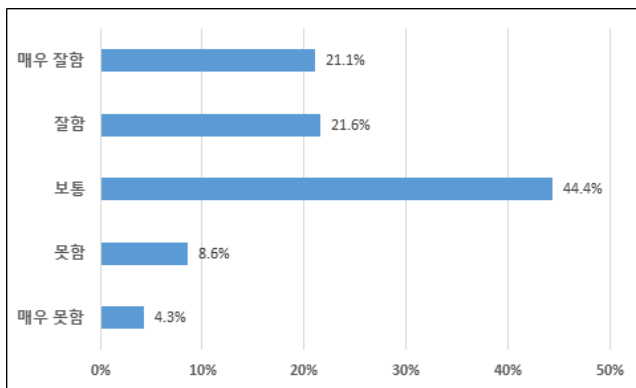
4) 학생 취업(인턴, 현장실습 등) 활동 지원

학생취업활동지원에 대해서는 보통이 103명 (44.4%)로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잘함과 매우 잘함이 각각 50명 (21.6%), 49명 (21.1%)로 집계되었으며, 따라서 긍정적인 평가는 42.7%로 나타났다. 5점 척도로 나타내면 3.47이며, 학생 취업 활동에 대한 학교의 지원은 중간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87> 학생 취업 활동 지원

구분	빈도	비율
매우 잘함	49	21.1%
잘함	50	21.6%
보통	103	44.4%
못함	20	8.6%
매우 못함	10	4.3%
합계	232	100%
평균	3.47	

<그림 3-53> 학생 취업 활동 지원



단과대학별로 보면 치과대학이 5점 척도에서 4.03으로 가장 높고 공과대학이 2.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공과대학은 그 다음 낮은 순위의 자연과학대학과도 0.4의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공과대학이 취업활동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88> '학생 취업(인턴, 현장실습 등) 활동 지원'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

단과대학	빈도 (비율)					빈도 합계	평균
	매우 못함	못함	보통	잘함	매우 잘함		
인문대학	2 (9.5%)	2 (9.5%)	11 (52.4%)	3 (14.3%)	3 (14.3%)	21	3.14
사회과학대학	3 (15.8%)	2 (10.5%)	2 (10.5%)	4 (21.1%)	8 (42.1%)	19	3.63
자연과학대학	0 (0.0%)	2 (9.5%)	16 (76.2%)	2 (9.5%)	1 (4.8%)	21	3.10
생명과학대학	1 (3.4%)	2 (6.9%)	16 (55.2%)	7 (24.1%)	3 (10.3%)	29	3.31
공과대학	3 (15.0%)	4 (20.0%)	9 (45.0%)	4 (20.0%)	0 (0.0%)	20	2.70
예술체육대학	0 (0.0%)	3 (15.0%)	7 (35.0%)	6 (30.0%)	4 (20.0%)	20	3.55
치과대학	0 (0.0%)	0 (0.0%)	11 (32.4%)	11 (32.4%)	12 (35.3%)	34	4.03
보건복지대학	1 (4.8%)	1 (4.8%)	9 (42.9%)	4 (19.0%)	6 (28.6%)	21	3.62
과학기술대학	0 (0.0%)	4 (14.3%)	14 (50.0%)	6 (21.4%)	4 (14.3%)	28	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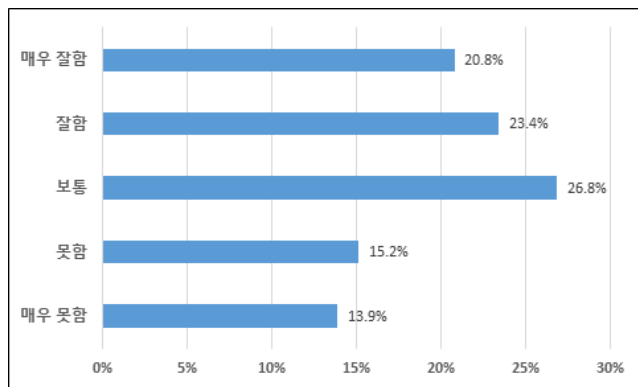
5) 2023년~2025년 입학정원조정 적절성

2023년~2025년 입학정원조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잘함과 매우 잘함이 각각 54명 (23.4%), 48명 (20.8%)이고, 못함 또는 매우 못함이 각각 35명 (15.2%), 32명 (13.9%)로 집계되었다. 긍정적인 평가는 44.2%로 괜찮은 편이지만, 부정적인 평가가 29.2%로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5점 척도로 나타내면 3.22로 전체 설문 항목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많은 학과들이 2023년~2025년 입학정원조정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89> 입학정원조정 적절성

구분	빈도	비율
매우 잘함	48	20.8%
잘함	54	23.4%
보통	62	26.8%
못함	35	15.2%
매우 못함	32	13.9%
합계	231	100%
평균	3.22	

<그림 3-54> 입학정원조정 적절성



단과대학별로 보면 치과대학이 5점 척도에서 4.2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예술체육대학으로 3.45이며, 두 단과대학은 큰 차이를 보인다. 평가가 가장 낮은 단과대학은 공과대학으로 2.3이고, 그 다음이 자연과학대학, 인문대학 순으로 각각 2.55, 2.76이다. 전체적으로 단과대학별 평가점수의 편차가 크며, 평가가 낮은 단과대학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3-90> '2023년~2025년 입학정원 조정 적절성'에 대한 단과대학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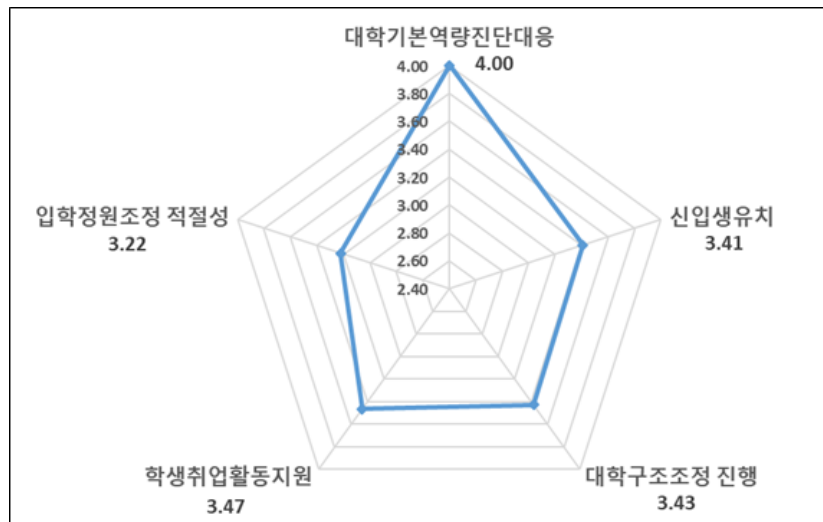
단과대학	빈도 (비율)					빈도 합계	평균
	매우 못함	못함	보통	잘함	매우 잘함		
인문대학	5 (23.8%)	5 (23.8%)	5 (23.8%)	2 (9.5%)	4 (19.0%)	21	2.76
사회과학대학	6 (31.6%)	0 (0.0%)	2 (10.5%)	4 (21.1%)	7 (36.8%)	19	3.32
자연과학대학	5 (25.0%)	4 (20.0%)	7 (35.0%)	3 (15.0%)	1 (5.0%)	20	2.55
생명과학대학	3 (10.3%)	4 (13.8%)	13 (44.8%)	7 (24.1%)	2 (6.9%)	29	3.03
공과대학	5 (25.0%)	7 (35.0%)	5 (25.0%)	3 (15.0%)	0 (0.0%)	20	2.30
예술체육대학	2 (10.0%)	2 (10.0%)	5 (25.0%)	7 (35.0%)	4 (20.0%)	20	3.45
치과대학	0 (0.0%)	0 (0.0%)	5 (14.7%)	14 (41.2%)	15 (44.1%)	34	4.29
보건복지대학	3 (14.3%)	3 (14.3%)	5 (23.8%)	5 (23.8%)	5 (23.8%)	21	3.29
과학기술대학	2 (7.1%)	8 (28.6%)	7 (25.0%)	7 (25.0%)	4 (14.3%)	28	3.11

6) 종합

대학 현안에 대해서는 대학기본역량진단 대응, 신입생 유치, 대학구조조정 진행, 학생취업활동지원, 2023년~2025년 입학정원조정의 적절성의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이들 5개 항목의 평균은 3.51이다. 다섯 가지 항목 중 대학기본역량진단대응이 4.0으로 가장 높았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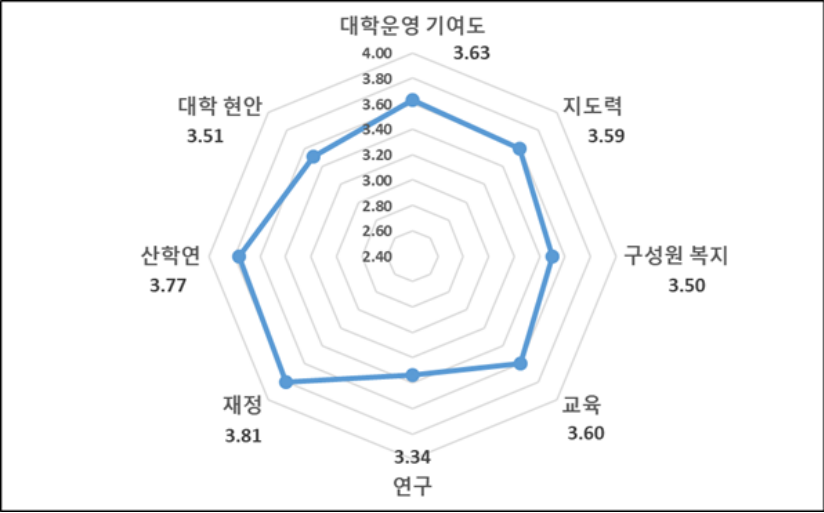
그 다음으로는 학생취업활동지원, 대학구조조정 진행, 신입생 유치의 순으로 각각 3.47, 3.43, 3.41이며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 네 개의 항목은 3대 총장 중간평가의 대학 현안의 결과와 비교할 때 평가점수가 향상되었다. 하지만 2023년~2025년 입학정원조정의 적절성은 3.22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고 대학 현안으로 포함한 전체 설문 항목 가운데 점수가 가장 낮았다. 이는 입학정원을 년차별로 점진적으로 줄이지 않고 2023년 입학정원을 한꺼번에 대폭 줄인데 따른 여러 학과 교수들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림 3-55> ‘대학 현안’ 평가 종합



10. 분야별 종합 분석결과

<그림 3-56> 분야별 평가 종합



제4대 총장 중간평가 설문은 대학 운영 기여도, 총장의 지도력, 구성원 복지, 교육, 연구, 재정, 산학연, 대학 현안의 8개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조사 결과 전체 항목의 평균은 3.59이다.

대학 운영에 대한 기여, 교육, 재정, 산학연, 4개 분야에서 평균 이상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고, 총장의 지도력 평점은 전체 평균과 일치한다. 구성원 복지, 연구, 대학 현안 3개 분야에서는 약간 미흡한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1. 자유응답

조사 설문 중 주관식 서술형은 1) 잘한 일과 그 이유, 2) 잘못된 일과 그 이유, 3) 총장에게 바라는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잘한 일과 그 이유

잘한 점에 대해 서술된 내용은 총 64건이었다. 재정 확충을 잘된 점이라 직접적으로 지적한 건수가 28건이고, 대학기본역량진단 등 평가 대응 8건, 캠퍼스 정비 및 시설 확충 7건을 포함하면 총 44건이 재정 확충과 관련된 것이다.

<표 3-91> 잘한 일과 그 이유

	잘한 일	이유
1	재정 안정	
2	국책과제 선정으로 대학재정에 도움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
3	대학 기본 역량 진단 대응	평가 좋음
4	지역 사회와의 교류 상생	
5	캠퍼스 정비	
6	역량 관련 데이터 관리	학교의 기본적 경쟁력 유지 노력
7	재정 확충	
8	정부 재정 지원 사업	대학 재정 확충
9	교육 환경 개선	전자칠판, 강의실 바닥
10	정부 재정 지원 사업 대응	LINC+사업등 정보지원사업 좋은 결과
11	외부 자원 유치 및 대학 평가 잘 받음	정부 재정 지원 사업(LINC3.0,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유치
12	정부재정사업 유치 강화	산학 활동에 있어 정부 R&D사업 역량 극대화
13	인사의 적정성	교내보직자 인선에 투명하고 능력 위주 배치
14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성공적 유치	대단히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으며, 학교 재정 확충 기여
15	재정 지원사업 선정	
16	산학협력강화, 대학발전 기여, 대학복지시설 확충	각종 지원사업 (LINC3.0, 유성 사업, 혁신사업 최우수 대학 선정,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원주캠 체육관 건립, 양 캠퍼스 도서관 리모델링)
17	산학연 재정 확충	폭넓은 사회 활동, 리더쉽
18	지역사회와 소통	대학 발전기금 확보 등에 적극 노력
19	재정사업 유치 사업	많이 확보
20	대학 재정 확충	국책사업 다수 수주
21	교수들 의견 수렴 반영 및 fund 수주 대응 잘함	
22	학교 평가 대처	
23	여러 재정 지원 사업 성취	
24	민주적 대학 운영	교내 교원간 소송 감소
25	학교 행정 혁신 및 대외 경쟁력 확보	단과대 행정실 통합 및 평가로 매년200억 달성

26	무난하고 매끄러운 행정	
27	외부자원사업, 평가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	LINC, 대학평가 최우수
28	대학기본역량진단 대응	3주기 평가를 잘 준비하여 통과하였음
29	대학의 전반적 정상화 운영	
30	시설 개설	대학다워짐
31	각종 숙원사업 해결	시설 및 재정
32	학교 내 시설 확충 및 개선	각종 학교 및 학생을 위한 노력 및 성과 확인
33	대학 기본 역량 진단 대응	
34	교직원과의 교류	
35	다수의 국가 지원 사업 유치	교내구성원(교수,직원,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 마련
36	정부 재정 자원 사업 수주	
37	재정 및 산학연 사업 유치	
38	교육 기본 시설 확충 및 개선	
39	강원대와 통합 추진	학교 생존의 문제
40	각종 대학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얻음	
41	대학 혁신에 주도적 참여	
42	대학기본역량진단3주기 일반 재정 지원 대학에 선정된 성과	선정 여부가 대학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선정과 탈락의 경계에서 어려움을 잘 극복했기 때문
43	현안 대응, 재정 운영	평가 수준 높았음, 회계 운영 효율화함
44	교육부 평가 대응	기준 통과
45	교육부 지원 사업 선정	학교 방전에 도움이 됨
46	해람지 오리 보호용 울타리 설치	자연 보호 의식 철저
47	covid-19 대응기간 대학 운영	어렵고 힘든 시기에 대학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함
48	시설 확충	스포츠 볼렉스 등 시설 확충 잘하고 계십니다
49	대학 발전 전략 추진	중장기 계획
50	교육부의 사업 유치 및 교육 재정 확보	이전 총장에 비하여 사업 유치 실적이 우수함
51	구성원 간의 화합, 교내 시설 확충(운동장 등)	
52	대학 재정 지원 사업	
53	국가 사업 유치 (LINC)	재정 확보
54	학교 운영	
55	학교 외관 정비 (운동장, 치대 쪽 문 설치)	
56	재정 상태 유지	교육부 지원 사업들 다수 유치
57	정부 재정 지원 유치	
58	지속적인 학교발전과 외부 재정지원사업 유치	외부재정지원 사업 유치로 인해 학교의 재정확대
59	학생 복지 지원,교수 연구 지원	조금씩 향상되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60	재정 확충	재정 지원 사업 수주
61	강원대학교와의 통합 진행 및 가시화	강릉 원주대학교의 미래에 중요한 부분임
62	도서관 등의 건물 리모델링 및 운동장과 종합체육관 건축 (원주캠퍼스)	학생 및 교직원 복지에 기여, 시민들의 활용에도 기여
63	무난하심	특별한 일이 없고 교원간에 무탈

64	코로나 방역, 비대면 운영	최근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얼어붙었던 소통의 장을 확대해나가는 것
----	----------------	-------------------------------------

2) 잘못된 일과 그 이유

잘못한 일에 대해 서술한 건수는 총 55건이다. 학과 통폐합을 포함하여 정원조정과 관련된 것이 20건이었고, 인사(주로 보직)상의 지적이 11건이었다. 대학원을 포함하여 연구지원 확충을 지정한 것이 9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수지만 소통 및 의사 반영, 신입생 유치 홍보, 취업지원 등에 관한 지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92> 잘못된 일과 그 이유

	못한 일	이유
1	대학생 정원 조정 관련	신문 · 미디어학과 신설
2	대학 구조 조정 과정 비합리성	2025학년도에 감축해도 될 일을 선제적으로 153명 감축. 독문과 신입생모집 불합리한 방식으로 정지후 폐과수준을 밝은 일
3	인사 문제	
4	교수 처우개선 미비, 연구소 지원 부족	
5	교수 채용 등에서 총장 권한 강화 · 남용	학과의 자율성 침해 부당한 간섭과 비교육적 · 비학문적 일처리
6	대학통합문제에 대한 구성원 의견 청취	대학의 미래를 위한 신중한 결정
7	구조개혁	유사학과 통폐합
8	2023~2025년 입학정원조정	단계적 조정 필요
9	강원 국립대 1도 1대학 통합	강원대학교와의 통합 부진
10	입학정원 감축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줄였음
11	입학정원 조정	정원조정의 필요성은 있으나 지나치게 선제적 대응으로 희생되는 구성원 발생
12	입학정원 과대 축소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학교가 재정확충을 위해 인원감축을 쉽게 단행
13	대학 구조 조정	기초 학문 관련 학과는 인원감소선에서 진행 (폐과는 피했어야 했음)
14	구조조정, 학교 홍보 (입시)	학과 내 트러블, 홍보 미흡에 의한 신입생 유치 실패
15	기숙사와 식당의 식사 질 저하	학생들이 식사가 맛없어서 체력 저하
16	입학정원사전예고제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함	교육부로부터 학생수 의무감축 10%를 패널티로 받고 학생수 15%감축
17	입학정원축소	행정관리 부적절
18	교직원의 연구 환경, 연구시설, 연구비에 대한 지원 및 확충이 타대학에 비해 현저히 부족함	이는 우수한 전임교원 유치에 걸림돌이 됨
19	강원대와의 통합추진 목표 달성 미흡	
20	단과대학 예단 자율성 감소	단과대학 자체 사업의 여지가 없음
21	비교적 양호하나 신입생 유치 및 취업률에서 다른부분보다는덜잘함	
22	임용관련	객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 교직원들 사이에서 교수 임용관련 부적절한 것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음

23	대학원 활성화	대학원 활성화 대책 전무
24	학생 취업 활동 지원, 대학 구조 조정	
25	선제적인 학생 입학 정원 감축	
26	학과 통폐합	학문 분야의 특성 무시, 재정적 이유만으로 학과 통폐합 및 정원 조정
27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움	대학운영, 지도력, 구성원 복지, 교육 연구 역량 강화 등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보이지 않음
28	인선	능력보다 인간관계 중심
29	보직자 인선	인맥을 통한 배치
30	농공행성에 따른 보직 인사	
31	민주적 운영	의사반영이 잘 안됨
32	특별히 못한 일은 없는 것 같음 다만 정책 추진(개선) 체감이 낮음	
33	대학 구조 조정, 대학원 지원	교육 의사 반영 부족, 대학원 지원은 매우 부족
34	인사	인사는 만사, 측근 행정의 폐해
35	모집 정원 감축 사안의 대응	사안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간 합의 과정이 적절하지 못함
36	소통 부재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총장과 소통 미약(일방적 의견 청취)
37	산학 연관 연계	산학연 재정 확충, 글러스터 강화 미약
38	연구 역량 강화	대학의 연구지표가(논문, 연구비) 전국 국공립대 최하위 수준임
39	대학의 연구, 교육, 역량 향상에 역할을 못함	
40	대학 구조 조정	다른 대학과 비교하였을 때도 정원 감축, 학과 통합의 무리수
41	대학원 지원	대학원생이 많은 연구실은 대학원생 등록금 지원이 너무 부족함
42	연구 지원 분야	대학원 제도의 미흡성
43	정원을 1년마다 조금씩 줄이지 않고 한꺼번에 많이 줄인 것	
44	주요 보직자 인선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함
45	주요 보직자 인선 및 교수의 잡무 비율 증가	
46	신입생 유치 홍보	신입생 등록을 저하
47	폐과	
48	153명 정원 조정 (교육부, 정부에서 강권할 사항도 아님)	영구적인 손실
49	평교수들의 연구지원활동 및 연구년 수혜 확대	5년 규정이 있어도 단과 대학별 인원 배정 때문에 10년에 1회
50	정원 감축 153명	충분한 논의, 소통, 교육부 정책 반영없이 감축하여 학교에 실익 없음
51	의사결정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하지 못하고 치우친 경향이 있음	
52	인사	부총장, 처장, 학장 등의 인사에 너무 개인적 친분과 인맥을 고려
53	인사	능력보다는 인맥 활용
54	강원대학교와의 통합에 대한 마무리	가시화는 했으나 결과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음
55	학부 교육	방향 착오 (전고 대비 교양, 비교과 비대화)

3) 총장에게 바라는 점

제4대 총장에게 바라는 점에 대해 서술한 것은 총 61건이다. 모두 학교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적들이만 도내 1대학 통합에 관한 서술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표 3-93> 총장에게 바라는 점

	총장에게 바라는 점
1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2	강원대 통합
3	학교 발전을 위해 다른 대학과의 통합
4	불필요하게 강화된 총장 권한을 원상태로 돌리고 교과운영 채용 등 각 학과의 자율성 존중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5	교직원 및 학생의 복지 증진 → 학교 시설물 관리 유지보수(화장실)
6	우리 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책임지고 전공분야의 전문가 교육하겠다는 마음가짐과 실천
7	대학교명의 변경을 위해 강원대와 통합을 추진, 강릉원주대 교명 변경 요구 강원대 강릉캠퍼스, 원주캠퍼스 교명변경으로 경쟁력 강화 요구
8	산학협력단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 → 적극적인 관심 및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 안정적인 지원제도 속 산학협력교원이 되도록 관심
9	강원대와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
10	강원대와의 통합 적극적 추진 단순 연합대학이 아닌 유의미한 통합이 되려면 인사와 조직 측면의 손해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인 추진 필요
11	양 캠퍼스 간 균형있는 내실화 도모
12	강원대학교와 통합 등 완수
13	기획분야 및 사업단(산단 포함) 기능 확대를 통한 대학재정 확충 및 신장 역량 확대
14	수도권 신입생 유치를 위한 교통비 지원 사업 유치 학교의 우수성을 알릴수 있는 학교차원에서의 입시홍보가 적극적으로 추진
15	공정한 행적에 의한 학교 운영
16	지속가능한 대학이 되도록
17	학생들의 편의시설 확충, 식당의 식사의 질 개선, 냉난방 시스템 수리 → 충원을 상승 및 유지에 필요함
18	학교에 손해·피해만 입힘
19	무능력하므로 별 기대 없음, 창의적 행정은 불가능해보이므로 사고나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20	강원대와의 통합문제 해결, 원만한 조율, 구체화된 실행전략 수립
21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기
22	학내 구성원과 소통 화합
23	강원대와의 통합을 위한 기반조성
24	단과대학별 관서 운영비 증액 등 단과대학별 사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25	강원대 통합
26	치과대학 및 치과병원 발전에 지속적인 지원 부탁
27	무리하지 마시고 현행 유지 부탁
28	대학원에 관한 제도(등록금 등) 개선
29	교연학지에 있어 불인정 요소가 너무 많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불인정 이해가 안 됨
30	교수(교직원)의 복지제도 개선(교연비)

31	강원대·강릉원주대 통합 관련 구체적 전략 추진 요청. 지방의 작은 규모의 대학으로서 향후 더 단단한 대학이자 발전가능성을 가진 학교로 성장할 수 있는 대학의 혁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 좀더 강한 대학의 강점을 강화, 구조적으로도 단단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대학통합안의 본격추진을 요청
32	교수, 대학원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합 교육 기능 개선
33	구조 조정에 대응 잘하길
34	마지막까지 학교를 위해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35	강원대 통합 추진
36	강원대와의 통합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결론 지어지길 바람
37	기층 학과의 의견 적극 수렴하려는 자세, 직원의 행정 서비스 개선,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 일처리가 문제
38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39	연구 인센티브 확충, 해외(국제) 논문 DB 접근 확충
40	총장 선거에서의 공약 사함을 제점검하고 공약의 지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지킬 수 없는 부분은 그 이유를 구성원들에게 설득력있게 설명해주기를 바람
41	계획 완성 추진
42	고생하셨습니다
43	지역내 대학 인지도 향상, 단과대 및 학과 자율성 향상
44	남은 임기 눈치없이 학교 발전에 과감히 혁신을 도입하여 학교 미래 발전에 큰 초석을 놓으시길 바람
45	강원대와 통합 적극 추진, 학과 정원 조정 합리화 (총원률이 능사는 아님)
46	강원대와의 연합 대학 추진의 공명 정당성과 학교의 위상 추락에 따른 종속 관계가 되지 않도록 대등한 협상 및 협의의 체구성 필요, 우수한 신입 교원 및 신입생 유치를 위한 융복합 학문 및 글로벌화 시급
47	코로나 이후 로스트 코로나 시기에 국제적 교류 활동 증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학생들 실습활동 강화에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	신입생 유치를 위해 학교 홍보 비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강릉시 강원도와의 협의를 통해 영동 고속도로 출구 중 한 곳에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이정표를 설치하는 것이라 생각함. 강원도 방문객(관광객) 증가 고려
49	감사합니다
50	산학연관 교육 분야 강화
51	투명한 운영
52	교수의 연구역량 확충위해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확대 대학원생이 많은 연구실 지원을 늘려주기 바람 (대학원생 등록금 지원확대 요망)
53	교육 중심과 더불어서 연구 분야에도 중점적 지원이 필요함
54	학과별 재학생 총원률을 위한 프로그램 유치 목적 재정 지원
55	신입생 유치 홍보 활동에 총력
56	교수간 갑질 근절 대책 마련
57	도내 1대학으로의 통합과 재정의 지속적인 확대, 교수의 연구 지원
58	강릉원주대가 살아남기 위해 단기 plan이 아닌 장기 plan을 반드시 세워주시고 결과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59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람
60	학부 전공 교육 강화, 불필요한 교수/ 비교과/ 교양 축소, 산학/ 취업/ 진로 지원 강화
61	강릉뿐만 아니라 원주캠퍼스 주위 환경 개선과 학생들을 위한 시설 개선 필요 특히, 예술관(기숙사) 리모델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IV. 총장 공약사항 이행정도 분석평가

1. 교육

<표 4-1> 교육 분야 - 총장 공약사항 이행정도 평가

주요 내용	종합평가			평가내용	
	상	중	하	세부내용	대학본부에서 제시한 실적
고차적 창의인재 양성		○			
양질의 교육		○		대학 교육 목적에 부합한 인성과 역량 교육 강화	■ 교양교과목 신설, 변경, 폐지 기준 마련 및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전부개정 ('20년) ■ 교육목표 부합성 강화를 위한 이수구분별 핵심역량 설정 및 역량기반 수업계획서, 편람 개선 ('20년) ■ 핵심역량 G-CA+ 진단 의무화 및 역량 기반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교양 CQI 제출 의무화 ('20년) ■ 창의인성 및 Keystone 교양 교과 브랜드화, 지역연계 인성캠프 운영 등 Keystone 교과 학생만족도 향상 ('19년 3.42 → '20년 3.57) ■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강화 및 해람프로보노 봉사단 운영 ■ 인성교과목 개발 및 교육과정 편성 ('20년 교육과정 개편 시 특별교양 영역에 '진로개발과 사회봉사', '체험중심 인성함양' 신설)
				학습성향 진단·분석을 통한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 플립러닝 교과목 ('19년 2개 → '20년 5개) 및 내가 디자인하는 교양교과목 공모전 ('19년 1개 → '20년 3개) 운영 활성화, 교양 교과 개발 공모에 따라 교과목 신설 ('20년 사회수요 5개, 인성함양 3개, 역량제고 3개, 통일 2개) ■ 교양교육과정 자기설계전공 공모전 도입 ('20년) ■ 이러닝 교양 교과목 개발 및 이러닝 강좌 개설 확대 ('19년 4.07점, '20년 4.21점)
				맞춤형 진로교육 제공을 통한 취업역량강화	■ 취업준비역량진단도구(G-CAP) 개발 ('20년) ■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체계 및 One-Stop 창업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온·오프라인 진로·취업집중준비주간 ■ 4차 산업혁명 대응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AI면접, 3D프린터 교육 등 ■ 자기주도적 취업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학생생활 상담 프로그램 지원 강화	■ 대학생활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FAM 제도를 활용한 학생진로 설계 지원 ■ 진로심리상담 1인3담 프로그램 체계화 및 운영 ■ 진단 유형에 맞는 맞춤형 지도 상담프로그램 운영 ■ 학생주기별 맞춤형 학생지도 관리 로드맵 구축 ■ 학생경력관리 온라인 시스템 운영 ■ 다양한 상담채널 확보 및 지원

학사 제도의 유연화		○	창의·융합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사제도의 유연화 실현	■ 융복합 연계전공 및 전공트랙제 활성화 ■ 문제해결형 전공 교과목 활성화 (PBL, 캡스톤 디자인 등) ■ 현장밀착형 교육과정 지원 (현장실습 선도 모델로 학과주도형 현장실습 성과 확산)
학습 환경 스마트화	○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교육방법 및 평가 유연화 추진	■ 맞춤형 교수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 체계적인 온/오프라인 교육지원 제도 수립 ■ 4C 기반의 Quality Faculty 모델 개발 ■ 참여 중심의 Active Learning 수업 지원을 위한 학습관리시스템(LMS) 환경개선서버 확충, 통합 인재양성시스템(HIGH) 구축 ('20년)
			창의·융합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의 지속적 개선	■ 화상강의 시스템 개선 스튜디오 구축과 온 라인 원격도우미 배치를 통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 확대 ■ 교내 전산망(해람인의 e참똥) 기능 개선 ('20.8월)을 통한 온라인 교육 인프라 개선 ■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자료 확충 및 서비스 지원(국내외 전자저널 및 전자자료 구독 확대)
			EdTech Platform 구축	■ 학습관리시스템(LMS) 환경개선서버 확충 ■ 통합인재양성시스템(HIGH) 구축 ('20년)

제4대 총장의 교육분야 공약은 ‘고차적 창의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3개의 주요 항목 첫째 ‘양질의 교육’, 둘째 ‘학사 제도의 유연화’, 셋째 ‘학습환경 스마트화’가 제시되었다. 3개의 주요 항목마다 다수의 세부 항목이 제시되었으며, 각 항목별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질의 교육’ 주요 항목의 세부 항목은 ‘대학 교육 목적에 부합한 인성과 역량 교육 강화’, ‘학습성향 진단·분석을 통한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맞춤형 진로교육 제공을 통한 취업역량강화’, ‘학생생활 상담 프로그램 지원 강화’가 제시되었다. 둘째 ‘학사 제도의 유연화’ 주요 항목의 세부 항목은 ‘창의·융합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사제도의 유연화 실현’이 제시되었다. 셋째 ‘학습환경 스마트화’ 주요 항목의 세부 항목은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교육방법 및 평가 유연화 추진’, ‘창의·융합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의 지속적 개선’ ‘EdTech Platform 구축’이 제시되었다.

상기의 공약 중, ‘양질의 교육’의 ‘대학 교육 목적에 부합한 인성과 역량 교육 강화’, ‘학습성향 진단·분석을 통한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맞춤형 진로교육 제공을 통한 취업역량강화’, ‘학생생활 상담 프로그램 지원 강화’ 및 학생생활 상담 프로그램 지원 강화와 ‘학습 환경 스마트화’의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교육방법 및 평가 유연화 추진’, ‘창의·융합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의 지속적 개선’ 및 ‘EdTech Platform 구축’은 공약대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학사 제도의 유연화’의 ‘창의·융합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사제도의 유연화 실현’은 일부 공약사항 이행도가 낮거나,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였으며, 향후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대로 추진된 7개의 세부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교육 목적에 부합한 인성과 역량 교육 강화’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① 교양교과목 신설, 변경, 폐지 기준 마련 및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전부개정('20년), ② 교육목표 부합성 강화를 위한 이수구분별 핵심역량 설정 및 역량기반 수업계획서, 편람 개선('20년), ③ 핵심역량 G-CA+ 진단 의무화 및 역량 기반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교양 CQI 제출 의무화('20년), ④ 창의인성 및 Keystone 교양 교과 브랜드화, 지역연계 인성캠프 운영 등 Keystone 교과 학생만족도 향

상 ('19년 3.42 → '20년 3.57), ⑤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강화 및 해람프로보노 봉사단 운영, ⑥ 인성교과목 개발 및 교육과정 편성('20년 교육과정 개편 시 특별교양 영역에 '진로개발과 사회봉사', '체험중심 인성함양' 신설) 등이 있으며, 공약대로 추진되었다. 둘째 '학습성향 진단·분석을 통한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① 플립러닝 교과목('19년 2개 → '20년 5개) 및 내가 디자인하는 교양교과목 공모전('19년 1개 → '20년 3개) 운영 활성화, 교양교과 개발 공모에 따라 교과목 신설('20년 사회수요 5개, 인성함양 3개, 역량제고 3개, 통일 2개), ② 교양교육과정 자기설계전공 공모전 도입('20년), ③ 이러닝 교양 교과목 개발 및 이러닝 강좌 개설 확대('19년 4.07점, '20년 4.21점) 등이 있으며, 공약대로 추진되었다. 셋째 '맞춤형 진로교육 제공을 통한 취업역량강화'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① 취업준비역량진단도구(G-CAP) 개발('20년), ②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체계 및 One-Stop 창업지원시스템 구축·운영, ③ 온·오프라인 진로·취업집중준비주간, ③ 4차 산업혁명 대응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AI면접, 3D프린터 교육 등, ④ 자기주도적 취업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등이 있으며, 공약대로 추진되었다. 넷째 '학생생활 상담 프로그램 지원 강화'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① 대학생활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② FAM 제도를 활용한 학생진로 설계 지원, ③ 진로심리상담 1心3談 프로그램 체계화 및 운영, ④ 진단 유형에 맞는 맞춤형 지도 상담프로그램 운영, ⑤ 학생주기별 맞춤형 학생지도 관리 로드맵 구축, ⑥ 학생경력관리 온라인 시스템 운영, ⑦ 다양한 상담채널 확보 및 지원 등이 있으며, 공약대로 추진되었다. 다섯째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교육방법 및 평가 유연화 추진'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① 맞춤형 교수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② 체계적인 온/오프라인 교육지원 제도 수립, ③ 4C 기반의 Quality Faculty 모델 개발, ④ 참여 중심의 Active Learning 수업 지원을 위한 학습관리시스템(LMS) 환경개선·서버 확충, 통합인재양성시스템(HIGH) 구축('20년) 등이 있으며, 공약대로 추진되었다. 여섯째 '창의·융합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의 지속적 개선'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① 화상강의 시스템 개선 스튜디오 구축과 온라인 원격도우미 배치를 통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 확대, ② 교내 전산망(해람인의 e참뜰) 기능 개선('20.8월)을 통한 온라인 교육 인프라 개선, ③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자료 확충 및 서비스 지원(국내외 전자저널 및 전자자료 구독 확대) 등이 있으며, 공약대로 추진되었다. 일곱번째 'EdTech Platform 구축'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① 학습관리시스템(LMS) 환경개선·서버 확충, ② 통합인재양성시스템(HIGH) 구축('20년) 등이 있으며, 공약대로 추진되었다.

한편 '학사 제도의 유연화'의 '창의·융합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사제도의 유연화 실현'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① 융복합 연계전공 및 전공트랙제 활성화, ② 문제해결형 전공 교과목 활성화(PBL, 캡스톤디자인 등), ③ 현장밀착형 교육과정 지원(현장실습 선도모델로 학과주도형 현장실습 성과 확산) 등이 있으나 일부 공약사항 이행도가 낮거나,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였으며, 향후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

<표 4-2> 연구 분야 - 총장 공약사항 이행정도 평가

주요 내용	종합평가			평가내용	
	상	중	하	세부내용	대학본부에서 제시한 실적
미래 지향적 융합연구·산학 협력 지원		○			
연구 및 산학 인센티브 강화		○		1인 1TA 지원 등 연구 지원 다양화	■ 학문 후속세대 양성 및 우수 연구인력 육성을 위한 대학원생 대상 전일제 장학금 지원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석사과정 운영 ('20학년도 의료기기융복합학과, 웰니스바이오산업학과) ■ 학술대회 참가경비, 연구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한 학문 교류 기회제공 및 대학원생 연구 의욕 고취
				교육·연구·학생지도비의 인정 항목 다양화와 증액 추진	■ 2022학년도 90,000천원 증액 ※ 21년도 7,208백만원 → 22년도 7,292백만원 ■ 4S 교수교육역량강화 관련 지표 신설 및 교연비 시스템 고도화 추진
연구 인프라 지원 확대		○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강화	■ 단과대학 연구소별 맞춤형 연구지원 (9개 연구소, '20년 48,000천원) 및 단과대학 부속연구소 특성화추진 (동해안생명과학연구원 방재연구소) ■ 연구장려금 지원 ('20년 58명, 47,773천원), 연구과제 신청 소요경비 지원 ('20년 37건, 21,488천원), 연구책임자 성과급 지급 ('20년 127명 51,000천원) ■ 학-석사연계 과정, 협동과정 운영을 통한 현장맞춤형 전문가 양성 ■ 교수 개인별 맞춤형 연구지원을 위한 산학협력단 '찾아가는 연구자 안내서비스' 시행 ('20년 64회) ■ 비전임교원의 연구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연구교수 논문게재료 지원, 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급, 강사 학술활동 지원금 지급
				연구·기술 이전·취·창업·연구 투자의 선순환적 시스템 확립	■ 연구수주 활성화를 위한 연구과제 신청 경비 지원제도 개선 - 대형국책사업 수주 시 추가 지원금 지원 ('20년) - 개인연구과제 연구비 규모별 지원액 상향 ('21년) ■ 연구물입환경 조성을 위한 우수 연구자 연구 활동 지원제도 및 신임교원 연구 활동 지원제도 신설 ('21년), 실험실 운영 지원제도 신설 ('22년) ■ 연구성과 창출·확산을 위한 영여논문게재료·교정료 지원 확대 ('20년 연 70만원 → '21년 연 200만원) ■ 학문간 연구기반 구축 등을 위한 중점연구과제 연구회 지원 분야 확대 - 신진 연구자 R&BD 지원 분야 ('20년) - 교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분야 ('21년)

					■ 산학협력 네트워크 활동을 위한 기업과 대학의 정보교류 공간으로 온라인 공동 활용 화상회의실 구축 (6개소('20년 4개소, '21년 2개소))
산·학·연·관 연계 클러스터 강화	○			산·학·연·관 협력 다변화 및 공간적 융합환경 조성	■ 총 28,331,025천원(국고, 11,788,500천원, 지방비 8,000,000천원 등)의 사업비 지원 ■ 문막반계 산업단지에 8,311m²(2,514평) 규모의 산학융합캠퍼스를 구축하여 행복한 신(新)강원 시대를 열어갈 글로벌 최첨단산업단지로 조성('23년 9월) - 산업단지캠퍼스 3,937m², 기업연구관 4,134m², 문화·복지시설 240m² (층별분리 운영) ■ 산학캠퍼스관 기업연구관 문화복지시설이 하나의 건물에 집적화 된 복합 기능을 제공 ■ 산학연이 함께하는 융복합 인재양성 및 선도 기술개발 허브 완성
				국가 및 지역의 미래전략산업과 연계된 대학 특성화 분야 구축 강화	■ 대학의 대내외 환경변화 및 혁신 요구에 따라 체계적인 환경분석을 통해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 고도화 수립('20년) - 비교우위 분야 집중 및 지역 전략산업 분석에 따라 대학 특성화 분야로 웰니스식품, 세라믹 복합신소재, 레저휴양지식서비스, 해양신산업 바이오헬스케어 및 융합형 의료기기 산업 선정 ■ 우리대학 특성화 분야와 연계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강원지역플랫폼에 수소에너지분야 중심대학으로 선정('22년) 및 디지털헬스케어, 정밀의료사업 참여

총장의 공약내용 중 연구분야 부문에서는 '미래 지향적 융합연구·산학협력 지원'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3개의 주요 항목 첫째 '연구 및 산학 인센티브 강화', 둘째 '연구 인프라 지원 확대', 셋째 '산·학·연·관 연계 클러스터 강화'가 제시되었다. 3개의 주요 항목마다 다수의 세부 항목이 제시되었으며, 각 항목별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및 산학 인센티브 강화성' 주요 항목의 세부 항목은 '1인 1TA 지원 등 연구 지원 다양화', '교육·연구·학생지도비의 인정 항목 다양화와 증액 추진'이 제시되었다. 둘째 '연구 인프라 지원 확대' 주요 항목의 세부 항목은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강화', '연구·기술 이전·취·창업·연구 투자의 선순환적 시스템 확립'이 제시되었다. 셋째 '산·학·연·관 연계 클러스터 강화' 주요 항목의 세부 항목은 '산·학·연·관 협력 다변화 및 공간적 융합 환경 조성', '국가 및 지역의 미래전략산업과 연계된 대학 특성화 분야 구축 강화'가 제시되었다.

상기의 공약 중, '성과중심의 업적평가 및 인사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행정지원 효율화를 위한 체계 개선' '즐겁고 신나는 학생복지', '캠퍼스 공간 활용 및 안전캠퍼스 실현'은 공약대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소통·협력의 조직문화 구축', '교수복지 증대 및 개선', '직원복지 증대 및 개선' 등은 일부 공약사항 이행도가 낮거나,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대로 추진된 5개의 세부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인 1TA 지원 등 연구 지원 다양화'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① 학문 후속세대 양성 및 우수 연구인력 육성을

위한 대학원생 대상 전일제 장학금 지원, ② 학술대회 참가경비, 연구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한 학문 교류 기회제공 및 대학원생 연구 의욕 고취 등이 있으며, 공약대로 추진되었다. 둘째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강화`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① 단과대학 연구소별 맞춤형 연구지원(9개 연구소, '20년 48,000천원) 및 단과대학 부속연구소 특성화추진(동해안생명과학연구원, 방재연구소), ② 연구장려금 지원('20년 58명, 47,773천원), 연구과제 신청 소요경비 지원('20년 37건, 21,488천원), 연구책임자 성과급 지급('20년 127명 51,000천원), ③ 비전임교원의 연구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연구교수 논문게재료 지원, 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급, 강사 학술활동 지원금 지급 등이 있으며, 공약대로 추진되었다. 셋째 `연구·기술 이전·취·창업·연구 투자의 선순환적 시스템 확립`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① 단과대학 연구소별 맞춤형 연구지원(9개 연구소, '20년 48,000천원) 및 단과대학 부속연구소 특성화추진(동해안생명과학연구원, 방재연구소), ② 연구장려금 지원('20년 58명, 47,773천원), 연구과제 신청 소요경비 지원('20년 37건, 21,488천원), 연구책임자 성과급 지급('20년 127명 51,000천원), ③ 비전임교원의 연구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연구교수 논문게재료 지원, 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급, 강사 학술활동 지원금 지급 등이 있으며, 공약대로 추진되었다. 넷째 `산·학·연·관 협력 다변화 및 공간적 융합환경 조성`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① 총 28,331,025천원(국고, 11,788,500천원, 지방비 8,000,000천원 등)의 사업비 지원, ② 문막반계 산업단지에 8,311㎡(2,514평) 규모의 산학융합캠퍼스를 구축하여 행복한 신(新)강원 시대를 열어갈 글로벌 최첨단산업단지로 조성('23년 9월) - 산업단지캠퍼스 3,937㎡, 기업연구관 4,134㎡, 문화·복지시설 240㎡(층별분리 운영), ③ 산학캠퍼스관, 기업연구관, 문화복지시설이 하나의 건물에 집적화 된 복합 기능을 제공, ④ 산학연이 함께하는 융복합 인재양성 및 선도 기술개발 허브 완성 등이 있으며, 공약대로 추진되었다. 다섯째 `국가 및 지역의 미래전략산업과 연계된 대학 특성화 분야 구축 강화`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① 대학의 대내외 환경변화 및 혁신 요구에 따라 체계적인 환경분석을 통해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고도화 수립('20년) - 비교우위 분야 집중 및 지역 전략산업 분석에 따라 대학 특성화 분야로 웰니스식품, 세라믹복합신소재, 레저휴양지식서비스, 해양신산업, 바이오헬스케어 및 융합형 의료기기 산업 선정, ② 우리대학 특성화 분야와 연계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강원지역 플랫폼에 수소에너지분야 중심대학으로 선정('22년) 및 디지털헬스케어, 정밀의료사업 참여 등이 있으며, 공약대로 추진되었다.

공약 이행 속도를 다소 올려야 하는 1개의 세부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연구·학생지도비의 인정 항목 다양화와 증액 추진`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① 2022학년도 90,000천원 증액 (21년도 7,208백만원 → 22년도 7,292백만원), ② 4S 교수교육역량강화 관련 지표 신설 및 교연비 시스템 고도화 추진 등이 있는데, 인정항목 다양화와 증액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지역사회/국제화

<표 4-3> 지역사회/국제화 분야 - 총장 공약사항 이행정도 평가

주요 내용	종합평가			평가내용	
	상	중	하	세부 내용	대학본부에서 제시한 실적
지역과 대학 간 상호협력체계 안정화		○			
지역중심 국립 대학의 가치 제고	○			지역 가치를 높이는 열린 교육 실현	■ 지역친화형 KCC 교육체계 구축 ('20년 31,774천원) ■ FAM 기반 사다리프로젝트 운영 ('20년 45,778천원) ■ 지역친화형 체인지(體仁知) 비교과 프로그램 활성화 ('20년 152,995천원) ■ 지속가능형 지역친화 교육성과 공유 플랫폼 구축 ■ 지역친화적 교원업적평가 제도 개선 및 운영 ■ 지역친화 우수학과 인증제 운영 ('20년 51,839천원)
				지역주민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기능 확대	■ 지역민의 평생교육 확대 ('20년 13,360천원) ■ 국제 관광도시 육성을 위한 지역주민 외국어 교육 ('20년 수강인원 170명) ■ 교육재능기부 동아리 활동 (사회복지학과 및 다문화학과) ■ 들썹들썹 찾아가는 문화 공연 행사 프로그램 실시 (코로나19 대응 힐링프로그램으로 대체 운영, 2회 58명)
				지역 협력 거버넌스의 활용 극대화	■ 지역문제 해결 연구 ('20년 44,803천원) ■ 지역사회 기여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단과대학 연구소 단위 프로그램 운영 공모 및 지원 ■ Open Campus 및 라키비움 운영 (91,592천원) ■ 지역참여예산 제도 기반 Public College
				지역혁신연구원 설립	■ 실적 없음
지역과 대학간 네트워크 강화	○			지역 내 대학과 교류를 위한 연합대학(U-GW) 구축강화	■ 강원형 1도 1국립대학을 위한 강원도 국립대학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모델 개발 연구용역 추진 ('21.9)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선정 ('22.5)으로 도내 15개 대학과 지자체 산업체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분야별 인재양성, 기술혁신 등 사업 수행 ■ 지역 및 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추진 ('21년 75개 과제 중 72개 달성)
				지역혁신형 대학 사업 수주 노력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유치를 위한 스마트수소에너지 분야 정책연구 ('22.3~4월) 실시 및 강원지역 종합 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
					■ 6년 연속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2017년 ~ 2022년)

				지역 고교와의 유대 강화로 지역 우수학생 유치 체계 구축	■ 해양캠프 [친해지기], [고교생 멘토링 두런두런(do run do learn)] 등 대학의 특성화된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발굴 운영 ('21년 360명 참여) ■ 고교-대학 연계 정보 소외지역 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미리 가 본 대학 - '21년 351명 참여) ■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중·고교생 대상 진로체험 지원 (자유학기제 강화)
				지역 청소년과 학과 연계 학술활동 활성화	■ 지역 초·중·고교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0년 61,962천원) ■ 비대면 창의과학교실 개설 (80회) ■ 온라인 학과 체험 프로그램 (6개 학과) ■ 찾아가는 진로버스 운영 (4회, 76명)
국제적 마인드 함양 강화			○	국제교류의 양적 성장 및 질적 향상 추구	■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모집 방법 다양화 (국가별 온오프라인 유학박람회 참여 ('20.10~12월)) ■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기반 마련 (대학원 영문홈페이지 제작 운영, 유학생 직원/재학생 멘토링제 운영) ■ 유학생 대상 한국문화 탐방,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비대면 문화체험 원데이클래스 10회, 300명, 농촌현장체험, 유학생 평창 팸투어, 관내 유학생 초청 강릉문화탐방 등)
				국제하계캠프 신설 운영, 외국인 담당지도교수 인센티브 제공	■ 코로나19 대응으로 국내에서 운영 가능한 글로벌 개발운영 (글로벌 현장실습 설명회 개최, 온라인 해외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역량 프로그램 지원 강화	■ 영어 전공강의 교과목 운영 표준화모델 개발·운영 ■ 전공 연계 국제화 프로그램 운영(코로나19로 온라인 어학연수 및 전화 외국어교육, 국제교류 아이디어 공모, 영어글쓰기 말하기 대회 실시)
				해외 자매대학과의 제휴 강화 및 국제교류 지원 확대	■ 해외 자매대학과의 재협정 및 신규 협정을 통한 자매대학 네트워크 확대 (18개국, 41개교)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온라인 학점교류 운영
				교환학생 준비제도 신설, 외국대학 연수 정보 제공	■ 외국대학 협정 확대 및 기존 대학 교류 증진 - 비대면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지속적 교류 확립 ■ 해외 대학과의 재협정 및 신규 협정을 통한 자매대학과의 네트워크 확대 (18개국, 41개교) - 국립베트남호치민시 인문사회과학대학과의 신규 협정 체결 ('21년 2월) ■ 해외자매대학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대면 학점 교류 프로그램 실시

제4대 총장의 공약내용 중 지역사회 부문의 주요 내용은 국제화를 포함하여 지역 및 대학 간 상호협력체계를 실현하였는지에 대한 평가이다. 이를 지역중심 국립대학의 가치 제고, 지역과 대학간 네트워크 강화, 국제적 마인드 함양 강화 등의 3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공약 사항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지역중심 국립대학의 가치 제고 공약의 세부항목에는 지역 가치를 높이는 열린 교육

실현, 지역주민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기능 확대, 지역 협력 거버넌스의 활용 극대화, 지역혁신 연구원 설립 등이 포함된다. 1) 지역 가치를 높이는 열린 교육 실현 공약에 대한 이행실적으로 총장이 제시한 내용은 지역친화형 KCC 교육체계 구축('20년 31,774천원), FAM 기반 사다리프로젝트 운영('20년 45,778천원), 지역친화형 체인지(體仁知) 비교과 프로그램 활성화('20년 152,995천원), 지속가능형 지역친화 교육성과 공유 플랫폼 구축, 지역친화적 교원업적평가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역친화 우수학과 인증제 운영('20년 51,839천원) 등이다. 2) 지역주민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기능 확대 공약에 대한 이행실적으로 제시한 내용은 지역민의 평생교육 확대('20년 13,360천원), 국제 관광도시 육성을 위한 지역주민 외국어 교육('20년 수강인원 170명), 교육재능기부 동아리 활동(사회복지학과 및 다문화학과), 들썩들썩 찾아가는 문화 공연 행사 프로그램 실시(코로나19 대응 힐링프로그램으로 대체 운영, 2회 58명) 등이다. 3) 지역 협력 거버넌스의 활용 극대화 공약에 대한 이행실적으로 총장이 제시한 내용은 지역문제 해결 연구('20년 44,803천원), 지역사회 기여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단과대학 연구소 단위 프로그램 운영 공모 및 지원, Open Campus 및 라키비움 운영(91,592천원), 지역참여예산 제도 기반 Public College 등이다. 4) 지역혁신 연구원 설립 공약에 대한 이행실적은 없다.

제시된 사업들은 대부분 3대 총장 시기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4대 총장 시기에 와서 보여준 기존의 사업들의 질적 혹은 양적 변화가 이전에 비해 돋보인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새로운 사업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간평가 설문조사에 이 항목이 다른 항목에 비해 비교적 높은 점수(3.88)를 받은 까닭은 대학 구성원들이 3대 총장 시기의 기존 사업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지역과 대학 간 네트워크 강화 공약의 세부항목에는 지역 내 대학과 교류를 위한 연합 대학(U-GW) 구축 강화, 지역혁신형 대학 사업 수주 노력, 지역 고교와의 유대강화로 지역 우수학생 유치 체계 구축, 지역 청소년과 학과 연계 학술활동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1) 지역 내 대학과 교류를 위한 연합 대학(U-GW) 구축 강화 실현 공약에 대한 이행실적으로 총장이 제시한 내용은 강원형 1도 1국립대학을 위한 강원도 국립대학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모델 개발 연구용역 추진('21.9),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선정('22.5)으로 도내 15개 대학과 지자체, 산업체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분야별 인재양성, 기술혁신 등 사업 수행, 지역 및 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추진('21년 75개 과제 중 72개 달성) 등이다. 2) 지역 혁신형 대학 사업 수주 노력 실현 공약에 대한 이행실적으로 총장이 제시한 내용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유치를 위한 스마트수소에너지 분야 정책연구('22.3~4월) 실시 및 강원지역 종합 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이다. 3) 지역 고교와의 유대강화로 지역 우수 학생 유치 체계 구축 실현 공약에 대한 이행실적으로 총장이 제시한 내용은 6년 연속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2017년 ~ 2022년), 해양캠프 [친海지기], [고교생 멘토링 두런두런(do run do learn)] 등 대학의 특성화된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발굴 운영('21년 360명 참여), 고교-대학 연계 정보 소외지역 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미리 가 본 대학 - '21년 351명 참여),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중·고교생 대상 진로체험 지원(자유학기제 강화) 등이다. 4) 지역 청소년과 학과 연계 학술활동 활성화 실현 공약에 대한 이행실적으로 총장이 제시한 내용은 지역 초·중·고교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20년 61,962천원), 비대면 창의과학 교실 개설(80회), 온라인 학과 체험 프로그램(6개 학과), 찾아가는 진로버스 운영(4회, 76명) 등이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2022)에 선정됨으로써 지역의 대학과 지자체 그리고 산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여러 사업도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의 의미있는 역할 수행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지역의 우수학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그리고 1도 1국립대학을 위한 노력으로 강원대와의 통합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까지는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후속적인 성과가 베일에 싸여 있다. 통합 논의가 어느 정도나 진척되고 있는지에 관해 대학 구성원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나 제시된 결과물은 아직 없다. 참고로 중간평가 설문 자유응답형 문항 중 질문 11(총장에게 바라는 점)에 응답한 60건 가운데 16건이 강원대와의 통합과 그 진행 상황에 연관된 요구였다.

셋째, 국제적 마인드 함양 공약의 세부항목에는 국제교류의 양적 성장 및 질적 향상 추구, 국제 하계캠프 신설 운영, 외국인 담당 지도교수 인센티브 제공, 글로벌 역량 프로그램 지원 강화, 해외 자매대학과의 제휴 강화 및 국제교류 지원 확대, 교환학생 준비제도 신설, 외국대학 연수정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1) 국제교류의 양적 성장 및 질적 향상 추구 공약에 대한 이행실적으로 총장이 제시한 내용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모집 방법 다양화 (국가별 온·오프라인 유학박람회 참여('20.10~12월),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기반 마련(대학원 영문홈페이지 제작 운영, 유학생-직원/재학생 멘토링제 운영), 유학생 대상 한국문화 탐방,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대면 문화체험 원데이클래스 10회, 300명, 농촌현장체험, 유학생 평창 팸투어, 관내 유학생 초청 강릉문화탐방 등) 등이다. 2) 국제 하계캠프 신설 운영 및 외국인 담당지도교수 인센티브 제공 공약에 대한 이행실적으로 총장이 제시한 내용은 코로나19 대응으로 국내에서 운영 가능한 글로벌 개발·운영(글로벌 현장실습 설명회 개최, 온라인 해외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이다. 3) 글로벌 역량 프로그램 지원 강화 공약에 대한 이행실적으로 총장이 제시한 내용은 영어 전공강의 교과목 운영 표준화 모델 개발·운영, 전공 연계 국제화 프로그램 운영(코로나19로 온라인 어학연수 및 전화 외국어교육, 국제교류 아이디어 공모, 영어글쓰기 말하기 대회 실시) 등이다. 4) 해외 자매대학과의 제휴 강화 및 국제교류 지원 확대 공약에 대한 이행실적으로 총장이 제시한 내용은 해외 자매대학과의 재협정 및 신규 협정을 통한 자매대학 네트워크 확대(18개국, 41개교),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온라인 학점교류 운영 등이다. 5) 교환학생 준비제도 신설, 외국대학 연수정보 제공 공약에 대한 이행실적으로 총장이 제시한 내용은 외국대학 협정 확대 및 기존 대학 교류 증진 - 비대면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지속적 교류 확립, 해외 대학과의 재협정 및 신규 협정을 통한 자매대학과의 네트워크 확대(18개국, 41개교) - 국립 베트남 호치민시 인문사회과학대학과의 신규 협정 체결('21년 2월), 해외자매대학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대면 학점교류 프로그램 실시 등이다.

국제적 마인드 함양 공약 실행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여러모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사업을 온라인으로 실시하여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미흡한 점도 눈에 띈다. 가령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작된 대학원 영문홈페이지에는 게시물이 단지 1개만 올라와 있을 정도로 유명무실하다. 중간평가 설문조사에서 이 항목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3.37)를 받았다는 것은 추후 이 부문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총평을 하자면, 1) 지역사회부문 공약 이행실적으로 총장이 제시한 내용은 대부분의 사업이 기존 사업을 이어가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즉, 4대 총장 취임 이후 새로 시작된 사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혁신적인 성과를 논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평가 설

문조사에서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및 교류 항목은 설문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3.88)를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비록 동일인이긴 하지만 4대 총장의 업적이 아니라 3대 총장의 업적으로 보아야 한다. 4대 총장이 취임한 이후 지역사회부문의 여러 사업이 질적이나 양적으로 뚜렷이 개선되었다는 지표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지역사회부문 공약의 셋째 항목인 국제적 마인드 함양 강화 항목은 중간평가 설문조사에서 다른 항목에 비해 비교적 낮은 평가(3.37)를 받았다. 코비드19 감염증의 영향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영문 홈페이지 관리나 자매학교의 확대 등 학생과 교수의 국제교류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모색과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대학경영

<표 4-4> 대학경영 분야 - 총장 공약사항 이행정도 평가

주요 내용	종합평가			평가내용	
	상	중	하	세부내용	대학본부에서 제시한 실적
조직문화의 가치 공유		○			
신뢰와 협력의 직장문화 조성		○		성과중심의 업적평가 및 인사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 직무 및 성과에 따른 합리적 승진 및 인센티브 도입 ■ 우수직원 인사 우대, 개인 경력 및 조직 개발 HRD체계 혁신 ■ 조교임용제도개선 등
				소통·협력의 조직문화 구축	■ 함께 소통하는 금요행복타임, 이슈별 업무조정회의 구성 ■ 직능별 직원협의회 등의 의사결정 기구의 참여 강화
				행정지원 효율화를 위한 체계 개선	■ 단순반복 업무의 시스템화 ■ 부서별 행정 업무편람 작성 및 홈페이지 게시 ■ 학내 모든 규정을 제·개정시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대학알리미와 연계하여 실시간 현행화
실속 있는 복지 서비스 증대 및 개선		○		즐겁고 신나는 학생복지	■ 장학금 증액 및 다양화 ■ '365-24안전캠퍼스'구축, 야외음악당 정비, 학생생활관 신축 ■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 (20년) ■ 저소득층 교육생계비 지원 (21년)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체계 구축
				교수복지 증대 및 개선	■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지급제도의 다양화와 증액 ■ 명예교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실시
				직원복지 증대 및 개선	■ 직무 및 성과에 따른 합리적 승진 및 인센티브 도입 ■ 불필요한 업무 감축 ■ 유연근무 활성화
캠퍼스 공간 활용의 최적화 실현	○			캠퍼스 공간 활용 및 안전캠퍼스 실현	■ 학생생활관 신축 및 환경개선, 노후건물 리모델링 ■ 반다비 체육관, 평생교육관, 융복합강의동 사업 추진

총장의 공약내용 중 대학경영부문에서는 '조직문화의 가치 공유'를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3개의 주요 항목 첫째 '신뢰와 협력의 직장문화 조성', 둘째 '실속 있는 복지 서비스 증대 및 개선', 셋째 '캠퍼스 공간 활용의 최적화 실현' 등이 제시되었다. 3개의 주요 항목마다 다수의 세부 항목이 제시되었으며, 각 항목별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뢰와 협력의 직장문화 조성' 주요 항목의 세부 항목은 '성과중심의 업적평가 및 인사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소통·협력의 조직문화 구축', '행정지원 효율화를 위한 체계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둘째 '실속 있는 복지서비스 증대 및 개선' 주요 항목의 세부 항목은 '

즐겁고 신나는 학생복지', '교수복지 증대 및 개선', '직원복지 증대 및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셋째, '캠퍼스 공간 활용의 최적화 실현' 주요 항목의 세부 항목은 '캠퍼스 공간 활용 및 안전캠퍼스 실현' 등이 제시되었다.

상기의 공약 중, '성과중심의 업적평가 및 인사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행정지원 효율화를 위한 체계 개선' '즐겁고 신나는 학생복지', '캠퍼스 공간 활용 및 안전캠퍼스 실현'은 공약대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소통 ·협력의 조직문화 구축', '교수복지 증대 및 개선', '직원복지 증대 및 개선' 등은 일부 공약사항 이행도가 낮거나,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대로 추진된 4개의 세부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중심의 업적평가 및 인사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직무 및 성과에 따른 합리적 승진 및 인센티브 도입, 우수직원 인사 우대, 개인 경력 및 조직개발 HRD체계 혁신, 조교임용 제도개선 등이 있으며, 공약대로 추진되었다. 둘째 '행정지원 효율화를 위한 체계 개선'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단순반복 업무의 시스템화, 부서별 행정 업무편람 작성 및 홈페이지 게시, 학내 모든 규정을 제·개정시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대학알리미와 연계하여 실시간 현행화 등이 있으며, 행정업무가 투명해지고, 민원응대 품질 개선되었다고 판단된다. 셋째 '즐겁고 신나는 학생복지'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장학금 증액 및 다양화, '365-24안전캠퍼스'구축, 야외음악당 정비, 학생생활관 신축,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 저소득층 교육생계비 지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체계 구축 등이 있으며, 학생생활관 신축, 코로나19 상황에 적절히 대처했다고 판단된다. 넷째 '캠퍼스 공간 활용 및 안전캠퍼스 실현'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학생생활관 신축 및 환경개선, 노후건물 리모델링, 반다비 체육관, 평생교육관, 융복합강의동 사업 추진 등이 있으며, 공약대로 추진되었다.

공약 이행 속도를 다소 올려야 하는 3개의 세부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통 ·협력의 조직문화 구축',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함께 소통하는 금요행복타임, 이슈별 업무조정회의 구성, 직능별 직원협의회 등의 의사결정 기구의 참여 강화 등이 있으며, 정책연구가 실시되고, 직원협의회 참여가 확대되었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둘째 '교수복지 증대 및 개선'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지급제도의 다양화와 증액, 명예교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실시 등이 있으며,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지급액이 증액되었지만, 명예교수제도 개선에 대한 이행도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셋째 '직원복지 증대 및 개선'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직무 및 성과에 따른 합리적 승진 및 인센티브 도입, 불필요한 업무 감축, 유연근무 활성화 등이 있으며, 직원 업무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5. 환경변화 대응(재정 포함)

<표 4-5> 환경변화 대응(재정 포함) 분야 - 총장 공약사항 이행정도 평가

주요 내용	종합평가			평가내용	
	상	중	하	세부내용	대학본부에서 제시한 실적
환경변화 대응체제 구축		○			
대학 정책 위원회 발족을 통한 대응체제 강화		○		지속 성장 가능한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정 보완	■ 중장기발전계획 성과관리 강화 ■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비전 2025+> 고도화 완료 ('20년), 3대 특성화 분야로 해양·에너지·소프트웨어 설정 ■ 중장기 발전계획 성과지표 및 재정투자계획 현행화 ('22.7월)
				미래 교육대응전략위원회 구성 및 전문성 강화	■ 대학혁신위원회: 재정지원사업 총괄 점검 및 관리·평가 ■ 대학 전체 재정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거버넌스 총괄 체계 구축 예정 ('22.8월중) ■ 학사구조 개편 체제 구축을 위한 규정 및 탄력정원제 도입 ('22.3월) ■ 대학 내 주요사업 성과 종합분석 및 전략 마련을 위한 '성과관리센터' 신설('22.3월)
지속적 성장 발전을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		○		재정 효율화 및 예·결산 업무의 투명성 제고	■ 구성원의 대학회계 예산 성과평가 제도를 통한 재정 효율화 및 예산편성 집행의 우선순위 추진 ■ 구성원의 예산참여 제도 도입 ■ 대학재정건정성 강화 위원회 구성을 통한 위기등급별 시나리오 전략 수립
				대학발전기금 모금 방법의 다원화	■ 동창회와 협력한 모교후원 캠페인 ■ 대학발전기금유치위원회 및 강릉원주대 honorship 공유, relay 모금 추진 ■ 교육사업 활성화 및 대학시설 재산을 활용한 수익사업의 다각화
전략적 입시 대응 체제 구축		○		분야별 홍보전략 수립	■ 대학의 대표브랜드 설정, 교내 홍보콘텐츠 발굴 ■ 국제홍보, 언론홍보, 온라인 홍보, 입시홍보 등 분야별 전략적 방안 마련
				신입생 및 편입생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 수험생 부담완화를 위한 면접고사 폐지(치의예과 제외)(2020년)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전형 비율 적정화 (2021년) ■ 신입학 합격자 전원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희망자에게 기숙사 제공을 원칙으로 함 (2021년)
				국외 유학생 유치 환경 구축	■ 자매대학 MOU체결 확대 ■ 국외 대학간 공동학위제 프로그램 추진 ■ 한국어학당 어학연수생 확대

총장의 공약내용 중 대학경영부문에서는 ‘환경변화 대응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3개의 주요 항목 첫째 ‘대학 정책 위원회 발족을 통한 대응체제 강화’, 둘째 ‘지속적 성장 발전을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 셋째 ‘전략적 입시 대응 체제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3개의 주요 항목마다 다수의 세부 항목이 제시되었으며, 각 항목별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정책 위원회 발족을 통한 대응체제 강화’ 주요 항목의 세부 항목은 ‘지속 성장 가능한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정 보완’, ‘미래 교육대응전략위원회 구성 및 전문성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둘째 ‘지속적 성장 발전을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 주요 항목의 세부 항목은 ‘재정 효율화 및 예·결산 업무의 투명성 제고’, ‘대학발전기금 모금 방법의 다원화’ 등이 제시되었다. 셋째, ‘전략적 입시 대응 체제 구축’ 주요 항목의 세부 항목은 ‘분야별 홍보전략 수립’, ‘신입생 및 편입생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국외 유학생 유치 환경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상기의 공약 중, ‘미래 교육대응전략위원회 구성 및 전문성 강화’, ‘대학발전기금 모금 방법의 다원화’ ‘신입생 및 편입생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는 공약대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지속 성장 가능한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정 보완’, ‘재정 효율화 및 예·결산 업무의 투명성 제고’, ‘분야별 홍보전략 수립’ ‘국외 유학생 유치 환경 구축’ 등은 일부 공약사항 이행도가 낮거나,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였으며, 향후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대로 추진된 3개의 세부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교육대응전략위원회 구성 및 전문성 강화’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대학혁신위원회: 재정지원사업 총괄 점검 및 관리·평가, 대학 전체 재정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거버넌스 총괄 체계 구축 예정, 학사구조 개편 체제 구축을 위한 규정 및 탄력정원제 도입, 대학 내 주요사업 성과 종합분석 및 전략 마련을 위한 ‘성과관리센터’ 신설 등이 있으며, 공약대로 추진되었다. 둘째 ‘대학발전기금 모금 방법의 다원화’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동창회와 협력한 모교후원 캠페인, 대학발전기금유치위원회 및 강릉원주대 honorship 공유, relay 모금 추진, 교육사업 활성화 및 대학시설 재산을 활용한 수익사업의 다각화 등이 있으며, 공약대로 추진되었다. 셋째 ‘신입생 및 편입생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수험생 부담완화를 위한 면접고사 폐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전형 비율 적정화, 신입학 합격자 전원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희망자에게 기숙사 제공 원칙 등이 있으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 의지가 돋보이며, 공약대로 추진되었다.

공약 이행 속도를 다소 올려야 하는 4개의 세부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 성장 가능한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정 보완’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중장기발전계획 성과관리 강화,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비전 2025+> 고도화 완료, 3대 특성화 분야로 해양·에너지·소프트웨어 설정, 중장기 발전계획 성과지표 및 재정투자계획 현행화 등이 있으며, 교수-직원 참여형 FT구성 및 대응체제 구축 되었으나, 앞으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요구된다. 둘째 ‘재정 효율화 및 예·결산 업무의 투명성 제고’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구성원의 대학회계 예산 성과평가 제도를 통한 재정 효율화 및 예산편성 집행의 우선순위 추진, 구성원의 예산참여 제도 도입, 대학재정건정성 강화 위원회 구성을 통한 위기등급별 시나리오 전략 수립 등이 있으며, 대학재정 투명성을 위한 노력이 돋보이나 교육 사업비(예, 링크사업 등)의 집행의 투명성, 효율적인 활용부분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셋째 ‘분야별 홍보전략 수립’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대학의 대표브랜드 설정, 교내 홍보콘텐츠 발굴, 국제홍보, 언론홍보, 온라인 홍보, 입시 홍보 등 분야별 전략적 방안 마련 등이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

전략 요구된다. 넷째 ‘국외 유학생 유치 환경 구축’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자매대학 MOU체결 확대, 국외 대학간 공동학위제 프로그램 추진, 한국어학당 어학연수생 확대 등이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유연한 전략이 요구된다.

6. 구성원 복지

<표 4-6> 구성원 복지 분야 - 총장 공약사항 이행정도 평가

주요 내용	종합평가			평가내용	
	상	중	하	세부내용	대학본부에서 제시한 실적
실속 있는 복지서비스 증대 및 개선		○			
학생복지	○			반다비 체육관 건립	■ 반다비 체육센터 1차공사 진행 중 ('22년)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 지원	■ 학교발전 협의회 재개 ('22.5) ■ 학생후생복지비 290,000천원 지원 ('20~'22년) ■ 코로나19 확산기에 비대면 학생활동 지원
				노후 학생생활관 BTL추진	■ 정진관, 예문관 철거 후 해송관 준공 ('22년)
				도서관 리모델링 추진	■ 도서관 리모델링 설계 완료 및 추진 ('22년)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강화	■ 취·창업 성과제고를 위한 조직개편을 통해 학내 취업지원 업무 통합 및 집중화 운영 ('20.3.1.) ■ 취·창업 지원을 위한 규정 및 지침 제·개정 ('20년) ■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효과성 입증
교수복지	○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증액 및 제도 개선	■ 2022학년도 90,000천원 증액 ■ 4S 교수교육역량강화 관련 지표 신설 및 교연비 시스템 고도화 추진
				교수 1인 1TA 제도 도입	■ 학문 후속세대 양성 및 우수 연구인력 육성을 위한 대학원생 대상 전일제 장학금 지원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석사과정 운영 ('20학년도 의료기기융복합학과, 웰니스바이오산업학과) ■ 학술대회 참가경비, 연구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한 학문 교류 기회제공 및 대학원생 연구 의욕 고취
				명예교수실 탄력적 운용	■ 명예교수 공동연구실 1실(75.96㎡) 추가 구축 및 활용계획 수립 완료(2021.9.)하여 2026년까지 명예교수 공간 수요 충족 예정
				신임교수 연구정착금 확대 지원	■ 신임교원 연구정착금 관련 절차 간소화 추진
				연구의욕 고취 연구환경 개선	■ 연구년 지원 및 장기해외파견 연구지원 지침 개정 (20년 시행) ■ 전임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점수환산방법에 관한 지침 개정 (20.6.) ■ 교원업적관리 시스템(전산시스템) 고도화 작업 (20.12. / 42,900천원) ■ 연구년 및 장기해외파견 개별 지침 통합 (21.2.)

직원복지	○	상대적 소외 직종의 생계형 지원 강화	■ 실적 없음
		합리적 인사행정 구현 추구	■ 역량평가를 반영한 승진심사제도 개선 ('20년~) ■ 부서별 인력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역할 및 업무량에 맞추어 인력을 조정 배치 실시 ('21년)
		직원직능단체 대학정책 참여 여건 마련	■ 실적 없음
		승진 기회 확대	■ 대학회계직 6급 승진 확대
		근무 업무 경감 및 임용 제도 개선	■ 인사팀과 직원과의 수시 상담 실시하고, 인사 고충직원의 현안을 적극 반영하여 전보(부서배치) 실시 ('20년~)

총장의 공약내용 중 구성원 복지부문에서는 '실속 있는 복지서비스 증대 및 개선'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3개의 주요 항목 첫째 '즐겁고 신나는 학생복지', 둘째, '교수 복지 증대 및 개선', 셋째 '직원복지 증대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3개의 주요 항목마다 다수의 세부 항목이 제시되었으며, 각 항목별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즐겁고 신나는 학생복지' 주요 항목의 세부 항목은 '반다비 체육관 건립',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 지원', '노후 학생생활관 BTL추진', '도서관 리모델링 추진',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둘째 '교수복지 증대 및 개선' 주요 항목의 세부 항목은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증액 및 제도 개선', '교수 1인 1TA 제도 도입', '명예 교수실 탄력적 운용', '신임교수 연구 정착금 확대 지원', '연구 의욕 고취 연구환경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셋째 '직원복지 증대 개선' 주요 항목의 세부 항목은 '상대적 소외 직종의 생계형 지원강화', '합리적 인사행정 구현 추구', '직원직능단체 대학정책 참여 여건 마련', '승진 기회 확대', '근무 업무 경감 및 임용제도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상기의 공약 중 '반다비 체육관 건립',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 지원', '노후 학생생활관 BTL추진', '도서관 리모델링 추진',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강화', '연구 의욕 고취 연구환경 개선', '합리적 인사행정 구현 추구'는 공약대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증액 및 제도 개선', '교수 1인 1TA 제도 도입', '명예 교수실 탄력적 운용', '신임교수 연구 정착금 확대 지원', '상대적 소외 직종의 생계형 지원강화', '직원직능단체 대학정책 참여 여건 마련' '승진 기회 확대', '근무 업무 경감 및 임용제도 개선' 등은 일부 공약사항 이행도가 낮거나,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며, 향후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대로 추진된 7개의 세부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다비 체육관 건립'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반다비 체육관 1차 공사가 진행 중으로 공약대로 추진되고 있다. 둘째 '학생동아리 활동 지원'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학교발전 협의회 재개, 학생후생복지비 290,000천원 지원, 코로나19 확산기에 비대면 학생활동 지원 등이 있으며 공약대로 추진되었다. 셋째 '노후 학생생활관 BTL추진'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정진관, 예문관 철거 후 해송관 준공으로 공약대로 추진되고 있다. 넷째 '도서관 리모델링 추진' 도서관 리모델링 설계 완료 및 진행으로 공약대로 추진되고 있다. 다섯째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강화'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취·창업 성과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을 통해 학내 취업지원 업무 통합 및 집중화 운영, 취·창업 지원을 위한 규

정 및 지침 제·개정,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효과성 입증 등이 있으며, 공약대로 추진되었다. 여섯째 ‘연구 의욕 고취 연구환경 개선’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연구년 지원 및 장기해외파견 연구지원 지침 개정, 전임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점수환산 방법에 관한 지침 개정, 교원업적관리 시스템(전산시스템) 고도화 작업, 연구년 및 장기해외파견 개별 지침 통합 등이 있으며, 공약대로 추진되었다. 일곱째 ‘합리적 인사행정 구현 추구’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역량평가를 반영한 승진심사제도 개선, 부서별 인력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역할 및 업무량에 맞추어 인력을 조정 배치 실시 등이 있으며 공약대로 추진되었다.

공약 이행 속도를 다소 올리거나 추진을 시작하여야 하는 8개의 세부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증액 및 제도 개선’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2022학년도 90,000천원 증액, 4S 교수교육역량강화 관련 지표 신설 및 교연비 시스템 고도화가 추진되었으나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제도의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교수 1인 1TA 제도 도입’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학문 후속세대 양성 및 우수 연구인력 육성을 위한 대학원생 대상 전일제 장학금 지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석사과정 운영, 학술대회 참가경비, 연구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한 학문교류 기회제공 및 대학원생 연구 의욕 고취 등이 추진되었지만 교수 1인 1TA 제도는 공약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앞으로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된다. 셋째 ‘명예 교수실 탄력적 운용’,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명예교수 공동연구실 1실 (75.96㎡) 추가 구축 및 활용계획 수립 완료에 되었으나 이행도가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넷째 ‘신임교수 연구 정착금 확대 지원’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신임교원 연구 정착금 관련 절차 간소화 추진되어 정착금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공약 추진이 요구된다. 다섯째 ‘합리적 인사행정 구현 추구’와 여섯째 ‘직원직능단체 대학정책 참여 여건 마련’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속한 공약 추진이 요구된다. 일곱째 ‘승진 기회 확대’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대학회계직 6급 승진 확대가 이루어졌으나 이행도가 미흡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적극적인 공약 이행이 요구된다. 여덟째 ‘근무 업무 경감 및 임용제도 개선’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인사팀과 직원과의 수시 상담 실시하고, 인사 고충직원의 현안을 적극 반영하여 전보(부서배치) 실시하였으나 근무 업무 경감 실적과 임용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적극적 공약 추진이 요구된다.

7. 단과대학별 공약

1) 대학 전체

<표 4-7> 대학 전체 공약 - 총장 공약사항 이행정도 평가

구분	종합평가			평가내용	
	상	중	하	세부내용	대학본부에서 제시한 실적
대학 전체	○			교육환경의 지속적 개선	■ 미래지향적 영역에 대한 지식탐구와 실용적인 학문에 대한 전문교육을 위한 고품질 실험실습환경 구현 - 실험실습기자재 (단위: 백만원) '20년(1,843)→'21년(1,893)→'22년(1,564) - 실험실 안전환경기반조성 (단위: 백만원) '21년(783)→'22년(833) ■ 수요자 중심의 교육인프라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 대학혁신지원사업 (단위: 백만원) '20년(1,079)→'21년(1,156)→'22년(140) - 국립대학육성사업 (단위: 백만원) '20년(13)→'21년(12)→'22년(12)
		○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존중	■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사업부서 실명제 도입, 능동적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 재정지원사업 외부 감사 기능 강화 및 거버넌스 조직에 외부위원 참여 확대 ■ 대학 평의회 기능 내실화,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참여 확대 의무화 ■ 정책소통홈페이지를 활용한 정책 제안 제도 활성화 ■ 공청회, 간담회 등 정례화 (주요 계획수립 시 구성원 대상 의견 수렴 과정 의무화) ■ 정책모니터링 운영 내실화 (학생정책모니터링단 등 소통횟수 확대, 의견 정책 적극 반영) ■ SNS 등(유튜브 채널 활성화)을 활용한 정책 공유 채널 다양화 ■ '해람 혁신 DAY'를 지정하여 대학발전계획, 자율혁신계획 등 대학의 비전과 전략 공유, 대학 주요 행사와 연계
	○			안전하고 아름다운 캠퍼스 조성	■ 지속적인 캠퍼스 관리를 통하여 코로나 시대 정서적 휴식처를 제공하고, 학내 구성원, 내·외빈 방문객 및 지역주민들의 도시 공원 역할을 통한 대학 이미지 제고 - '20년 104,300천원, '21년 99,240천원, '22년 89,180천원 투입

실질적 교육단위인 단과대학을 지원하는 공통 공약 사항은 크게 1) 교육환경의 지속적 개선, 2)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존중 3) 안전하고 아름다운 캠퍼스 조성 3대 항목으로 구분된다. 교육환경 개선은 구체적으로는 실험실습 환경 개선과 수요자 중심 교육인프라 기반조성으로 나뉘어 추진되는데 연차별로 꾸준히 진행되어 개선되고 있다고 사료되어, 상으로 평가한다. 구성원들 의사결정 존중이라는 대항목은 표에서 보듯이 세부적으로 8개 항의 추진 실적이 있

지만 정원조정에 과정 등 관한 의사소통 미흡 등의 현실에서 판단컨대 미흡한 점이 있어 중 정도로 평가한다. 마지막 대 항목인 캠퍼스 조경 구축에 관하여서는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고 보아 상으로 평가한다.

2) 인문대학

<표 4-8> 인문대학 공약 - 총장 공약사항 이행정도 평가

단과대학	종합평가			평가내용	
	상	중	하	세부내용	대학본부에서 제시한 실적
인문대			○	연구실 개수대 설치	■ 실적 없음
			○	인문학 등 기초보호학문지원	■ 기초보호학문 지원을 위해 학습클리닉 신설('20년) - 글쓰기, 영어 등 인문학 분야 지원
		○		교수 소모임 등 연구·교육 활동 지원	■ 교수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수법 소그룹 운영 ('20년) ■ 교수자 본인에게 필요한 교육역량을 체계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교수법 특강 운영 (인문대학 '20년 224명 → '21년 264명 참여)

인문대학의 경우 연구실 개수대 설치, 인문학 등 기초보호학문 지원, 교수 소모임 등 연구·교육 활동 지원 등의 공약이 있었다. 첫째, 인문대 교수연구실에 개수대가 설치된 곳이 아직까지 없다. 둘째, 인문학 등 기초보호학문 지원을 위해 학습클리닉을 신설하여 운영한다는 업적을 제시하고 있지만, 학습클리닉이 인문대만을 위한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독문과 폐지 수순을 밟은 것이 인문대 및 기초보호학문 지원을 위한 업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셋째, 교수 소모임 등 연구·교육활동 지원 공약에 대한 업적으로 교수법 소그룹 운영과 교수법 특강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업이 인문대만을 위한 사업으로 간주되긴 어려울 것이다. 교수 학술모임이 과거에는 동아시아 연구회, 언어연구회, 유럽학 연구회 등 3개가 있었지만 현재는 유럽학 연구회가 폐지되고 2개 학회가 운영되고 있다.

3)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은 '자연과학 1호관 안정성 확보, 기초보호학문 지원, 자연과학관 실습 환경개선'에 대한 공약이 있다. 자연과학 1호관은 기존 건물을 이전하여 새로운 위치에 개축하기로 확정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고, 자연과학관 실습 환경개선도 어느정도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초보호학문 지원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이 거의 없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표 4-9> 자연과학대학 공약 - 총장 공약사항 이행정도 평가

단과대학	종합평가			평가내용																																																																																
	상	중	하	세부내용	대학본부에서 제시한 실적																																																																															
자연과학대학	○			자연과학 1호관 안전성 확보	■ 자연1호관 개축 설계용역 추진 ('22년)																																																																															
			○	자연과학 등 기초보호 학문 지원	■ 기초보호학문 지원을 위해 균형교양에 교양기초수학, 교양기초물리, 교양기초화학 신설 ('20년) - 화학신소재학과 참여 (신입생 의무 수강)																																																																															
		○		자연과학관 실습 환경 개선	■ 과학적 기초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실습 기자재 지원 ('20.2월~'22.5월) - 실험실습기자재: 분석저울 등 43종 <table border="1"><thead><tr><th>학과</th><th>수량</th><th>금액(천원)</th><th>비고</th></tr></thead><tbody><tr><td>수학</td><td>62</td><td>54,284</td><td></td></tr><tr><td>정보통계</td><td>99</td><td>59,062</td><td></td></tr><tr><td>물리</td><td>24</td><td>38,162</td><td></td></tr><tr><td>화학</td><td>49</td><td>51,003</td><td></td></tr><tr><td>생물</td><td>7</td><td>58,585</td><td></td></tr><tr><td>대기</td><td>61</td><td>42,281</td><td></td></tr><tr><td>합계</td><td>302</td><td>303,377</td><td></td></tr></tbody></table> - 실험실 안전환경조성비: 실험대 등 10종 <table border="1"><thead><tr><th>학과</th><th>수량</th><th>금액(천원)</th><th>비고</th></tr></thead><tbody><tr><td>화학</td><td>29</td><td>71,285</td><td></td></tr><tr><td>생물</td><td>12</td><td>41,262</td><td></td></tr><tr><td>합계</td><td>41</td><td>112,547</td><td></td></tr></tbody></table> - 대학회계(혁신,육성포함): 모니터 등 22종 <table border="1"><thead><tr><th>학과</th><th>수량</th><th>금액(천원)</th><th>비고</th></tr></thead><tbody><tr><td>수학</td><td>34</td><td>42,129</td><td></td></tr><tr><td>정보통계</td><td>165</td><td>71,301</td><td></td></tr><tr><td>물리</td><td>146</td><td>76,086</td><td></td></tr><tr><td>화학</td><td>182</td><td>67,398</td><td></td></tr><tr><td>생물</td><td>33</td><td>31,788</td><td></td></tr><tr><td>대기</td><td>26</td><td>32,416</td><td></td></tr><tr><td>합계</td><td>586</td><td>321,118</td><td></td></tr></tbody></table> ■ 실험실 안전장비 확충에 따른 실험실 환경개선 ('22년)	학과	수량	금액(천원)	비고	수학	62	54,284		정보통계	99	59,062		물리	24	38,162		화학	49	51,003		생물	7	58,585		대기	61	42,281		합계	302	303,377		학과	수량	금액(천원)	비고	화학	29	71,285		생물	12	41,262		합계	41	112,547		학과	수량	금액(천원)	비고	수학	34	42,129		정보통계	165	71,301		물리	146	76,086		화학	182	67,398		생물	33	31,788		대기	26	32,416		합계	586	321,118
학과	수량	금액(천원)	비고																																																																																	
수학	62	54,284																																																																																		
정보통계	99	59,062																																																																																		
물리	24	38,162																																																																																		
화학	49	51,003																																																																																		
생물	7	58,585																																																																																		
대기	61	42,281																																																																																		
합계	302	303,377																																																																																		
학과	수량	금액(천원)	비고																																																																																	
화학	29	71,285																																																																																		
생물	12	41,262																																																																																		
합계	41	112,547																																																																																		
학과	수량	금액(천원)	비고																																																																																	
수학	34	42,129																																																																																		
정보통계	165	71,301																																																																																		
물리	146	76,086																																																																																		
화학	182	67,398																																																																																		
생물	33	31,788																																																																																		
대기	26	32,416																																																																																		
합계	586	321,118																																																																																		

4) 생명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의 경우 '농장 실습 지원 강화, 연구 및 공동실험실 건립, 식품 및 해양분야 특성화 전략 강화'에 대한 공약이 있었다. 현재 농장 실습 지원 강화에 대한 공약은 잘 추진되었고, 식품 및 해양분야 특성화 전략 강화 분야도 '해양과학교육원' 활용 지역특화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식품분야도 해양분야와 함께 링크사업단을 통해 잘 진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연구 및 공동실험실 건립에 대한 공약이행 사항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4-10> 생명과학대학 공약 - 총장 공약사항 이행정도 평가

단과대학	종합평가			평가내용																																									
	상	중	하	세부내용	대학본부에서 제시한 실적																																								
생명과학대학	○			농장 실습 지원 강화	■ 실습중심의 교육과 원예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기자재 지원 ('20.2월~'22.5월) - 실험실습기자재: 드론 등 28종 <table><tr><th>학과</th><th>수량</th><th>금액(천원)</th><th>비고</th></tr><tr><td>식물생명</td><td>27</td><td>78,863</td><td></td></tr><tr><td>환경조경</td><td>26</td><td>64,700</td><td></td></tr><tr><td>합계</td><td>53</td><td>143,563</td><td></td></tr></table> - 실험실 안전환경조성비: 실험실용냉장고 <table><tr><th>학과</th><th>수량</th><th>금액(천원)</th><th>비고</th></tr><tr><td>식물생명</td><td>3</td><td>17,391</td><td></td></tr></table> - 대학회계(혁신,육성포함): 컴퓨터 등 18종 <table><tr><th>학과</th><th>수량</th><th>금액(천원)</th><th>비고</th></tr><tr><td>식물생명</td><td>53</td><td>45,238</td><td></td></tr><tr><td>환경조경</td><td>130</td><td>40,165</td><td></td></tr><tr><td>합계</td><td>183</td><td>85,403</td><td></td></tr></table> ■ 생명과학대학 농장 사무실 보수 및 기타 공사 완료 ('22년) ■ 유리온실 방열기 교체 및 급수관 보수 ('22년) ■ 유리온실 보일러 및 펌프 교체 ('20년)	학과	수량	금액(천원)	비고	식물생명	27	78,863		환경조경	26	64,700		합계	53	143,563		학과	수량	금액(천원)	비고	식물생명	3	17,391		학과	수량	금액(천원)	비고	식물생명	53	45,238		환경조경	130	40,165		합계	183	85,403	
	학과	수량	금액(천원)	비고																																									
	식물생명	27	78,863																																										
환경조경	26	64,700																																											
합계	53	143,563																																											
학과	수량	금액(천원)	비고																																										
식물생명	3	17,391																																											
학과	수량	금액(천원)	비고																																										
식물생명	53	45,238																																											
환경조경	130	40,165																																											
합계	183	85,403																																											
		○	연구 및 공동실험실 건립	■ 실적 없음																																									
	○		식품 및 해양분야 특성화 전략 강화	■ 해양 특성화 중심대학으로서 해양 전문 교육기관 '해양과학교육원' 활용 지역특화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海맑은 꿈나무와 함께하는 해양생물 탐구 (205명), 해양생물 과학캠프 친海지기(380명)																																									

5) 공과대학

공과대학의 경우 '기업 및 산업체 연계교육 지원 강화', '특성화 및 자율화 지원', '연구 및 실습실 환경 개선'에 대한 공약이 있었다. '기업 및 산업체 연계교육 지원 강화'의 경우 대학 지원에 따른 산학 연계 교육과정 인증 등 어느 정도 공약사항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되지만 교육 효과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성화 및 자율화 지원'의 경우 2022년 수소에너지 분야 RIS 사업 중심 대학 선정 등 공약사항은 적절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연구 및 실습실 환경 개선'의 경우 기자재 및 비품 지원과 보수 사업 등 공약사항이 적합하게 잘 이행되었다고 판단된다.

<표 4-11> 공과대학 공약 - 총장 공약사항 이행정도 평가

단과대학	종합평가			평가내용																																																																								
	상	중	하	세부내용	대학본부에서 제시한 실적																																																																							
공과대학		○		기업 및 산업체 연계교육 지원 강화	■ 4개 산학연계교육과정(전자공학과, 토목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신소재금속공학과) 운영을 통한 산업체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 산학연계교육과정 인증자 수 증가 ('20년 2명 → '21년 17명) - 산업체 및 유관기관 연계 특강 확대 운영 ('20년 9건 8개 기관, '21년 12건 12개 기관) - '21년 1개 산학연계교육과정 신설 (신소재금속공학과)																																																																							
	○			특성화 및 자율화 지원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강원지역플랫폼에 수소에너지분야 중심대학으로 선정('22년) 및 디지털헬스케어, 정밀의료사업에 참여 (신소재금속공학과 등 공과대학 관련 학과 참여)																																																																							
	○			연구 및 실습실 환경 개선	■ 지능형 반도체 소자 및 시스템 개발 연구 인재 양성을 위한 기자재 지원 ('20.2월 ~'22.5월) - 실험실습기자재: 교반가열판 등 48종 <table><tr><th>학과</th><th>수량</th><th>금액(천원)</th><th>비고</th></tr><tr><td>세라믹신소재</td><td>5</td><td>52,122</td><td></td></tr><tr><td>생명화학</td><td>27</td><td>66,188</td><td></td></tr><tr><td>토목</td><td>21</td><td>110,493</td><td></td></tr><tr><td>신소재금속</td><td>27</td><td>67,505</td><td></td></tr><tr><td>전자</td><td>9</td><td>105,077</td><td></td></tr><tr><td>합계</td><td>89</td><td>401,385</td><td></td></tr></table> - 실험실 안전환경조성바: 실험실용배기기 등 3종 <table><tr><th>학과</th><th>수량</th><th>금액(천원)</th><th>비고</th></tr><tr><td>생명화학</td><td>1</td><td>7,583</td><td></td></tr><tr><td>토목</td><td>2</td><td>10,377</td><td></td></tr><tr><td>합계</td><td>3</td><td>17,960</td><td></td></tr></table> - 대학회계(혁신,육성포함): 복사기 등 17종 <table><tr><th>학과</th><th>수량</th><th>금액(천원)</th><th>비고</th></tr><tr><td>세라믹신소재</td><td>102</td><td>44,145</td><td></td></tr><tr><td>생명화학</td><td>43</td><td>49,016</td><td></td></tr><tr><td>토목</td><td>382</td><td>94,319</td><td></td></tr><tr><td>신소재금속</td><td>36</td><td>30,421</td><td></td></tr><tr><td>전자</td><td>195</td><td>91,368</td><td></td></tr><tr><td>합계</td><td>758</td><td>309,269</td><td></td></tr></table> ■ 공학2호관 실험실 위생배관 및 환기배관 개선 ('20년) ■ 공학2호관 난방관 보수 ('22년)	학과	수량	금액(천원)	비고	세라믹신소재	5	52,122		생명화학	27	66,188		토목	21	110,493		신소재금속	27	67,505		전자	9	105,077		합계	89	401,385		학과	수량	금액(천원)	비고	생명화학	1	7,583		토목	2	10,377		합계	3	17,960		학과	수량	금액(천원)	비고	세라믹신소재	102	44,145		생명화학	43	49,016		토목	382	94,319		신소재금속	36	30,421		전자	195	91,368		합계	758	309,269
학과	수량	금액(천원)	비고																																																																									
세라믹신소재	5	52,122																																																																										
생명화학	27	66,188																																																																										
토목	21	110,493																																																																										
신소재금속	27	67,505																																																																										
전자	9	105,077																																																																										
합계	89	401,385																																																																										
학과	수량	금액(천원)	비고																																																																									
생명화학	1	7,583																																																																										
토목	2	10,377																																																																										
합계	3	17,960																																																																										
학과	수량	금액(천원)	비고																																																																									
세라믹신소재	102	44,145																																																																										
생명화학	43	49,016																																																																										
토목	382	94,319																																																																										
신소재금속	36	30,421																																																																										
전자	195	91,368																																																																										
합계	758	309,269																																																																										

6) 예술체육대학

예술체육대학의 경우 '예술 1호관 리모델링 추진, 쾌적한 학습 및 실기 공간 확보, 에어컨 등 연구환경 시설 보완'에 대한 공약이 있었다. 예술1호관 리모델링 공사의 착수('22년)와 쾌

적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냉난방기 지원('20.2월~'22.5월)이 진행되고 있어 “예술 1호관 리모델링 추진”, “쾌적한 학습 및 실기 공간 확보”, “에어컨 등 연구환경 시설 보완”에 대한 공약사항은 적절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4-12> 예술체육대학 공약 - 총장 공약사항 이행정도 평가

단과대학	종합평가			평가내용																
	상	중	하	세부내용	대학본부에서 제시한 실적															
예술체육대학	○			예술 1호관 리모델링 추진	■ 예술1호관 리모델링 공사 착수 ('22년)															
	○			쾌적한 학습 및 실기 공간 확보	■ 예술1호관 리모델링 공사 착수 ('22년)															
	○			에어컨 등 연구환경 시설 보완	■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냉난방기 지원 ('20.2월~'22.5월) - 대학회계 (혁신,육성포함) <table><tr><th>학과</th><th>수량</th><th>금액(천원)</th><th>비고</th></tr><tr><td>조형예술</td><td>8</td><td>11,542</td><td></td></tr><tr><td>체육</td><td>10</td><td>10,193</td><td></td></tr><tr><td>합계</td><td>18</td><td>21,735</td><td></td></tr></table>	학과	수량	금액(천원)	비고	조형예술	8	11,542		체육	10	10,193		합계	18	21,735
학과	수량	금액(천원)	비고																	
조형예술	8	11,542																		
체육	10	10,193																		
합계	18	21,735																		

7) 치과대학

<표 4-13> 치과대학 공약 - 총장 공약사항 이행정도 평가

단과대학	종합평가			평가내용				
	상	중	하	세부내용	대학본부에서 제시한 실적			
치과대학		○		융·복합 연구센터 건립	■ 실적 없음			
	○			인증평가의 안정적 지원	■ 치의학과 대외 인지도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인증평가 수수료 예산 지원 (단위: 천원)			
		○		치과병원 산학협력 지원	■ 치과병원 연구과제 협약·관리 및 지원 ('20년 40,250천원, '21년 51,750천원, '22년 28,750천원)			

치과대학의 경우 ‘융·복합 연구센터 건립, 인증평가의 안정적 지원, 치과병원 산학협력 지원’에 대한 공약이 있었다. “인증평가의 안정적 지원”과 “치과병원 산학협력 지원”에 대한 공약사항은 적절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융·복합 연구센터 건립”과 관련된 사항들은 치과병원의 교육동 설립을 지원하고 치과대학-구강과학연구소-치공학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국책 치의학 연구소 유치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 중이었다.

8) 보건복지대학

<표 4-14> 보건복지대학 공약 - 총장 공약사항 이행정도 평가

단과대학	종합평가			평가내용																																																									
	상	중	하	세부내용	대학본부에서 제시한 실적																																																								
보건복지대학			○	실습교육을 위한 활동 지원	■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역실무형 인재 육성과 감염병 등 다양한 질병에 대비한 지역 공의료인재 육성을 위한 실습기자재 지원('20.2월~'22.5월) - 실험실습기자재: 교육용로봇 등 24종 <table><tr><th>학과</th><th>수량</th><th>금액(천원)</th><th>비고</th></tr><tr><td>간호</td><td>32</td><td>30,375</td><td></td></tr><tr><td>유아교육</td><td>60</td><td>25,441</td><td></td></tr><tr><td>다문화</td><td>12</td><td>7,704</td><td></td></tr><tr><td>사회복지</td><td>10</td><td>7,369</td><td></td></tr><tr><td>행정실(수업)</td><td>1</td><td>1,447</td><td></td></tr><tr><td>합계</td><td>115</td><td>72,336</td><td></td></tr></table> - 대학회계(혁신,육성포함): 웹카메라 등 27종 <table><tr><th>학과</th><th>수량</th><th>금액(천원)</th><th>비고</th></tr><tr><td>간호</td><td>81</td><td>55,799</td><td></td></tr><tr><td>유아교육</td><td>25</td><td>25,488</td><td></td></tr><tr><td>다문화</td><td>9</td><td>11,350</td><td></td></tr><tr><td>사회복지</td><td>26</td><td>18,201</td><td></td></tr><tr><td>행정실(수업)</td><td>451</td><td>185,197</td><td></td></tr><tr><td>합계</td><td>592</td><td>296,035</td><td></td></tr></table>	학과	수량	금액(천원)	비고	간호	32	30,375		유아교육	60	25,441		다문화	12	7,704		사회복지	10	7,369		행정실(수업)	1	1,447		합계	115	72,336		학과	수량	금액(천원)	비고	간호	81	55,799		유아교육	25	25,488		다문화	9	11,350		사회복지	26	18,201		행정실(수업)	451	185,197		합계	592	296,035	
	학과	수량	금액(천원)	비고																																																									
	간호	32	30,375																																																										
	유아교육	60	25,441																																																										
	다문화	12	7,704																																																										
	사회복지	10	7,369																																																										
	행정실(수업)	1	1,447																																																										
	합계	115	72,336																																																										
	학과	수량	금액(천원)	비고																																																									
	간호	81	55,799																																																										
유아교육	25	25,488																																																											
다문화	9	11,350																																																											
사회복지	26	18,201																																																											
행정실(수업)	451	185,197																																																											
합계	592	296,035																																																											
○			인증평가 등 지원 강화	■ 대외 신뢰도 향상 등을 위해 외부기관 인증 평가 예산 지원(대학기관인증평가, 치의학과 및 간호학과 인증평가 등) - 대학회계 대학평가 사업 예산 지원내역 (단위: 천원) <table><tr><th>구분</th><th>'20</th><th>'21</th><th>'22</th></tr><tr><td>대학평가 (기관인증, 치의학과)</td><td>53,751</td><td>25,400</td><td>55,850</td></tr><tr><td>간호학과</td><td>26,286</td><td>8,400</td><td>7,700</td></tr></table>	구분	'20	'21	'22	대학평가 (기관인증, 치의학과)	53,751	25,400	55,850	간호학과	26,286	8,400	7,700																																													
구분	'20	'21	'22																																																										
대학평가 (기관인증, 치의학과)	53,751	25,400	55,850																																																										
간호학과	26,286	8,400	7,700																																																										
	○		학과별 지역연계사업 지원 강화	■ [고교-대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GWNU 미리 가 본 대학-전공특강, GWNU 미리 가 본 대학-전공체험, 해양생물 과학캠프, 친海지기, GWNU와 함께하는 정보소외지역 진로찾기, 고교생 멘토링 두런두런 (do run do learn)																																																									

보건복지대학의 경우 '실습교육을 위한 활동지원'에서 교육용로봇의 지원은 일부 학과에는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사실과 달리 제대로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실습기자재 확충은 실습교육 활동 지원과 관련성이 없다. '인증평가 등 지원강화'는 간호학과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추진이 계획대로 이루어졌으나, '학과별 지역연계사업 지원 강화' 역시 대부분이 강릉캠퍼스의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되었다고 평가하기엔 미흡한 점이 많다.

9) 과학기술대학

<표 4-15> 과학기술대학 공약 - 총장 공약사항 이행정도 평가

단과대학	종합평가			평가내용	
	상	중	하	세부내용	대학본부에서 제시한 실적
과학기술대학	○			지역특화형 산·학 연구 타운 조성	■ 문막반계 산업단지에 8,311m²(2,514평) 규모의 산학융합캠퍼스를 구축 - 산업단지캠퍼스 3,937m², 기업연구관 4,134m², 문화·복지시설 240m² (층별분리 운영) - 2025년 고용, 생산, 교육, 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속성장형 원주산업단지 거점을 조성 - 기업이 원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 - 4차 산업 전문 일자리 창출 등 신(新)연구 산업단지 조성 ■ 1개 대학 3개 학과(멀티미디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자동차공학과) 학부/대학원 총 164명 이전 ('23년 9월) ■ 대학-연구기관-지원기관을 집적화한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기업 실시간 맞춤형 지원 실현 ■ 근로자평생학습프로그램, R&D연계 현장맞춤형교육, 중소기업역량강화, 산학융합형 대학운영 교육시스템도입 등 과제추진
	○			특성화 및 자율화 지원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강원지역플랫폼에 수소에너지분야 중심대학으로 선정('22년) 및 디지털헬스케어, 정밀의료사업에 참여 (멀티미디어공학과 등 과학기술대학 관련 학과 참여)
			○	과학기술 1호관 리모델링 추진	■ 실적 없음 ■ 마스터플랜의 연차별투자계획에 따라 2030년이후에 추진될 예정임

과학기술대학의 경우 '지역특화형 산·학 연구 타운 조성, 특성화 및 자율화 지원, 과학기술 1호관 리모델링 추진'에 대한 공약이 있었다. “지역특화형 산·학 연구 타운 조성”과 “특성화 및 자율화 지원”에 대한 공약사항은 적절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과학기술 1호관 리모델링 추진”과 관련된 사항들은 해당 없음으로 여겨진다. 다만, 최근 인터넷 성능 보안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V. 요약 및 결론

본 평가보고서는 강릉원주대학교 제4대 반선섭 총장 취임 후 지난 2년 동안의 대학경영의 성과 및 총장으로서의 역량과 공약 사항의 이행 정도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평가 방법은 설문을 통한 전체 교수 구성원들의 인식도 조사 및 만족도 평가, 총장의 공약사항 이행 정도에 대한 연구진들의 질적 정성적 평가로 구성하였다. 이하에서는 설문 조사 결과와 공약 이행 실적 두 부분을 구분하여 요약 정리함으로써 본 보고서의 결론에 가름하고자 한다.

1. 설문조사 결과 요약

설문조사의 질문내용은 대학 운영, 총장의 지도력, 구성원 복지, 교육, 연구, 재정, 산·학·연, 대학현안 8개 대분야로 구분하였다. 또한, 자율응답형 질문으로 총장이 지난 2년간 대학 운영에서 잘한 일, 못한 일 그리고 총장의 남은 임기 동안 대학운영에 바라는 일의 3개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15일간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 교수는 2022년 6월 현재 전체 교수 376명이며, 조사에는 연구년 13명, 장기해외파견 2명, 휴직 및 연수 2명도 포함되었다. 조사 결과 241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64.1%이고, 이 중 미응답 9부를 제외하면 응답률은 61.7%로 집계되었다. 본 평가에서는 미응답 9부를 제외한 232부에 대해 분석하였다.

설문의 8개 대항목의 평균은 3.59점으로 높은 편이고, 대학 운영에 대한 기여, 교육, 재정, 산학연, 4개 분야에서 평균 이상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총장의 지도력 평점은 전체 평균과 일치하는 높은 점수이다. 하지만 구성원 복지, 연구, 대학 현안 3개 분야에서는 약간 미흡한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 대학운영

대학 운영에 대한 총장의 기여에서는 학교 발전, 단과대학 발전, 교수역량 향상, 직원역량 향상, 학생역량 향상에 기여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이들 5개 항목의 평균은 3.63이다. 전체 평균 3.59보다 높게 평가받는 대항목이다. 3대 총장 중간평가의 대학 운영에 대한 기여와 비교하면 5개 모든 항목이 평가점수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따라서 학교 발전에 대한 기여에서부터 학생역량 향상에 이르기까지 대학 운영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인다.

2) 지도력

총장의 지도력에 대한 평가는 제3대 총장 중간평가 항목에 ‘국제적 마인드 함양 강화’ 항목을 추가하여 총 11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항목별 평가 점수는 5점 척도로 3.37점에서 3.96점 사이이며, 11개 항목 평균 3.59로 전체 모든 항목 평균과 일치하는 점수이다.

평가 항목 중 대학발전전략 추진 3.96,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및 교류 3.88로 다른 항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국제적 마인드 함양 강화와 교수의견의 정책반영은 각각 3.37점과 3.43점으로 평가를 받아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3) 구성원 복지

구성원 복지 분야는 교직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개선, 교직원 복지시설 확충, 교직원 복지제도 개선, 학생 복지시설 개선, 학생 복지제도 개선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각 항목의 평점은 각각 3.41, 3.43, 3.38, 3.65, 3.63으로 집계되어 평균 3.5로 전체 평균 3.59보다 낮은 대항목이다. 다섯 가지 영역 중 3.59 이상은 학생 복지시설 개선, 학생 복지제도 개선에 높은 평점을 받았다. 하지만 교직원 복지와 교연비 개선항목에서는 3.5이하의 낮은 평가로 나타나고 있다.

4) 교육 분야

교육 분야에 있어서 ‘교수 충원율 제고’, ‘교양교육 내실화’, ‘전공교육 내실화’ ‘대학원교육 내실화’ 및 ‘교육시설 및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에 대한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평점은 3.96, 3.73, 3.52, 3.31, 3.48이고 평균은 3.60으로 전체 평균 3.59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대학원교육 내실화’에 대한 평가가 다른 항목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 분야의 기여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원교육 내실화’와 함께 ‘전공교육 내실화’ ‘교육시설 및 기자재 확충’에 대한 지원이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다.

5) 연구 분야

총장의 연구 분야에 대한 기여도 설문 결과를 종합해보면 ‘교수 연구활동 지원확대’, ‘연구소 및 연구회 활성화’, ‘연구재원확 대’및‘대학원생 연구지원’에 대한 네 가지 항목에 대한 평점은 3.43, 3.38, 3.34, 3.21이며 평균은 3.34로 나타났다. 네 항목 모두 전체 평균에서 미달한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대학원생 연구지원’에 대한 평가가 더욱 낮았다. 연구분야를 상승시키기 위해 ‘연구재원확대’와 함께 ‘대학원생 연구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6) 재정

재정에 관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사업 대응, 대학 재정의 투명성, 예산집행의 적절성, 외부 발전기금 유치의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으며, 각 항목의 평점은 각각 4.13, 3.83, 3.74, 3.53으로 집계되었다. 네 가지 영역의 평균은 3.81점으로 전체 평균 3.59 보다 월등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중 정부 재정지원사업 대응, 대학 재정의 투명성, 예산집행의 적절성에 높은 평점이 부여되었으며, 이는 지속적 성장 발전을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본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돋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7) 산학연

산학연 분야에 관해서는 산학연 과제 활성화, 산학연 재정확충, LINC+ 사업의 활성화, 산학연관 연계 클러스터 강화 등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으며, 각 항목의 평점은 각각 3.74, 3.71, 3.94, 3.68 등으로 집계되었다. 평균은 3.77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8) 대학현안

대학 현안에 대해서는 대학기본역량진단 대응, 신입생 유치, 대학구조조정 진행, 학생취업활동지원, 2023년~2025년 입학정원조정의 적절성의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이들 5개 항목의 평균은 3.51이다. 다섯 가지 항목 중 대학기본역량진단대응이 4.0으로 가장 높았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학생취업활동지원, 대학구조조정 진행, 신입생 유치의

순으로 각각 3.47, 3.43, 3.41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2. 공약 사항 이행 정도 분석평가 요약

1) 교육 분야

교육 분야 공약은 ‘고차적 창의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3개의 주요 항목 첫째 ‘양질의 교육’, 둘째 ‘학사 제도의 유연화’, 셋째 ‘학습환경 스마트화’가 제시되었다. 공약 중, ‘양질의 교육’의 ‘대학 교육 목적에 부합한 인성과 역량 교육 강화’, ‘학습성향 진단·분석을 통한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맞춤형 진로교육 제공을 통한 취업역량강화’, ‘학생생활 상담프로그램 지원 강화’ 및 학생생활 상담프로그램 지원 강화와 ‘학습 환경 스마트화’의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교육방법 및 평가 유연화 추진’, ‘창의·융합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의 지속적 개선’ 및 ‘EdTech Platform 구축’은 공약대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학사 제도의 유연화’의 ‘창의·융합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사제도의 유연화 실현’은 일부 공약사항 이행도가 낮거나,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였으며, 향후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 분야

‘성과중심의 업적평가 및 인사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행정지원 효율화를 위한 체계 개선’ ‘즐겁고 신나는 학생복지’, ‘캠퍼스 공간 활용 및 안전캠퍼스 실현’은 공약대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소통·협력의 조직문화 구축’, ‘교수복지 증대 및 개선’, ‘직원복지 증대 및 개선’ 등은 일부 공약사항 이행도가 낮거나,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였으며, 향후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이행 속도를 다소 올려야 하는 분야로 교육1 개의 세부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연구·학생지도비의 인정 항목 다양화와 증액 추진’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① 2022학년도 90,000천원 증액 (21년도 7,208백만원 → 22년도 7,292백만원), ② 4S 교수 교육역량강화 관련 지표 신설 및 교연비 시스템 고도화 추진 등이 있는데, 인정항목 다양화와 증액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지역사회 / 국제화

총장 후보 시 제시한 지역사회부문 공약은 대부분 사업이 기존 사업을 이어가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즉 4대 총장 취임 이후 새로 시작된 사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혁신적인 성과를 논하기엔 부족한 점이 있다. 중간평가 설문조사에서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및 교류 항목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3.88)를 받았다. 이러한 평가는 비록 동일인이긴 하지만 4대 총장의 업적이 아니라 3대 총장의 업적으로 보아야 한다. 4대 총장이 취임한 이후 지역사회부문의 여러 사업이 질적이나 양적으로 뚜렷이 개선되었다는 실적지표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사회부문 공약의 셋째 항목인 국제적 마인드 함양 강화 항목은 중간평가 설문조사에서도 다른 항목에 비해 비교적 낮은 평가(3.37)를 받았다. 코비드19 감염증의 영향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영문 홈페이지 관리나 자매학교의 확대 등 학생과 교수의 국제교류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모색과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대학경영 부문

대학경영 부문 공약은 ‘조직문화의 가치 공유’를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첫째 ‘신뢰와 협력의 직장문화 조성’ 둘째 ‘실속 있는 복지서비스 증대 및 개선’ 셋째, ‘캠퍼스 공간 활용의 최적화 실현’이 제시되었다.

공약 세부내용 중, ‘성과중심의 업적평가 및 인사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행정지원 효율화를 위한 체계 개선’ ‘즐겁고 신나는 학생복지’, ‘캠퍼스 공간 활용 및 안전캠퍼스 실현’은 공약대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소통 · 협력의 조직문화 구축’, ‘교수복지 증대 및 개선’, ‘직원복지 증대 및 개선’ 등은 일부 공약사항 이행도가 낮거나,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였으며, 향후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이행 속도를 다소 올려야 하는 세부 항목은 3개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통 · 협력의 조직문화 구축’,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함께 소통하는 금요행복타임, 이슈별 업무조정회의 구성, 직능별 직원협의회 등의 의사결정 기구의 참여 강화 등이 있으며, 정책연구가 실시되고, 직원협의회 참여가 확대되었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둘째 ‘교수복지 증대 및 개선’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지급제도의 다양화와 증액, 명예교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실시 등이 있으며,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지급액이 증액되었지만, 명예교수제도 개선에 대한 이행도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셋째 ‘직원복지 증대 및 개선’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직무 및 성과에 따른 합리적 승진 및 인센티브 도입, 불필요한 업무 감축, 유연근무 활성화 등이 있으며, 직원 업무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5) 환경변화 대응(재정 포함)

대학경영 부문 공약 중 ‘환경변화 대응체제 구축’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3개의 주요 항목 첫째 ‘대학 정책 위원회 발족을 통한 대응체제 강화’, 둘째 ‘지속적 성장 발전을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 셋째 ‘전략적 입시 대응 체제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세부 공약 중, ‘미래 교육대응전략위원회 구성 및 전문성 강화’, ‘대학발전기금 모금 방법의 다원화’ ‘신입생 및 편입생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은 공약대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지속 성장 가능한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정 보완’, ‘재정 효율화 및 예·결산 업무의 투명성 제고’, ‘분야별 홍보전략 수립’ ‘국외 유학생 유치 환경 구축’ 등은 일부 공약사항 이행도가 낮거나,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였으며, 향후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이행 속도를 다소 올려야 하는 세부 항목은 4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 성장 가능한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정 보완’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중장기발전계획 성과관리 강화,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비전 2025+> 고도화 완료, 3대 특성화 분야로 해양·에너지·소프트웨어 설정, 중장기 발전계획 성과지표 및 재정투자계획 현행화 등이 있으며, 교수·직원 참여형 FT구성 및 대응체제 구축되었으나, 앞으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요구된다. 둘째 ‘재정 효율화 및 예·결산 업무의 투명성 제고’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구성원의 대학회계 예산 성과평가 제도를 통한 재정 효율화 및 예산편성 집행의 우선순위 추진, 구성원의 예산참여 제도 도입, 대학재정건정성 강화 위원회 구성을 통한 위기등급별 시나리오 전략 수립 등이 있으며, 대학재정 투명성을 위한 노력이 돋보이나 교육 사업비(예, 링크사업 등)의 집행의 투명성, 효율적인 활용부분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셋째 ‘분야별 홍보전략 수립’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대학의 대표브랜드 설정, 교내 홍보콘텐츠 발굴, 국제홍보, 언론홍보, 온라인 홍보, 입시 홍보 등 분야별 전략적 방안 마련 등이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

전략 요구된다. 넷째 ‘국외 유학생 유치 환경 구축’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자매대학 MOU체결 확대, 국외 대학간 공동학위제 프로그램 추진, 한국어학당 어학연수생 확대 등이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유연한 전략이 요구된다.

6) 구성원 복지

구성원 복지 부문에서는 ‘실속 있는 복지서비스 증대 및 개선’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3개의 주요 항목 첫째 ‘즐겁고 신나는 학생복지’, 둘째, ‘교수복지 증대 및 개선’, 셋째 ‘직원복지 증대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공약 중 ‘반다비 체육관 건립’,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 지원’, ‘노후 학생생활관 BTL추진’, ‘도서관 리모델링 추진’,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강화’, ‘연구 의욕 고취 연구환경 개선’, ‘합리적 인사행정 구현 추구’는 공약대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증액 및 제도 개선’, ‘교수 1인 1TA 제도 도입’, ‘명예 교수실 탄력적 운용’, ‘신임교수 연구 정착금 확대 지원’, ‘상대적 소외 직종의 생계형 지원강화’, ‘직원직능단체 대학정책 참여 여건 마련’ ‘승진 기회 확대’, ‘근무 업무 경감 및 임용제도 개선’ 등은 일부 공약사항 이행도가 낮거나,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며, 향후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이행 속도를 다소 올려야 할 8개의 세부 항목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증액 및 제도 개선’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2022학년도 90,000천원 증액, 4S 교수교육역량 강화 관련 지표 신설 및 교연비 시스템 고도화가 추진되었으나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제도의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교수 1인 1TA 제도 도입’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학문 후속세대 양성 및 우수 연구인력 육성을 위한 대학원생 대상 전일제 장학금 지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석사과정 운영, 학술대회 참가경비, 연구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한 학문교류 기회제공 및 대학원생 연구 의욕 고취 등이 추진되었지만 교수 1인 1TA 제도는 공약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앞으로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된다. 셋째 ‘명예 교수실 탄력적 운용’,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명예교수 공동연구실 1실(75.96㎡) 추가 구축 및 활용계획 수립 완료가 되었으나 이행도가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넷째 ‘신임교수 연구 정착금 확대 지원’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신임교원 연구 정착금 관련 절차 간소화 추진 되어 정착금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공약 추진이 요구된다. 다섯째 ‘합리적 인사행정 구현 추구’와 여섯째 ‘직원직능단체 대학정책 참여 여건 마련’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속한 공약 추진이 요구된다. 일곱째 ‘승진 기회 확대’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대학회계직 6급 승진 확대가 이루어졌으나 이행도가 미흡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적극적인 공약 이행이 요구된다. 여덟째 ‘근무 업무 경감 및 임용제도 개선’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인사팀과 직원과의 수시 상담 실시하고, 인사 고충직원의 현안을 적극 반영하여 전보(부서배치) 실시하였으나 근무 업무 경감 실적과 임용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적극적 공약 추진이 요구된다.

부 록

I 설 문 지

대학운영에 대한 기여도

1. 반선섭 총장의 ‘대학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번호	설문내용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⑤	④	③	②	①
1	학교 발전에 기여					
2	단과대학 발전에 기여					
3	교수역량 향상에 기여					
4	직원역량 향상에 기여					
5	학생역량 향상에 기여					

총장의 지도력

2. 반선섭 총장의 ‘지도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번호	설문내용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못함	매우 못함
		⑤	④	③	②	①
1	대학발전전략 추진					
2	대학구성원들간 화합					
3	주요보직자 인선의 적절성					
4	직원 인사배치의 적절성					
5	교수의견의 정책반영					
6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교류					
7	국제적 마인드 함양 강화					
8	대학행정의 투명성					
9	대학행정의 민주성					
10	단과대학의 자율성					
11	단과대학장 인선의 적절성					

구성원 복지

3. 반선섭 총장의 ‘구성원 복지’ 기여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번호	설문내용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⑤	④	③	②	①
1	교직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개선					
2	교직원 복지시설 확충					
3	교직원 복지제도 개선					
4	학생 복지시설 개선					
5	학생 복지제도 개선					

교육분야

4. 반선섭 총장의 ‘교육분야’ 기여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번호	설문내용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⑤	④	③	②	①
1	교수 충원률 제고					
2	교양교육 내실화					
3	전공교육 내실화					
4	대학원교육 내실화					
5	교육시설 및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연구분야

5. 반선섭 총장의 ‘연구분야’ 기여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번호	설문내용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⑤	④	③	②	①
1	교수 연구활동 지원 확대					
2	연구소 및 연구회 활성화					
3	연구기금 확충 등 연구재원 확대					
4	대학원생 연구 지원					

재정분야

6. 반선섭 총장의 ‘재정분야’ 기여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번호	설문내용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⑤	④	③	②	①
1	정부 재정지원 사업 대응					
2	대학재정의 투명성					
3	예산집행의 적절성					
4	외부 발전기금 유치					

산학연 분야

7. 반선섭 총장의 ‘산학연분야’ 기여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번호	설문내용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⑤	④	③	②	①
1	산학연 과제 활성화					
2	산학연 재정확충					
3	LINC+ 사업의 활성화					
4	산학연관 연계 클러스터 강화					

대학현안

8. 반선섭 총장의 ‘대학현안’ 해결 성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번호	설문내용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못함	매우 못함
		⑤	④	③	②	①
1	대학기본역량진단 대응					
2	신입생 유치					
3	대학구조조정 진행					
4	학생 취업(인턴, 현장실습 등)활동 지원					
5	2023~2025년 입학정원 조정 적절성					

자유응답형

9. 반선섭 총장 취임 후 ‘잘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한 일: _____

그 이유는: _____

10. 반선섭 총장 취임 후 ‘못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못한 일: _____

그 이유는: _____

11. 반선섭 총장에게 남은 임기동안 학교운영에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통계처리를 위한 기본사항

1.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3. 귀하의 직급은? ① 교수 ② 부교수 ③ 조교수
4. 귀하의 재직기간? ① 1~5년 ② 6~10년 ③ 11~15년 ④ 15년 이상
5. 귀하의 단과대학은? ① 인문대학 ② 사회과학대학 ③ 자연과학대학 ④ 생명과학대학
 ⑤ 공과대학 ⑥ 예술체육대학 ⑦ 치과대학 ⑧ 보건복지대학
 ⑨ 과학기술대학 ⑩ 기타()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